

서울디자인 2023: 아카이브
Seoul Design 2023: Archive

SEOUL DESIGN 2023

SEOUL
DESIGN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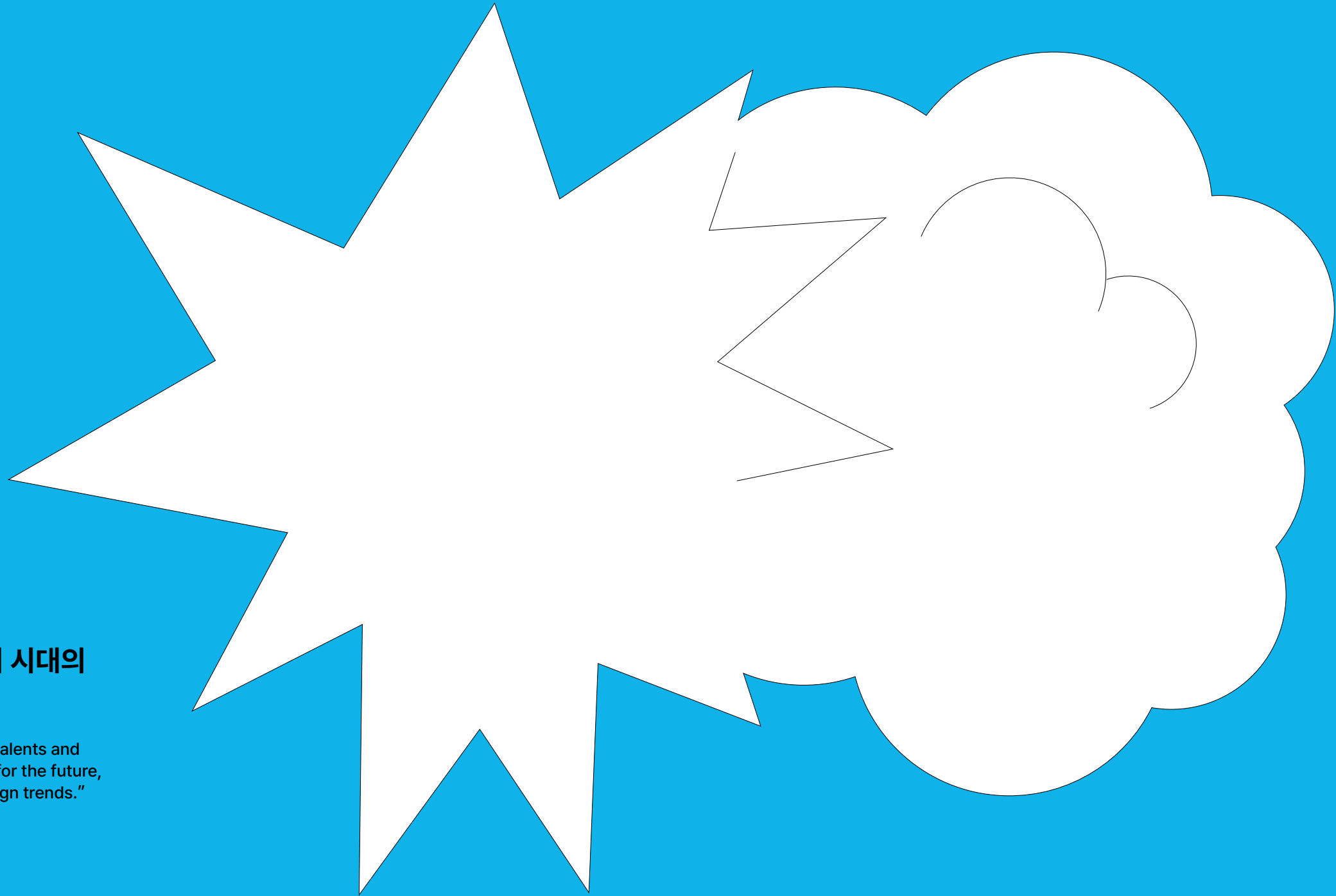
서울디자인 2023: 아카이브
Seoul Design 2023: 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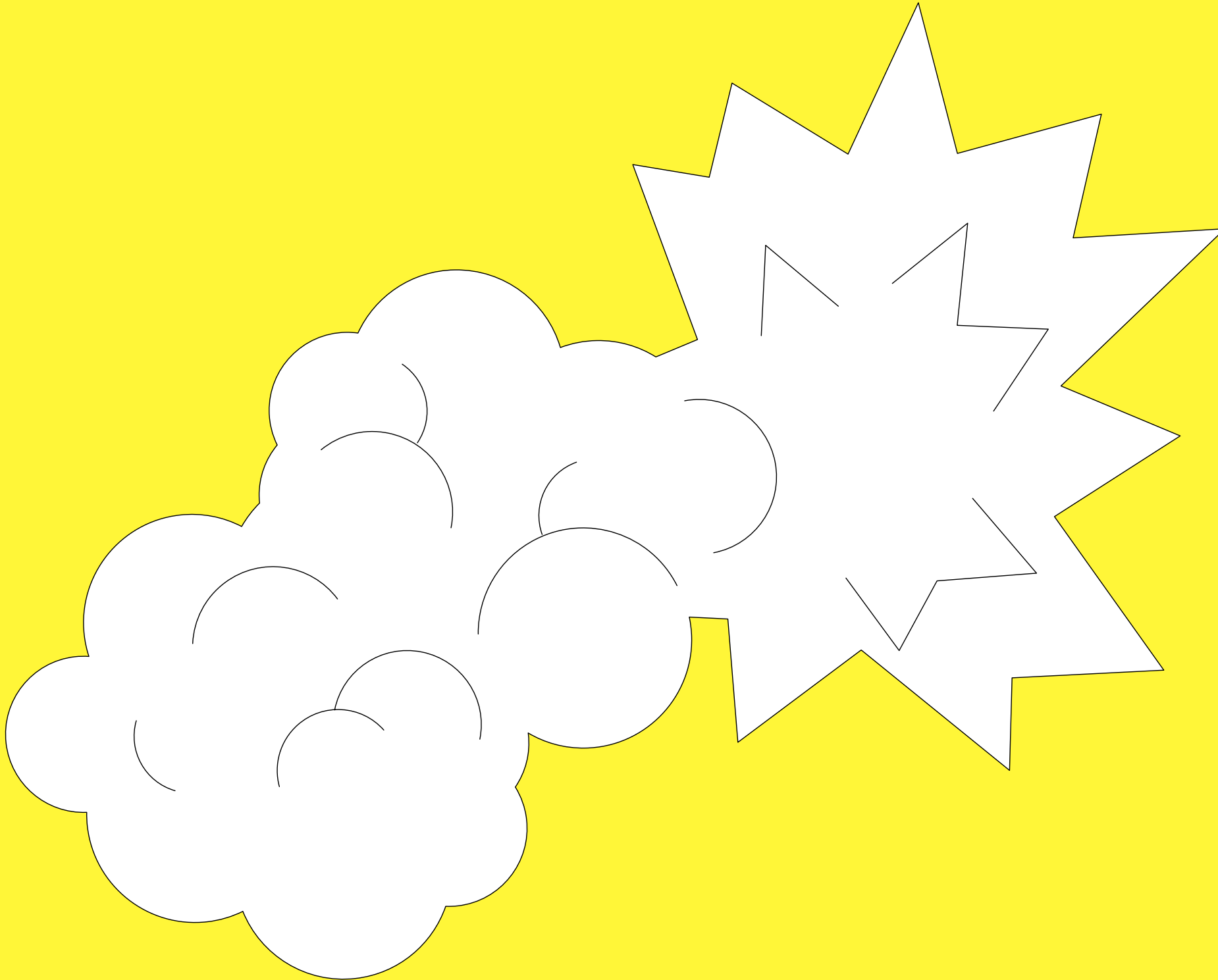
국내외 기업과 디자이너, 소상공인이 이끄는 디자인 트렌드
Design Trends Showcased by Local and International Companies,
Designers, and Small Businesses

“유명 디자이너는 물론
재능 있는 영 디자이너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 미래를 위한
해법을 고민하는 기업이 모여 이 시대의
디자인 트렌드를 공유합니다.”

“It unites renowned designers with emerging talents and
companies dedicated to designing solutions for the future,
fostering the exchange of contemporary design trends.”



디자인을 통해 높이는 도시의 미래가치
Elevating the Future Value of the City Through Design



**“현재 K-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내 기업과 다양한 영역의 디자이너가
미래 시대 디자인의 역할을 논하는 장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A significant event will take place in Seoul, where leading Korean companies in the current K-design trend and designers from diverse fields will engage in discussions about the role of design in shaping the future.”

세계 유수의 도시는 오래전부터 해마다 도시를 상징하는 디자인 축제를 개최해 왔습니다. 서울 또한 2008년 '디자인서울' 정책의 일환으로 <서울디자인올림픽>을 개최하며 이런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왔습니다. 그 이후 <서울디자인 한마당>, <서울디자인위크>, <디자인 클라우드>, <서울디자인>으로 진화했고, 현재는 서울의 대표 디자인 마이스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울디자인 2023>의 주제는 '가치 있는 동행(Valuable Life)'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디자인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올해에도 소상공인과 디자이너, 기업과 젊은 디자이너, 국내외 기업과 저명인사, 시민과 지역사회가 어울려 행사의 문을 열었습니다. 함께한 모두의 역량이 응집돼 행사를 성대하게 치를 수 있었기에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서울디자인 2023>은 다양한 콘셉트의 기획전을 선보였습니다. '주제전'에는 동행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기업 전시 & 팝업'에서는 기업의 브랜드 콘셉트와 신제품을 소개했고, 'DDP디자인론칭페어'와 '기업+영디자이너 브랜드전'을 통해서도 기업과 젊은 디자이너들이 협력해 개발한 신제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미래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하는 '서울디자인 컨퍼런스', 시민과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디자인 마켓' 등 다양한 이벤트를 ESG 개념을 도입해 진행했습니다. 서울 전역의 디자인 핫 플레이스가 참여하는 '서울디자인 스폿'에는 200여 곳이 함께하며 뜻을 모았습니다.

오프닝 행사에서는 국제 공모전인 '서울디자인 어워드' 포럼을 개최하고 수상작을 전시하는 한편 시상식을 진행해 세계 각국의 수상자와 함께했습니다.

<서울디자인 2023>은 120만여 명에 달하는 역대급 방문객이 찾아오는 뜻깊은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디자인>은 최신 트렌드를 발신하고 새로 론칭한 제품을 선보이는 디자인 플랫폼인 동시에 디자인 전문 마이스산업의 장으로서 서울의 가치를 높이는 세계적 디자인 축제로 그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디자인재단은 K-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내외 대표 기업과 디자이너, 소상공인, 청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K-디자인을 경험하는 대한민국의 디자인 랜드마크 DDP를 구축해 디자인산업 활성화와 디자인 문화 확산에 더욱 기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디자인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만들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경돈

Major cities globally have long hosted annual urban design festivals. Seoul initiated its involvement with the Seoul Design Olympics in 2008 as part of the Design Seoul policy. Over time, this initiative has transformed into 'Seoul Design Fair', 'Seoul Design Week', 'Design Cloud', and 'Seoul Design', establishing itself as the foremost design MICE industry in Seoul.

The overarching theme for 'Seoul Design 2023' is "Valuable Life." To foster a sustainable future, the program was meticulously planned and executed to incorporate design perspectives on current social issues and trends.

Once again, this year, a collaborative initiative took shape as small businesses and designers, corporations, emerging talents,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celebrities, citizens, and local communities united to bring the event to life. I am delighted that the combined capabilities of everyone involved resulted in the resounding success of the event.

The 'Theme Exhibition' encapsulated the essence of togetherness; the 'Corporate Exhibition & Pop-up' unveiled company brand concepts and new products. The 'DDP Design Launching Fair' and 'Corporate + Young Designer Brand Exhibition' highlighted new products resulting from meetings and collaborations. Various events, including the 'Seoul Design Conference,' revealing future design trends, and the 'Design Market,' embraced and shared by citizens, were conducted with the ESG concept. Over 200 design hot spots from across Seoul took part in the Seoul Design Spot.

The opening included a forum for the Seoul Design Awards,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It also featured an exhibition displaying the winning entries and an awards ceremony that acknowledged winners from across the globe.

This culminated in a record-breaking attendance of 1.2 million visitors. We express sincere gratitude to all participants for their dedicated efforts.

Seoul Design not only serves as a platform to communicate the latest trends and showcase new launches but also solidifies its position as a global design festival, elevating Seoul's status as a key venue for the design MICE industry.

The Seoul Design Foundation is committed to making additional efforts to revitalize the design industry and spread design culture. By establishing DDP as a design landmark in Korea, we aim to create a space where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t the forefront of the K-design trend, designers, small businesses, and youth can engage and experience K-design collaboratively.

Our aspiration is for Korea to dream and craft a joyous future through design.

Thank y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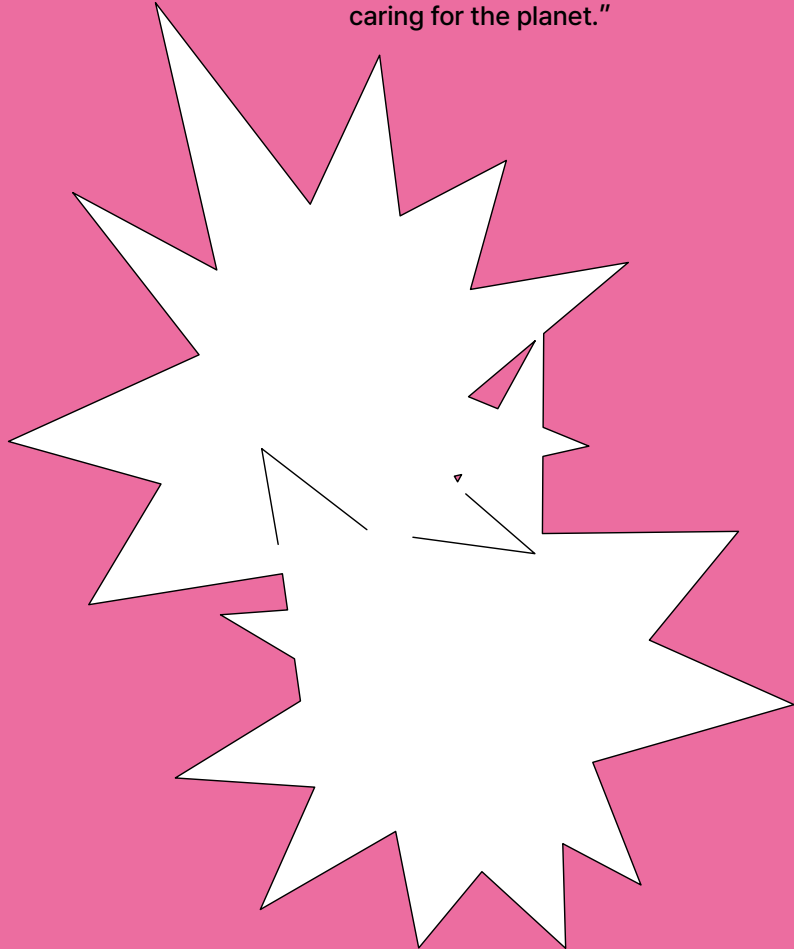
Rhee Kyung-don

CEO of Seoul Design Foundation

디자인에서 찾는 가치 있는 동행
Meaningful collaboration facilitated by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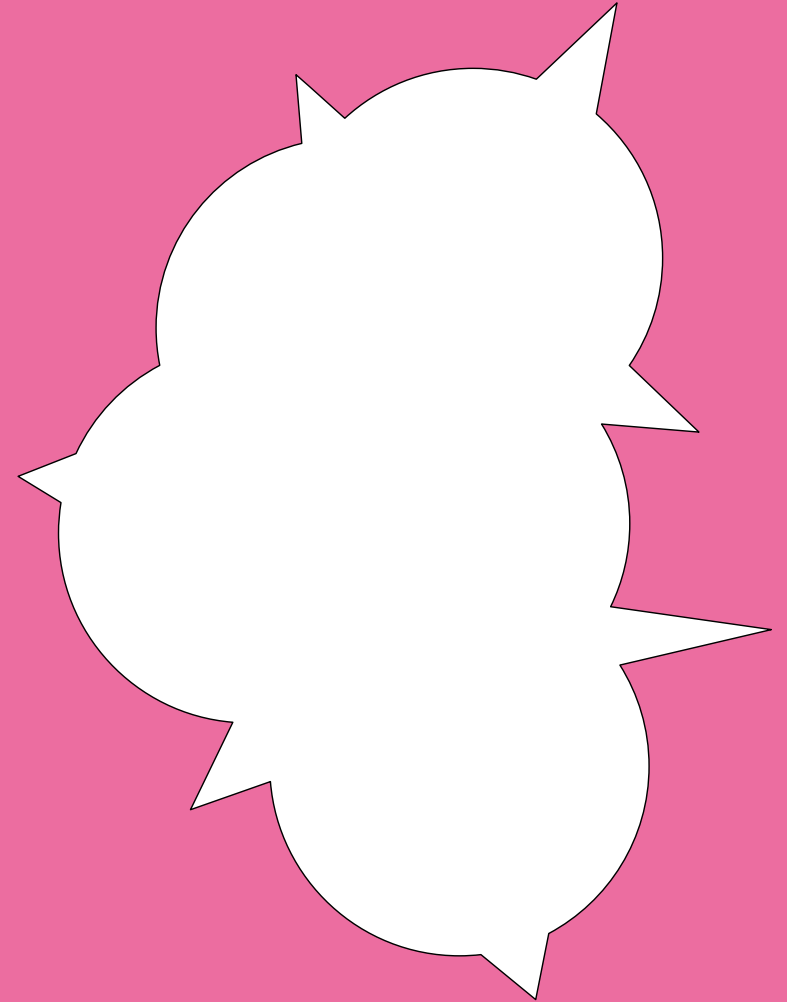
**“ESG의 가치에 대해 시민과 디자이너,
기업이 함께하는 의미 있는
디자인 축제입니다. 이 시대 디자인은
지구 환경을 생각하며 뚜렷한 철학과
가치를 지녀야 합니다.”**

“A meaningful design festival that brings together citizens, designers, and companies around the principles of ESG. In today’s context, design must embody a clear philosophy and a commitment to caring for the planet.”



오래 곁에 두고 사용하며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제품에 대한 고민

Contemplating enduring products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디자인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물건은 쉽게
잊히고 맙니다. 물건을 가치 있게 하는 것,
이를 통해 가치 있는 동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야말로 디자인의 역할입니다.”**

“Without meaningful design, objects are easily forgotten. It is the role of design to impart value, transforming items into cherished companions with lasting significance.”

차례

008	GREETING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014	NUMBERS	
016	WELCOME TO 서울디자인 2023	
018	큐레이터	
030	디자인 전시	주제 전시 기업+영디자이너 브랜드 전시 2023 DDP디자인론칭페어 기업 전시 & 팝업 반 시계루 재난주택 모듈전시 제로웨이스트 파빌리온 해외 트렌드 전시
166	디자인 컨퍼런스	서울디자인 컨퍼런스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184	디자인 마켓	DDP디자인론칭페어 마켓 글로벌 ESG 트렌드 마켓 리퍼브 디자인 마켓 소상공인 ESG 트렌드 마켓 문호리 ESG 마켓 & 어린이 경제 마켓
206	부대행사 & 이벤트	영디자이너 취업컨설팅 <서울디자인 2023> 개막식 <서울디자인 2023> 시상식 공연 & 시민참여 이벤트 서울디자인스팟2023 협력 프로그램
244	만든 사람들	

Numbers

10
Years

52
Corporations & Brands

21
Countries

1,210,542
Visitors

218
Design Spots

1,442
Designers & Creators

서울디자인 2023
Seoul Design 2023

개최 기간 2023년 10월 24일 - 11월 2일
Dates October 24 - November 2, 2023

행사 장소 DDP 및 서울시 일대
Venue DDP and Seoul Metropolitan Area

행사 내용
Event Content

트렌드를 선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내외 기업과 디자이너 그리고 소상공인 등이 참여해 전시, 컨퍼런스, 마켓,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디자인과 산업 트렌드 정보를 공유하고 신진 디자이너와 새로운 디자인 상품을 선보이는 서울의 대표적인 디자인 축제다.

A premier design festival in Seoul, host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nies, designers, and small businesses aspiring to shape trends and contribute to social value. The event encompasses diverse programs, including exhibitions, conferences, markets, and workshops, facilitat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on design and industry trends. It serves as a platform to showcase emerging designers and new design products.

시민이 함께 즐기고 호응한 서울의 대표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이 10년을 맞아 행사의 전문성과 질을 강화하고 규모와 기간을 확장해 새롭게 개막했습니다. <서울디자인>은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발신하고 새로운 디자인 론칭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매년 사회적 이슈를 반영한 주제를 선정하고, K-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내외 대표 기업과 디자이너, 소상공인, 청년과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기능하며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서울디자인>에서는 매년 사회적 이슈와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반영한 '주제전'과 '기업 파빌리온 및 팝업', 소상공인과 디자이너가 만나 개발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DDP 디자인론칭페어', 기업과 영 디자이너가 협업해 개발한 신제품과 브랜드를 선보이는 '기업+영디자이너 브랜드전' 등의 전시를 선보입니다. 이 외에도 국내외 유명 인사와 함께 미래 디자인 트렌드를 제시하는 '서울디자인 컨퍼런스', 시민과 함께 즐기고 공유하는 '디자인 마켓'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칩니다.

'Seoul Design', the city's premier design festival cherished by citizens, marks its 10th anniversary with a commitment to enhancing professionalism, quality, and expanding both scale and duration. 'Seoul Design' stands as a dynamic platform disseminating the latest design trends, unveiling new design launches, and annually selecting themes reflective of social issues. It serves as a vital venue for discussions involving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leading the K-design trend, designers, small businesses, and youth, contributing to the future value of the city.

Every year, Seoul Design presents an array of exhibitions, including 'Theme Exhibition' and 'Corporate Pavilion and Pop-up', which delve into social issues and the latest design trends. The 'DDP Design Launching Fair' showcases innovative products from small businesses and designers, while the 'Corporate + Young Designer Brand Exhibition' spotlights collaborative efforts resulting in new products and brands. Additional events include 'Seoul Design Conference', unveiling future design trends wi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celebrities, and 'Design Market', offering citizens a space to enjoy and share design experiences.



큐레이터

CURATORS

“디자이너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

<서울디자인 2023> 공간 큐레이터
유이화 — ITM 유이화 건축사사무소 대표



‘가치 있는 동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서울디자인 2023> 같은 큰 축제에서는 그 시대의 정신을 담은 메시지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무엇보다 기후변화나 환경문제에 우리 모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이런 점에서 <서울디자인 2023>은 ‘ESG’라는 주제로 시민과 디자이너, 기업이 함께하는, 대단히 의미 있는 축제다. 가치 있는 동행이란 각자의 위치에서 필요한 소명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건축가로서 나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철학과 가치를 좇아 지구환경을 생각하며 소명을 다해 디자인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ESG를 위한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아주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가령 일회용품을 덜 쓴다거나 환경을 생각하는 브랜드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도 작은 실천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각자의 위치에서 시대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ESG 가치를 실천하며 함께 고민하고 소명을 다해야 할 때다.

공간 큐레이터로서 <서울디자인 2023>에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서울디자인 2023>은 여러 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축제다. 한시적인 축제지만 이 기간에 산업폐기물이나 쓰레기 같은 것을 덜 발생시키기 위한 노력도 보여주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폐지와 폐마루 등 쓸모를 다한 폐자재를 활용한 심터 공간인 ‘제로 웨이스트 파빌리온’을 기획하고 있다. 시민들이 동참하고 동행할 수 있는 ESG의 가치를 디자인에 담아내고 담론의 장을 만들어내며 작은 실천, 그리고 ESG를 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서울디자인 2023>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 꼽는다면?

이제 전 세계가 서울을 주목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민이 <서울디자인 2023>을 통해 우리가 얼마큼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자인을 통해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 전 세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많은 디자이너와 시민이 동참하며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 이와 더불어 <서울디자인 2023>에서는 ESG와 관련한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디자이너 일상의 삶에 변화를 가져왔듯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을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싶다.

축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은

즐거움은 무엇인가?

<서울디자인 2023>은 서울에서 가장 큰 플랫폼 역할을 하는 축제다. 많은 디자이너가 참여해 자신의 디자인을 여러 기업과 시민에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다. 서울은 어마어마하게 에너지 넘치는 도시다. 이런 도시에서 <서울디자인 2023>을 개최함으로써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모으고, 주목할 결과물도 많이 만들어내는 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디자인 트렌드를 어떻게 전망하나?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ESG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ESG를 일상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착한 디자인으로 착한 소비를 이끌어낼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이 많이 나와야 한다. 디자인 트렌드 역시 이런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 세계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인류가 디자인을 통해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디자인>이 나아가길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디자인 2023> 역시 시대정신을 담으며 이상적인 미래를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이것이 이어져야 한다. 또 축제가 계속 커지며 재능 있는 신인 디자이너를 발굴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세계적으로 각 도시를 대표하는 디자인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디자이너가 많은 만큼 서울을 대표하는 디자인 축제가 있어야 한다. <서울디자인>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많이 탄생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한다.

‘가치 있는 동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이 인터뷰를 하고 있는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해야 할 때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은 존재이자 대상이다. 디자인에서도 이런 의미가 필요하다. <서울디자인 2023>이 기업이나 디자이너가 사람들이 오래 곁에 두고 사용하며 대를 이어 물려줄 수 있는 제품을 많이 보여주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ESG를 위한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나는 패션 매거진 만드는 일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패션 브랜드의 브랜드링이나 스토리에 관심이 많다. 특히 요즘에는 젊은 디자이너가 이끄는 브랜드 중에 ESG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향으로 브랜드를 발전시키고 싶어 하는 사례가 많다. 이런 디자이너를 발견해 마치 예술 작품 같은 옷을 구입하고, 더 많은 오피니언리더에게 이런 옷을 소개하는 일도 ESG를 위한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가치 있는 동행’을 위해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키워드다. 디자인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물건은 쉽게 잊히고 만다.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한 고민은 비단 산업뿐 아니라 패션이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해야 한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 가치 있는 동행의 의미를 담은 디자인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킹 큐레이터로서 <서울디자인 2023>에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가치 있는 동행’이라는 주제를 두고 고민하며 주변의 많은 브랜드를 차근차근 돌아봤다. 오랫동안 많은 사랑을 받는 ‘우리의 브랜드에는



“다양한 기업과 디자이너가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제각각의 디자인 세계를 펼쳐 보이는 곳”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봤다. 현대자동차의 포니가 바로 그런 제품이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리워하고, 디자인 자체로도 여전히 가치 있는 제품을 소개하고 싶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화두로 인해 새로운 고민이 많이 대두하고, 솔루션이 역시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 가치 있는 것은 이미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이를 재발견하고 브랜드의 스토리를 돌아보며 가치 있는 동행을 <서울디자인 2023>만의 방식으로 해석하려고 했다.

<서울디자인 2023>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 꼽는다면?

<서울디자인> 행사는 지난해 첫발을 내딛으며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훨씬 많은 기업과 디자이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을 보여 반가웠다. 더 다양한 장르에 걸쳐 디자이너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해 전하는 메시지를 관람객이 전시 곳곳에서 꼼꼼히 찾아보면 좋겠다. 또 전시를 통해 펼쳐진 일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면 <서울디자인 2023>이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축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은

즐거움은 무엇인가?

우선 현대자동차 전시를 재미있게 봐주었으면 한다. 지속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전시 중 포니를 실제로 볼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애뜻한 추억으로 떠올리는 포니를 보며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되새겨볼 수 있기를 바란다. 젊은 디자이너들의 활약도 눈여겨봐 주었으면 한다. 젊은 디자이너들의 창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르가 디자인 아닌가. 지속가능한 디자인이야말로 젊은 디자이너의 창의적이고 재기 발랄한 아이디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서울디자인 2023>이 젊은 디자이너들의 새로운 디자인과 도전을 보여주고 격려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디자인 트렌드를 어떻게 전망하나?

모든 분야에서 ESG를 위한 고민이 지속될 것이다. 쉽게 쓰이고 버려지는 물건에 대해 모든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더 진지하게 고민하며 답을 찾아가지 않을까. 업사이클링이나 리사이클링 외에도 ESG를 좇는 디자인에 중점을 둔 디자이너가 더 많아질 것이다. 또 세계적으로 주목하는 메타버전이나 인공지능(AI) 세계와 접점을 찾는 디자인이 요구되지 않을까 한다.

<서울디자인>이 나아가길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는 DDP를 중심으로 전시를 기획하고 있지만 점차 더 확장해 서울시 전체가 디자인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전시 장소가 되었으면 한다. 밀라노나 파리, 베네치아만 봐도 건축이나 디자인을 중심으로 도시 전체가 소통하지 않는가. 이처럼 <서울디자인>도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에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기업과 디자이너, 소상공인이 모여 함께하는 디자인 플랫폼”



<서울디자인 2023> 주제전시 큐레이터
정구호 — 피콜리어인투이션 대표

‘가치 있는 동행’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

디자인은 결코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기업과 디자이너 그리고 소상공인과 상품을 개발하는 창작자가 만나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이뤄지고 이를 통해 하나의 상품이 완성된다. ‘가치 있는 동행(Valuable Life)’, 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가치 있는 만남을 통해 의미 있는 창작품이 만들어진다. 가치 있는 동행이란 기업과 디자이너의 만남일 수도 있고, 기업이나 디자이너와 소비자의 만남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신중한 선택이 가치 있는 동행이라고 생각한다.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물건을 선택하는 것으로 가치 있는 동행이 시작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ESG를 위한 삶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ESG 하면 보통 가장 먼저 재활용,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절약 등을 떠올린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생산자가 신중히 선택해 만드는 물건, 그리고 그 물건을 신중히 선택하는 소비자의 관계가 가치 있는 동행을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많은 디자이너가 매력적인 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앞으로는 생명력이 긴 상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주제전시 큐레이터로서 <서울디자인 2023>에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주제전의 제목은 ‘현명한 동거’다. 사람만이 동거의 대상이 아니라 물건도 사람과 공존하는 존재다. 동거할 대상이니만큼 신중히 골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물건을 얼마나 오랫동안 함께하고 다음 세대에까지 물려줄 수 있는지 고려하며 선택해야 한다. 주제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물건의 먼 미래를 바라보며 신중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

<서울디자인 2023>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 꼽는다면?

이제 ESG는 필수다. ESG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어쩌면 소비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소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낭비하지 않으며 버려지는 것을 줄이는 것이 ESG의 시작 아닐까? 버려지는 것을 줄이고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치 있는 물건을 생산하며 그런 것들을 선택한 물건으로 채운 <주제 전시>를 꼭 살펴보길 권한다.

축제를 통해 시민과 함께 나누고 싶은 즐거움은 무엇인가?

<서울디자인 2023>은 한국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와 기업, 소상공인이 만나는 장이다. 그런 만큼 디자인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고, 이 시대에 디자인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목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많은 시민이 <서울디자인 2023>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기를 바란다. 또 DDP라는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서울 전역의 디자인 스폿도 눈여겨본다면 디자인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디자인 트렌드를 어떻게 전망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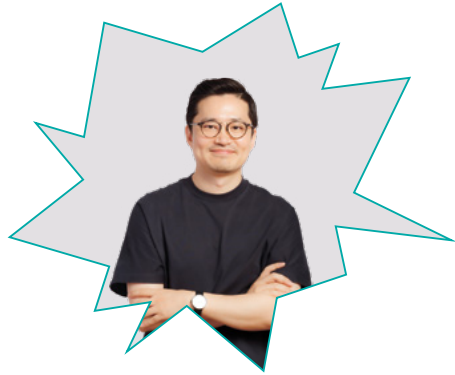
디자인 트렌드에서도 ESG를 빼놓을 수 없다. 디자이너는 다양하고 독특한 주제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낸다. 지금은 상품의 가치를 생각하며 디자인을 기획하는 시대다. 기업 역시 버려지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가치 있는 물건을 만드는 것, 이것이 곧 디자인 트렌드다. 다만 지금까지 트렌드라고 손꼽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나타나고 사라졌다면, 앞으로는 새로운 소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상품의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기술적 측면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서울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서울은 면적도 넓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다. 그만큼 다양한 공간이 존재하며 공간마다 나름의 특징이 있고, 그 안에서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이뤄진다. 어느 도시보다 밀도 높게 다양성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다. <서울디자인>은 서울에서 열리는 많은 행사 중 가장 에너지틱하고 가치 있는 행사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사람이 모여 협업하며 만들어낸 결과물을 전시를 통해 소개하는 <서울디자인>이야말로 K-디자인의 흐름을 감각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다. 새로운 형태의 창작물을 살펴보고 디자이너의 고민을 나누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



<DDP디자인론칭페어> 컬래버레이션 큐레이터



신태호, 조은환 — Maezm 공동대표

“지난해와 비교해 최종 전시 팀이 120팀에서 60팀으로 조정되며 선택과 집중이 가능했다. 올해는 상품마다 품고 있는 스토리를 들려줄 수 있어 관객과 적극적인 소통을 기대했다. 멘토링을 진행하며 상품의 가치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다. 모든 과정은 하나의 결론으로 향하는 것이고, 소비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가치를 담은 상품이 나와야 한다. 가치를 담은 상품을 가졌다는 사실에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상품을 디자인하고 만들어야 소비자를 설득해 구매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 올해 페어는 디테일을 보강한 완성에 가까운 상품이 많이 등장해 놀라웠다. 바로 판매해도 손색없을 만큼 완성도 높은 상품이 많아 기분 좋은 경쟁심까지 느끼게 했다. 신태호

“지난해 큐레이터로서 처음 참여했을 때는 설렘과 긴장감이 컸다면 올해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지난해 페어에 대해 의견과 이견을 더해 낸 제안이 올해 반영된 것을 보며 든 자연스러운 부담감이다. 올해는 가치 있는 동행을 주제로 한 만큼 ESG의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 보았다. 지금은 물건을 대하는 ‘낭만’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애정을 가지고 오래 곁에 둘 수 있는 낭만. 이런 작은 낭만이 모여 큰 실천으로 이어지면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가치 있는 동행에 대해 대부분 ‘가치’를 먼저 생각하는데, 나는 오히려 ‘동행’을 먼저 떠올렸다. 부딪히며 맞추다 보면 가치 있는 동행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조은환



안강은 — 이네 아트매니지먼트 대표

“올해는 유연하고 노련해진 페어를 만날 수 있었다. 어느덧 5회째 참여하다 보니 참가자들이 페어의 의도를 정확히 인지하고, 자신의 방향성을 탄력적으로 설정한다는 것이 느껴졌다. 회를 거듭할수록 소재를 능숙하게 다루고 기법을 올바르게 구현하는 소상공인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한 플랫폼이라는 점이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올해는 멘토링 워크도 흥미로웠다. 특히 양산 시 가격 설정에 관한 질문이 꽤 있었는데, 페어가 끝난 후 적극적으로 양산에 도전하려는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상품이란 거창한 의미가 담겨 있기보다는 즐거움을 주고 건강한 발상을 가진 위료가 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 오래 두고 볼 때마다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 좋은 상품이 아닐까. 지속가능하고 동행할 수 있는 물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그런 물건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동행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정미 — 이은에스엘디 대표

“DDP디자인론칭페어와 함께한 지도 어느덧 5년이 되었다. 매해 책임감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 무엇보다 참가자들이 큐레이팅에 영향을 받고 변화하는 것을 체감하며 그 책임감이 더 커졌다. 책임감과 더불어 가장 드라마틱한 기분을 많이 느낀 때는 대면으로 진행한 멘토링이었다. 일대일 대면 멘토링의 열기는 무척 뜨거웠다. 참가자들이 노트에 질문을 잔뜩 적어왔고, 나는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멘토링을 하며 참가자들에게 아쉬운 점도 있었다. 대부분 목업(mock-up, 실물모형) 제작 과정을 지나쳤다는 점이다. 손으로 직접 만들어 다양한 각도로 살펴봐야 부족한 점과 보완할 점을 파악할 수 있지 컴퓨터프로그램만으로 구현한 제품은 제대로 가능할 수 없다. 아무리 많은 것이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다 해도 목업 제작은 꼭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은 시간과 실수를 줄여주는 만큼 적극 활용해야 하지만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오리지널리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디자이너는 또한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한다. 자신이 만든 상품이 타인의 삶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동행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 디자이너를 꿈꾸는 많은 후배들이 실패와 좌절을 겪더라도 성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기를 바란다. 극복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에게 충실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훈 — 계원예술대학교 리빙디자인과 교수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이 팀을 이뤄 서로 모르는 부분을 소통하며 배우고 주최 측의 홍보와 마케팅, 유통 등의 역할을 통해 양산에 이르는 과정을 습득할 수 있는 ‘DDP디자인론칭페어’는 훌륭한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전반적인 과정을 경험하고 자신의 상품을 만들어 저작권을 가지는 것 역시 무척 중요하다. 자신이 만든 상품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을 때 오래도록 지속가능한 상품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물론 한번에 모든 것을 성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실패를 겪더라도, 작은 것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면 분명 큰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

올해는 ‘베스트 활동팀’을 선정했다. 단순히 전시로 끝나지 않고 양산과 판매로 이어진 팀에 수여한 이 상은 선순환을 일으켜 더 많은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을 독려할 것이 분명하다. 디자이너는 단거리 스프린터가 아니라 마라톤 선수처럼 임해야 한다. 기본을 거스르지 않는 기능과 공간에도 잘 어우러지는 상품을 소비자의 높아진 안목에 맞추기 위해서는 끈기가 필요하다. 디자인 실력과 마케팅 능력 물론 중요하지만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은 이 시대에는 끈기 역시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DDP디자인론칭페어> 론칭 큐레이터

김종완 — 종킴디자인스튜디오 대표



“다양한 프로젝트로 재단과 협업을 진행하며 ‘DDP디자인론칭페어’가 대견하다는 생각이 든다. 매년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디자이너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점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 조금씩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리라 생각한다. 디자이너와 순수 미술을 하는 아티스트와 다르다. 디자이너는 결국 자본과 연계된 일이기 때문에 융통성과 흡수성이 필요하다. 디자이너이자 마케터가 되어 방향성을 꿰뚫어 보고 혼자 역행하거나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서울뿐 아니라 지방 대도시 카페에 가도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의 디자인 역량에 놀랄 때가 있다. 이런 시대일수록 디자이너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이번 주제는 ‘가치 있는 동행’이다. 공간의 힘을 믿는 디자이너로서 힐링을 선사하고 긍정의 힘을 담은 공간을 창출해 가치 있는 동행을 이어가고 싶다.”

박근하 — 루밍 대표

“론칭 큐레이터로 2년째 <DDP디자인론칭페어>에 동참하고 있다. 회를 거듭할수록 시제품 단계부터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이 확연히 보인다. ‘DDP디자인론칭페어’가 앞으로 보다 ‘발굴’ 형태로 나아갔으면 한다. 공모를 통한 지원에서 나아가 발굴을 통한 전폭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숨어 있는 보석 같은 상품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론칭 큐레이터로 참여하며 직접 판매에 나서고 싶은 조명 브랜드도 만났다. 기능은 물론 디자인까지 완벽히 갖춘 이 브랜드의 제품은 세계적 브랜드의 테이블 조명과 견주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나에게 ‘가치 있는 동행’이란 가치 있는 상품을 고르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 상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치를 부여하면 더 오래, 더 소중히 곁에 두고 보듬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과 인지도를 떠나 왜 사야 하는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상품과 그 가치에 대한 공감이자 동행으로 이어진다.”



송봉규 — BKID 디자인 디렉터

“지난해에는 관람객으로서 축제를 즐겼는데, 올해는 론칭 큐레이터로서 동행을 시작했다. 아시아 국가 중 디자인을 위해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원하는 곳은 한국뿐이다. 이제부터는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물론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많은 스튜디오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다. K-컬처에 대한 다각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K-디자인에도 관심이 많아졌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스타 디자이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DDP디자인론칭페어’가 다양성을 바탕으로 두고 기획의 문을 더 넓고 크게 확장하기를 바란다. 이와 더불어 DDP를 이들의 지속가능한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디자이너가 자신을 홍보할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지속가능한 홍보 플랫폼은 한국의 디자인 역량을 끌어올리는 훌륭한 장이 될 것이다.”



오세은 — 롯데백화점 라이프스타일 부문 퍼니처 & 홈데코 팀장

“리테일 공간에서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판매할지 고민하다 이렇게 상품을 만드는 디자이너와 소상공인,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다양한 브랜드를 만날 기회가 생겨 굉장히 설렜다. ‘가치 있는 동행’이란 주제에 어울리는 상품과 브랜드를 심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디자인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기발한 아이디어와 유연한 기술을 상품화해 페어에서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구매로 이어지며 소비자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트렌드’이기 때문에, 혹은 남들이 베스트로 꼽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은 결코 아니다. 좋은 상품은 오리지널리티가 담긴 상품이다. 이런 상품이어서 사용자 곁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디자이너가 자신만의 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달우 — 마음스튜디오 대표

“지난해에 이어 다시 ‘DDP디자인론칭페어’의 심사를 맡게 됐다. 완전한 엔데믹을 맞이한 터라 지난해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페어를 진행했다. 올해처럼 집중적으로 브랜딩을 할 수 있었던 건 팬데믹의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긍정을 찾는,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디자이너와 소상공인 모두 집중해서 삶을 되돌아보며 그 안에서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삭제하고 실용적이되 보고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노력이 상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

페어 심사를 진행하며 ‘가치 있는 동행’이라는 주제에 맞춰 일방의 가치가 아닌 양방의 가치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브랜드와 상품에 초점을 맞췄다. 페어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삶과 공유할 수 있는,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가기를 바란다. 삶과 멀어지면 쉽게 잊히고 소멸하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오래 곁에 두고 매일 봐도 질리지 않은 그 ‘무엇’을 만들기 위해 즐겁게 기꺼이 고민하고 있다.”



Seoul Design 2023 Curator

Seoul Design 2023
General Space Curator

Yihwa Yoo
CEO of ITM Engineers & Architects

**“A festival created by designers,
companies, and citizens together”**

I believe that a significant event like ‘Seoul Design 2023’ should convey a message that captures the spirit of the times. Now, more than ever, it’s crucial for us to focus on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concerns. This festival holds profound meaning as it brings together citizens, designers, and companies under the theme of ‘ESG.’ I am convinced that each of us, in our respective roles, should contribute meaningfully to this collective endeavor. As an architect, I consistently contemplate the philosophy and values I must uphold in this era to fulfill my calling and design with a global environmental perspective.

Seoul Design 2023
Networking Curator

Mikyung Jeon
CEO of SPEEKER

**“A space where diverse companies and
designers showcase their design realms with
the overarching theme of ‘sustainability.’”**

What does ‘Valuable Life’ mean to you?

As we speak, the climate crisis is causing many problems around the world. It’s time to stop talking about sustainability and start acting. What we consider valuable is some ‘being’ or something we want to be with for a long time. This sense should extend to design as well. I envision Seoul Design 2023 as a platform where companies and designers can present products meant for long-term use, to be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Seoul Design 2023
Theme Pavilion Curator

Kuho Jung
CEO of Peculiar Intuition

**“A design platform where companies,
designers, and small businesses
come together”**

Design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done alone. Companies, designers, small businesses, and creators developing products converge to create various collaborations, and through these partnerships, a product comes to fruition. This embodies the essence of ‘Valuable Life.’ Meaningful creations arise from recognizing each other’s value and engaging in a purposeful encounter. Whether it’s a meeting between a company and a designer or between a company or designer and a consumer, I believe a meaningful encounter is a deliberate choice. A worthwhile meeting begins with spontaneous decisions and a selection of objects.

Collaboration Curator

Taeho Shin, Eunhwan Cho
Co-CEOs of Maezm

“This year’s launch fair was pleasantly surprising as many products displayed a high level of completion with added details. Several items were so well-finished that they seemed ready for immediate sale, creating a delightful sense of competition.” (Taeho Shin)

“Although most people associate ‘value’ first with valuable life (or companionship), I prioritize ‘companionship.’ I believe that meaningful partnerships can be achieved through chance encounters.” (Eunhwan Cho)

Kangeun Ahn
CEO of INE Art Management

“I believe a good product embodies a comforting design that brings joy and incorporates a healthy concept rather than just having a grand meaning. Contemplating what sustainable and companionable products entail and how to create them marks the initial step toward forming a worthwhile companionship.”

Mi Jung
CEO of EONSLD

“Designers should also embrace their social responsibility, contemplating the impact and ripple effect their products can have on other people’s lives. Only through such consideration can the value of the partnership be elevated.”

Jihoon Ha
Professor, Department of Living Design, Kaywon
University of the Arts

“Designers should embody the persistence of marathon runners rather than sprinters. It is through this endurance that we can consistently create functional products that seamlessly integrate into spaces without compromising the fundamentals.”

Launch Curator

Jongwan Kim
CEO of Jongkim Design Studio

“The theme of ‘Seoul Design 2023’ is ‘Valuable Life.’ Recently, I engaged in a project for young people who must leave shelters when their state protection ends at 18. As a designer who believes in the transformative power of space, my aim is to craft an environment that offers healing and encapsulates the power of positivity, fostering a continued sense of valuable companionship.”

Keungha Park
CEO of Rooming

“I interpret ‘Valuable Life’ as extending beyond the selection of valuable products to imbuing them with meaning. Giving meaning to why you should buy a product, regardless of price and recognition, leads to empathy and companionship with the product.”

Bongyu Song
Design Director of BKID

“With the growing and diverse interest in K-culture, there’s a natural curiosity about K-design. I anticipate that the ‘DDP Design Launching Fair’ will continually broaden the doors of opportunity,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diversity.”

Seun Oh
Furniture & Home Decor Team Leader, Lifestyle
Division, Lotte Department Store

“A quality product is one with originality, those that linger with you over time. Therefore, it is crucial for designers to strive for the creation of their distinct colors.”

Dalwoo Lee
CEO of Maum Studio

“We encourage participants to craft something seamlessly integrated into their lives, something shareable and enduring. I, too, happily, and willingly dedicate myself to the creation of that ‘something’ which endures and remains visually appealing every day.”

디자인 전시

**DESIGN
EXHIBITION**

디자인 전시

032 주제 전시

040 기업+영디자이너 브랜드 전시

074 2023 DDP디자인론칭페어

120 기업 전시 & 팝업

150 반 시계루 재난주택 모듈전시

156 제로웨이스트 파빌리온

162 해외 트렌드 전시

주제 전시

현명한 동거

<서울디자인 2023>의 주제 전시 제목은 '현명한 동거'다. 사람과 사람의 동거가 아닌 사람과 물건의 동거에서도 그 대상을 신중히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신중히 선택한 물건들은 오랫동안 함께 할 만큼 가치 있고, 또한 세대를 이어 넘겨줄 수 있을 만한 가치 있는 물건이다. 하나의 물건을 선택할 때, 아무리 작은 물건일지라도 물건과 함께할 먼 미래를 생각하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 그 선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전한다. 전시를 위한 설치물을 비롯한 여러 장식도 전시를 마친 후 쓰레기로 돌아가는 것이 전혀 없는 제로 웨이스트를 실현하며 새로 사지 않고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물려주는 것의 가치와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삶을 이야기한다.

행사명 주제 전시 '현명한 동거'

기간 2023년 10월 24일 - 11월 2일

행사 장소 아트홀 2관

행사 내용 <서울디자인 2023>의 주제인 '가치 있는 동행'의 의미를 '현명하게, 소중하게, 오래도록'으로 해석했다. 이에 디자인, 아트, 패션 등 각 분야의 유명 인사 24명을 초청해 물려받았거나 물려주고 싶은,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소장품을 물건에 담긴 이야기와 함께 전시한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물건을 사고 버린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건과 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긴 세월을 지켜온 물건과 나 사이에는 이야기와 역사가 담긴다.”

“‘현명한 동거’에는 24인과 동거하는 소중한 물건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모두 신중히 선택한 물건들이며, 그 안에는 마음과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리고 전시에는 1000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페르시아
카펫과 실용성은 물론 디자인도 우수한 덴마크 빈티지 가구가 함께한다.
현명한 동거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 물건에는 높은 가치가 부여되며,
이는 가치 있는 동행으로 이어진다.” 정구호, 주제 전시 큐레이터



생명을 구한 방화복을 재활용한 가방

“폐방화복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가방으로 출장 때마다 이용하는 ‘애착 가방’이다. 쓰임을 다한 소방 장비를 재활용해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판매 수익금 중 일부가 소방관의 권리 보장을 위해 사용되어 ‘가치 있는’ 소비로 이어진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최병훈 작가 작품집

“최병훈 작가의 끊임없는 작품 활동은 작가란 자신의 영역을 끊임없이 개척해 나가는 지속적인 ‘수행’임을 증명하는 과정으로 느끼게 한다. 여전히 나에게 작가의 길을 속삭이는 귀중한 자료다.” 곽철안, 조형작가, 교수

니콘 F4, 핫셀블라드 503XCI

“아버지가 오랜 기간 사용한 필름 카메라들이다. 아버지는 늘 모든 사진작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시대를 기록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셨다.” 김네오, 포토그래퍼

이나영 도자, 화분

“팬데믹 기간에 친구가 작은 정원을 자유 분방한 도자기로 전시했다. 그때 만난 화분으로 이상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림 같으면서도 표정이 느껴졌다. 난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좋다.” 김민주, 패션 디자이너



요스트 암만 책 <Jost Amman's Kartenspielbuch>

“1588년에 발간한 요스트 암만의 삽화가 들어간 책으로 런던의 오래된 책방에서 구매했다. 중세 유럽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로 중세 목판화 이미지를 차용한 나의 연작 ‘STUDIO FABRICA’의 출발점이 되어주었다.” 재진, 아티스트

몰스킨 다이어리

“몰스킨의 미색 크래프트처럼 느껴지는 종이에 마음껏 기록하고 낙서하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나의 기록과 경험은 가치가 되며, 창작하는 사람의 원동력은 모두 경험에서 온다는 점에서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닮아 있다.” 김중환, 공간 디자이너

스트라이다 자전거

“대학원생 때 통학을 위해 구매했다. 졸업 후에도 레지던스와 작업실을 오갈 때 함께했다. 이 자전거 디자인은 영국의 한 디자인학과 졸업 작품이기도 하다. 오래 함께한 디자인이며,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다.” 김중재, 아티스트

HOY 모자

“난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고, 사랑을 많이 표현하는 사람이어서 이 하트 모양 모자를 처음 봤을 때 끌리지 않을 수 없었다. 스페인어로 ‘오늘’을 의미하며, ‘오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뜻을 담은 내 별명인 ‘호이(HOY)’를 새겼다.” 김호영, 뮤지컬 배우

한스 웨그너 HANS J. WEGNER 피륙 의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아버지가 피륙 체어 한 조를 가져오셨다. 여동생과 내가 하나씩 물려받았고, 이 의자를 통해 변치 않는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일상의 물건에 대한 가치와 개념에 대해 깨달았다.” 김효진, 덴마크 대표

마미체

“말총으로 만든 체인 마미체는 오래 사용하기 위해 열두 번의 옷칠 과정을 거쳐 만들었다. 15년 정도 사용했고, 앞으로 대를 이어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노영희, 요리사

가방

“연극 <햄릿> 공연 때 배우 김호영이 들고 온 가방에 반해 손숙, 김성녀, 윤석화, 나 이렇게 넷이 이름을 새겨 넣어 맞췄다. 폐기된 군복, 텐트, 청바지 등을 소재로 만든 멋진 아이디어도 좋았다. 세상은 참 살 만한 무대라는 걸 이 가방 하나로 되새기고 즐길 수 있다.” **박정자, 배우**

카메라

“2006년 구입해 사용하던 카메라로 조카에게 물려주려던 물건이다. 레트로 감성이 지금도 유효해 이제는 지금의 20대에게 사랑받고 있다.” **박해라, H.R 디자이너**

핀울 FINN JUHL 파이어 플레이스 체어

“가구는 그 공간에 머무는 사람과 시간에 대한 배려다. 많은 의자를 수집해 오며 가장 오래 소장하고 사랑하는 의자는 핀울의 파이어 플레이스 의자로,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다.” **노희영, 브랜딩 컨설턴트**

셔츠와 재킷

“25년 전쯤 구입한 생애 첫 명품 재킷. 섬세한 테일러링에 반해 용돈을 털어 구매했고, 그 뒤로 특별한 날마다 자주 입었다. 옷이 전부였던 스무 살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승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옷싸개

“옷이 귀하던 시절 외할머니는 외출 후 옷을 잘 털어낸 후 옷싸개를 씌워 벽에 걸어두었다. 한 벌의 옷을 소중히 아껴 입던 마음이 묻어난다.” **서영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터 패터 Pitter Pater 테이블

“다양한 시대상을 드러내는 패션에서 영감을 받아 가구를 디자인하는 피터 패터. 내가 선택한 1970~1980년대 미국 노동자 스타일을 재현한 사이드 테이블은 내가 즐겨 입는 옷과도 닮았고, 내 공간의 캐릭터를 드러내준다.” **임재린, 세이투세 대표**



백동 함

“언제부턴가 물건을 신중히 사게 되면서 한국 전통 공예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하게 되었다. 그중 백동 담배 함에는 도장을 보관하는데,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풍요롭다고 느끼게 한다.” **장구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산호 노리개, 뒤꽂이 산호 비너

“오랫동안 한복에 착용해 온 산호 노리개. 노미자 매듭장의 미감과 엄익평 옥장의 세공 디테일은 여전히 감탄을 자아낸다. 어느 한복과도 잘 어울리며, 세대를 이어 물려주고 싶다.” **김영진, 패션 디자이너**

시모 헤이킬라 SIMO HEIKKILÄ

“자작나무로 제작한 암체어로 합리적인 핀란드 모더니즘을 잘 드러낸다. 1988년 핀란드 헬싱키 디자인대학 연구교수로 체류하던 중 구입해 지금은 ‘아뜰리에 초이’에서 사용하고 있다.” **최병훈, 아트 퍼니처 작가**

세르주 무이 SERGE MOUILLE 시그널 플로어 조명

“출장길에 들른 아제딘 알라이아 Azedine Alaïa 호텔에서 보고 반한 조명.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지녔다.” **차윤정, 디렉터**

이혜선 바다 쓰레기 랜턴 이혜선 작품

“소장하는 물건은 추억이 떠오르게 한다는 생각으로 내 취향이 담긴 수집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구매한 이혜선 작가의 조명. 서랍장에 놓여 있는데, 곧 귀여운 수유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유남권, 아티스트**

백자 향아리

“아버지를 따라 고미술상을 갔다 온 좋게 사게 된 백자 향아리. 연필이나 붓, 스케일 자 등을 넣어 필통으로 쓰고 있는 이 백자는, 백자를 닮은 건축을 하고자 했던 스승이자 아버지 이타미 준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되새기게 한다.” **유이화, 건축가**

가족 장갑

“아제딘 알라이아를 처음 만났을 때 선물받은 가족 장갑으로 무대에서도 착용하기 좋아 자주 사용해 이제는 내 손에 길들여졌다. 오래 사용한 물건인만큼 내가 지나는 시간을 담고 있어 소중하다.” **이재린(씨엘), 가수**

펜

“내 책상 위에는 ‘올해의 패션 저널리스트 상’과 함께 선물로 받은 몽블랑 만년필과 이름이 새겨진 몇 개의 펜이 늘 함께한다. 앞으로 온갖 세상의 뉴스와 정보를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다.” **윤경혜, 눈이부시게 대표**



Wise Cohabition

We buy and throw away too many things in our lives. I am not talking about the slogan “let’s save, share, ex-change, and reuse.”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relationship you have with the things you buy. It can last a long time if you choose them carefully when you first buy them. The objects that have been hand-stained and have stood the test of time contain a story and a history of your own. 24 Professionals in their respective fields have gathered together their carefully selected and enduring favorites. A persian carpet, which has been recognized for its value even after a thousand years, will be displayed alongside danish vintage furniture, which is still widely used for its excellent design and functionality. We hope that this exhibition will inspire a wiser way of cohabitation with objects that have been purchased for their value.

Creative Director Kuho Jung

Se-Hoon Oh, Mayor of Seoul

A bag made from upcycled firefighters’ discarded fire suits, it is an attachment bag that the mayor of seoul, Oh Se-Hoon carries with him on his business trips.

Chulan Kwak, Artis, Professor

Choi Byung-Hoon’s constant work proves that being a writer is less of a “Profession” as defined even though it has been 20 years since I graduated from college, it is still an invaluable resource that whispers the path of a writer to me now.

Neo Kim, Photographer

These are film cameras that my father used for a long time. My father always said that the most important duty of every photographer, no matter what profession, is to record the times

Minju Kim, Fashion Designer

They were just pots, but strangely, they were picturesque and expressive when I looked at them. I like things that I can imagine.

An Illustrated Book By Jost Amman(1539-1591), Published in 1588.

I purchased in an old bookshop in London, England. Jost Amman, who gained fame for his woodcuts, depicted the middle ages. A fascinating resource for learning about the lives of medieval europeans, including costumes, occupations, and craft-smen.

Jong Kim, Spatial Designer

When you open the first page of Moleskine, it begins with a statement asking people to return it to the address or contact information for how much you will pay in case you lose it. Records and experiences are valuable assets to me.

Chungjae Kim, Artist

Bought it when i was a graduate student to commute to school. As I know, the design of this bike is from a design graduation work in the UK. The design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and i hope it will continue to do it.

Hoyoung Kim, Musical Actor

I grew up with a lot of love. So when I first saw this hat in heart shape, I couldn’t resist. And since “Today” is the most precious and wonderful day to me, I asked for it to be engraved with hoy, which means today in spanish and is also my nickname.

Hyojin Kim, Dansk CEO

During my childhood in Saudi Arabia, my father brought home a pair of Peacock Chairs. Since then, my parents have passed down a pair of peacock Chairs to me and my sister, each with our own childhood memories.

Younghee Roh, Chef

Sieves have many uses. They can be used to filter liquids like Makgeolli, as a fine sieve to catch powders, or as a coarse sieve. It’s been about 15 years, but i think it can be used for years to come, and maybe even pass it down.

Heeyoung Noh, Branding Consultant

My oldest and most beloved chair is The Firerlace Chair B059 by Finn Juhl. The original design was made in 1946 for the company Bovirke and it is a beautiful chair that looks timeless today.

Seunggun Park, Creative Director

This is the first luxury jacket I ever bought in my life about 25 years ago. Even though it doesn’t fit even one arm now, it is one of my most treasured pussions with precious memories of my twenties when fashion was all I had.

Jungja Park, Actress

It was such a great idea to reuse discarded military uniforms or tents and even jeans. I swear it’s better than Hermes. When I went to London, I proudly carried it around with me. The world is a stage worth living on you can enjoy it with just this prop.

Hera Park, Jewelry Designer

I liked the design so much that I have been storing it after purchasing it in 2006, and my nephew, who is interested in photography, has a retro sensibility like people in their 20s these days, so I was willing to hand it over.

Younghee Suh, Creative Director

My maternal grandmother, who was neat, would dust off her clothes with a cloth brush after going out, wrap them in a cloth, and hang them on the wall. Every time I look at the clothes wrap, she used, I feel like hiding many clothes in my closet.

Jaeryn Lim, CEO of Say Touch`E

I wanted a piece of furniture to reflect my tastes, even if it was just a small one, so I discovered New York-based artist Pitter Patter. He uses fashion from different eras as inspiration for his furniture, and I chose a side table that recreates the American worker style of the 70s and 80s.

Yunjeong Cha, Director

I remember being interested in Serge Mouille when I was young and falling in love with the lighting at the hotel Azzedine Alaïa during a business trip.

Namgwon Lyu, Artist

I bought this lighting by artist Lee Hye-Sun when decided to collect the objects to my taste, thinking that collecting things would remind me of memories. It feels good just to put it on the table and look at it but it will soon be used as a cute nursing lamp.

Ehwa Yoo, Architect

It is a White Porcelain Jar that I was lucky enough to buy after following my father, who was an antique collector and architect. The White Porcelain Jar is not only beautiful, but also reminds me of the priceless memories of my father.

Chaelin Lee(CL), Artist

When I first met designer Azzedine Alaïa, she gave me a gift. The gloves were made of thin leather and were perfect for wearing on stage, so I used them so often that they became tame to my hands and i still use them today.

Kate Kyunghae Yoon, Editor / CEO

Writing tools are very special and precious to me, who have been writing and reporting on trends and news for over 30 years. They will always be by my side to record and remember all the news and information of the world.

Kuho Jung, Creative Director

This is almost the first one I bought, a Nickel Cigarette Box. I keep my stamps in it. It’s an object that makes me feel rich just by having it.

Youngjin Kim, Fashion Designer

Norigae play an important role as accessories in Hanbok, but it can be very difficult to find one that fits well. I’ve been wearing this coral Norigae with my Hanbok for a long time.

Byunghoon Choi, Art Furniture Artist

It is made of birch wood as an armchair by Finland’s leading designer Simo Heikkilä at the moment. Purchased during his stay as a research professor at the university of Helsink, Finland (now, Aalto Univers-Ity) in 1988 and currently in use at Atelier Choi.

기업+영디자이너 브랜드 전시

9개 디자인 대학 52명의 영 디자이너 13명의 디자인 멘토 13개 기업

국내외 기업과 디자인 대학교의 영 디자이너가 만난다. 이를 통해 MZ세대인 영 디자이너의 시각으로 기업이 추구하는 ESG의 방향에 맞는 제품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기업 홍보관에서 선보였다. 9개 대학 13개 팀과 기업이 상호 매칭되어 5월부터 바쁘게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물은 10월에 공개했다.

행사명	기업+영디자이너 브랜드 전시
기간	2023년 6월 16일 - 11월 2일
행사 장소	뮤지엄 돌레길
웹페이지	seoul-design.or.kr
인스타그램	@seouldesign2023



6월 16일
참가자 발표

6월 29일
오리엔테이션

8월 22일
중간 공유회

9월 16일
우수 팀 선정 심사

다른 여지 없이 동행하는 것
아무래도 Amoredo

기업 - 아모레퍼시픽

“20대 학생들의 생생한 보이스와 새로운 시각에서 신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 덕분에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아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든 머리 감는 행위가 특별해지는 도구
브러시

아모레퍼시픽을 축약한 ‘아모레’와 능동적 행위를 표현하는 동사 ‘do’를 합쳐 만든 팀명 ‘아무래도 Amoredo’. 한글로는 ‘다른 여지 없이 결국’이라는 뜻을 지닌 ‘아무래도’로 표기해 아모레퍼시픽과 서울시립대학교가 만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다른 여지 없이 가치 있는 동행으로 나아갈 것을 드러낸다.

이제 모든 활동에서 환경에 대한 고민은 필수이며,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인 만큼 더욱 포괄적인 ESG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보다 유기적인 관점에서 ESG를 바라보고자 했다. 이에 주목한 것이 ‘씻는 행위’다. 사회 구성원은 누구나 씻어야 하고, 이 기초적인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과도 관련 있지만, 때론 이 때문에 문제를 겪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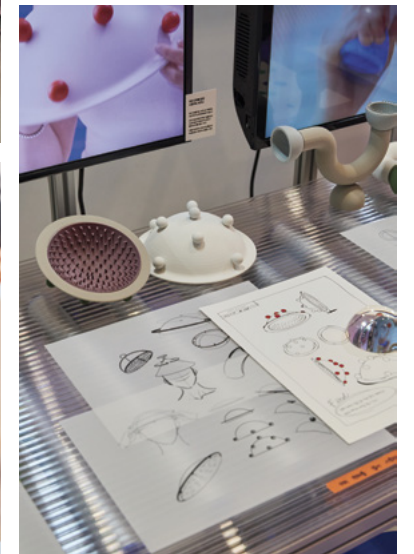
씻는 행위 중 ‘머리를 감는 행위’는 다양하고 세밀한 움직임이 요구되어 각기 다른 상황에서 사용되는 ‘머리 감는 도구’를 프로젝트의 주제로 삼았다. 그렇게 남녀노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머리를 감을 수 있는 브러시를 디자인했다. 소재 역시 코코넛을 재활용한 친환경 소재를 활용했다. 일반 플라스틱 대비 동일하거나 우수한 물성을 띠며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비교해 제작 공정이 간단하고 가격까지 저렴한 것이 강점이다. 전시 공간도 전시 대주제인 ‘ESG’에 맞춰 일회성 전시 폐기물을 최소화한 데다 휠체어를 탄 관람객도 출입과 체험에 불편이 없도록 구성했다.



기업	아모레퍼시픽
대학	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김다연, 김세린, 이영원, 이지함
멘토	후스 디자인 대표 이광후

멘토 - 이광후 디자이너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보여준 단합된 집중력과 브랜드 방향성에 맞게 감성을 감각화하는 모든 디자인 작업이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져 뿌듯합니다.”



멘티 - 김다연, 김세린, 이영원, 이지함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제품을 보여주고 의미를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한다
그린드림팀 Green Dream Team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업사이클링 굿즈
그린드림카

BMW 코리아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치고자 설립한 비영리재단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와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지속가능한(Green) 꿈(Dream)'을 비전으로 '그린드림팀'을 결성했다. 그린드림팀은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인지도 향상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굿즈 개발에 나서는 한편, ESG의 가치와 BMW 코리아의 핵심 자산인 자동차를 활용해 환경과 사회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자동차 폐기물 업사이클링 굿즈도 개발한다. '그린드림카'는 지속가능한 꿈의 자동차를 의미하며, 친환경 소재와 방식으로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자동차 폐기물 업사이클링 굿즈 개발을 목표로 한다. 개발한 굿즈는 페플라스틱을 활용한 차량용 모빌, 그리고 폐가죽을 활용한 차량용 키 링과 카드 지갑이다.

업사이클링 제작 과정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이들이 친환경 인식을 제고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하는 체험 활동 기반의 DIY 방식이라는 점이다. 또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모듈 그래픽 제작을 통해 BMW 코리아 미래재단의 친환경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이다.



기업 - BMW 코리아 미래재단

"프로젝트 기간동안 열정 가득한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영 디자이너, 아낌없는 조언으로 좋은 멘토 역할을 담당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BMW 코리아 미래재단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기업	BMW 코리아 미래재단
대학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김나영, 김민채, 민채영, 이재원
멘토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정지연 교수



멘티 - 김나영, 김민채, 민채영, 이재원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 팀원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대학 생활에 다시 없을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히 프로젝트를 넘어서 모두가 한걸음씩 성장해 나갈 수 있어 너무나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멘토 - 정지연 교수

"대한민국 대표 디자인 축제 <서울디자인 2023>에 BMW 코리아 미래재단과 함께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프로젝트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준 4명의 멘티에게 감사와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 영 디자이너로서 더욱 멋지게 성장할 모습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ESG 팝업 마켓으로 전하는 지속가능성

홍심Hongshim

친환경 패키지와
리필 스테이션이 있는
농심 ESG 팝업 마켓
농심가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브랜드패키지디자인 전공 학생들과 건강한 식탁으로 지구촌을 행복하게 하는 기업 농심은 리필 스테이션을 통해 친환경 ESG를 실천하고자 한다.

농심의 ESG 마켓 '농심가'에서는 농심의 스낵군을 바탕으로 미래의 친환경 패키지와 리필 스테이션, 다양한 리사이클링을 경험할 수 있다. 이에 '홍심' 팀은 과거 농심의 슈퍼마켓 체인이었던 '농심가'라는 이름으로 빈티지 콘셉트의 ESG 친환경 마켓을 기획했다. 농심 ESG 팝업 마켓에서는 농심의 슬로건 'Lovely Life Lovely Food'에 부합하는 식품을 다채롭게 선보이며 소비자들에게 친숙함을 바탕으로 농심과의 연관성을 인식시키고 농심가 스토어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환경과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실천임을 알리고자 했다.

이를 위해 농심의 다양한 스낵 중 8종을 선별해 아이콘 개발 하고 스낵 제품의 플라스틱 비닐 소재 패키지를 한술제지의 '프로테고'라는 종이 포장재로 대체하는 것을 기획했다. 한편, 팝업 마켓에서는 스낵 디스펜서를 활용한 리필 스테이션과 다양한 리사이클링 굿즈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기업	농심
대학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패키지디자인전공 이경민, 박주연, 박상희, 박현정, 방효경
멘토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신상윤 교수

기업 - 농심

“농심의 다양한 상품을 접목해 ESG가 잘 구현된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친환경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기쁩니다.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멘토 - 신상윤 교수

“어려운 주제였지만 학생들과 미래의 친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디자인 작업을 해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낸 학생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멘티 - 이경민, 박주연, 박상희, 박현정, 방효경

“ESG에 대해 고민하고 디자인을 기업 농심, 멘토 신상윤 교수님과 함께 진행할 수 있어 저희 스스로 대견스러웠습니다. 우리 팀 너무 고생 많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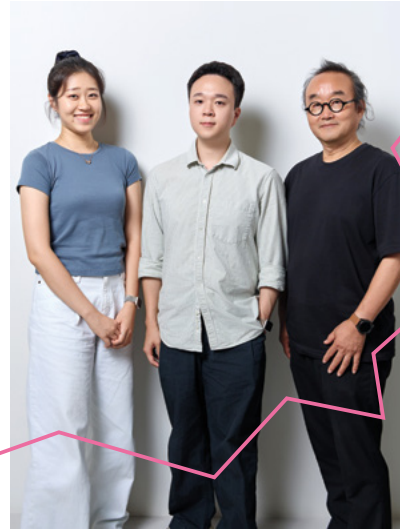


도시를 여행하며 찾아가는 가치 있는 동행

플라뇌르 Flâneur

기업 - 디오리진

“홍익대학교 학생들과 신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어 의미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멘토 - 이길옥 교수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할 기회를 주신 <서울디자인 2023>과 디오리진에 감사드립니다. 학생 멘티와 멘토, 그리고 기업과 <서울디자인 2023> 모두의 ‘가치 있는 동행’이었습니다.”



쓰레기를 담은 카메라 TIC TAC TOC

식음료, 주류, 코스메틱,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독창적이며 감각적인 디자인 솔루션을 제안하는 디오리진과 설득력 있는 디자인으로 시대를 선도할 유연한 변화를 제안하는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영 디자이너들이 만나 ‘관찰하는 산책자’라는 뜻의 팀 ‘플라뇌르’를 이뤘다.

프로젝트 주제는 ‘틱택톡 TIC TAC TOC’. 도시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찾아가는 도시 여행자의 여정을 돕고 이를 더욱 가치 있게 하는 카메라 시리즈다. 틱택톡은 도시 여행자들이 더욱 새로운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는 여행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카메라를 제안한다. 화각대와 촬영 방식이 각기 다른 카메라를 대어하는 방식으로 카메라 보디에는 도시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담아 독특한 업사이클링을 시도했다. 또 카메라를 반납하면 인화된 사진과 함께 업사이클링 스트랩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기업	디오리진
대학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박도현, 이수하, 안석현, 최지훈
멘토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이길옥 교수

멘티 - 박도현, 이수하, 안석현, 최지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다양한 문제를 마주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성취감을 느끼는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이 남지만 값진 성장의 기회가 된 가치 있는 동행이었습니다.”



인간이 아닌 자연을 중심으로 한 순환구조

VoL.1

기업 - 랩엠제로

“영 디자이너의 신선한 디자인과 멘토 교수님의 지도로 의미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재로 찾는 해답 데스크 라이프

‘Valuable of Life’의 약자인 ‘VoL’은 <서울디자인 2023>의 주제인 ‘가치 있는 동행’의 뜻을 그대로 담아냈다. 이를 통해 자연을 우리 삶에 가져다놓으려는 인간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LP판에 헤드셀을 올려놓았을 때 LP판이 돌아가듯 우리 일상을 자연에 옮겨놓아 자연의 순환구조 속에 함께 지속가능한 순환적 삶을 플레이하겠다는 의지를 팀 이름에 담았다.

‘우리 일상을 어떻게 하면 순환하는 자연 속에 옮겨놓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그 답을 ‘데스크 라이프’에서 찾았다. 친환경 소재의 생활용품과 데스크용품을 판매하는 기업 랩엠제로의 독창성과 영 디자이너들의 창의력을 더해 ESG를 실천하는 데스크 라이프를 고민했다.

이를 위해 선택한 소재는 나무. 나무 소재의 제품을 만들고 버려지는 잔가지와 톱밥을 모아 만든 소재 CXP다. 랩엠제로의 기술개발을 바탕으로 VoL.1 프로젝트에서 펠릿 형태의 CXP 소재를 바로 3D 프린팅 하는 새로운 방식을 고안했다. 이 방식으로 18개의 ‘데스크 라이프’를 위한 18개의 디자인을 완성했다. 그뿐 아니라 <서울디자인 2023> 전시 공간을 위한 가구 역시 동일한 소재로 제작했고, 전시가 끝난 후에도 재사용할 수 있어 지속가능성을 실현한다.



기업	랩엠제로
대학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최호연, 윤문주, 주민솔, 박민영
멘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이영은 교수

멘토 - 이영은 교수

“열심히 참여해 준 학생들에게 너무 고맙고, 서울디자인재단의 지원과 랩엠제로의 협력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멘티 - 최호연, 윤문주, 주민솔, 박민영

“빠르게 발전하는 3D 프린트 기술력을 디자인을 통해 대중 앞에 선보일 수 있어 영광이고, 시각·가구·공간·제품 등 다양한 디자인 분야를 다룬 만큼 큰 도전이자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데이터 수집의 주체가 된다는 것
데이터리움 Datarium

데이터와의 가치 있는 동행
HELM

‘데이터의 바다를 표류하는 개인, 그 방향을 결정할 주도권 키(Helm)를 잡다’. 넘치는 데이터에서 주관을 잃은 채 자극적이고 모호한 데이터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시대에 개인의 주관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자극적인 데이터 속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와 상처를 드러내주는 제품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고 자발적 절제를 유도하는 것. 과도한 자극 인지를 위한 시각적 제품으로는 일정 사용량을 초과했을 때 붉게 물들던 부분 사이에서 상처가 터지듯이 소리와 함께 풍선이 터져 나오거나, 과도한 사용을 인식하고 스마트폰을 제단에 반납하는 식의 상호작용으로 디지털과 거리 두기를 유도하는 방식을 제품 디자인에 반영하는 것이다. 데이터 주도권을 잡는 방법으로는 개인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만의 데이터로 자신의 가상과 현실을 정의하는 것. 일련의 디자인 아이디어들은 로얄앤코 제품 블로이의 세 가지 향에 맞춰 ‘fig.a’ ‘vetiv’ ‘tetto’ 섹션으로 구성되어 <서울디자인 2023> 전시에서 선보인다. 이로써 데이터 홍수 속 자신의 데이터 주도권을 지킬 수 있는 주체적 방법 세 가지를 통해 데이터와 가치 있는 동행을 하는 모습을 제안한다.



기업 - 로얄앤코

“로얄앤코가 제품이나 여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 전달해 온 메시지를 또 다른 시각으로 깊이 있고, 폭넓게 고민하며 감각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업	로얄앤코
대학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박제민, 유현아, 손건후, 이재승
멘토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 이강현 교수



멘토 - 이강현 교수

“학생들의 생각이 전시에 많이 반영되어 개성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같아 만족스러웠습니다.”



멘티 - 박제민, 유현아, 손건후, 이재승

“가치 있는 동행을 주제로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다양한 협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 뜻깊었습니다.”



지리적 한계를 벗어난 새로운 도전
블루웨이브 Blue Wave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
리퓨어펫

진단, 예방, 치료, 케어 분야를 아우르며 동시에 반려동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동물 식품과 의료기기를 수입해 유통하는 플랫폼 '리퓨어헬스케어'. 모든 생명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웠던 태초의 순수함을 추구한다. '블루웨이브' 팀은 반려동물의 맞춤형 케어를 돕는 리퓨어펫의 패키지 디자인 개발과 브랜드 라인업을 통한 브랜딩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반려견에게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것'을 주고 싶은 반려인들의 마음에 주목했다. 재활용은 물론 브랜드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패키지와 반려동물용품 중 트레이와 브러시 모델링을 마쳤다. 이 중 브러시는 버블용, 미세용, 마사지용 등으로 구성된 3종 브러시를 필요에 따라 바꿔 사용할 수 있다. 트레이는 반려동물을 연상시키는 프레임에 리퓨어펫 제품 보관이 용이하도록 디자인했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는 '리퓨어펫 스파룸'을 콘셉트로 기획했다. 샴푸, 귀 세정제, 브러시, 트레이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을 통해 프로젝트 결과물을 선보이며 더불어 참여형 이벤트 공간인 포토 존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전시 참여를 꾀했다.

기업	리퓨어헬스케어
대학	제주대학교 융합디자인학과 배민지, 문지원, 임민선, 박주연
멘토	홍지수 교수



기업 - 리퓨어헬스케어

"<기업+영디자이너 브랜드전>을 통해 제주대 학생들의 창의적인 접근 방식과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합되었습니다. 이로써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리퓨어헬스케어의 장점을 잘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멘토 - 홍지수 교수

"처음 경험해 보는 어려운 과정임에도 저의 채찍질을 견디며 열정을 다한 블루웨이브가 제 마음속 1등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리퓨어헬스케어에도 감사드립니다."

멘티 - 배민지, 문지원, 임민선, 박주연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체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을 새기는 방법
이십일Twenty-One

기업 - 송월타올

“송월이 어떻게 ESG를 실천하고 표현해 낼 것인가’에 대해 학생들과 수차례 미팅을 통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 끝에 도출한 결과물이 만족스러워 뿌듯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소비하는 소재와 그것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멘토 - 정기영 교수

“단기 프로젝트였지만 기업 ESG에 대한 고민과 해결, 프로세스를 풀어나가는 방법론에서 영 디자이너들이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한 송월타올과 서울디자인재단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잔사를 활용해 메시지를 전하는
업사이클링
Once Again Vegan

지구온난화로 인한 산불은 나무를 무섭게 불태우고, 2020년 기준 '지구생명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의 70%가 멸종했고, 2050년에는 빙하의 3분의 1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지구에 닥친 위기를 언제 어디에서나 목격할 수 있는 지금, 송월타올은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테르에 비해 탄소 배출이 3분의 1에 불과한 천연섬유를 활용한 제품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이에 '이십일' 팀은 2022년 제품 제작 후 남은 10종, 164톤에 달하는 잔사를 활용해 업사이클링 타월과 송월타올 ESG 홍보 영상을 기획했다.

이 영상을 통해 100% 코사마 면을 사용해 친환경을 실천하는 모습과 잔사를 이용한 업사이클링 공정을 소개해 국내 1위 타월 생산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디자인 2023> 전시 공간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을 디자인 실루엣과 라인 아트로 변환한 태피스트리와 식물 언덕, 잔사 콘을 활용한 벽면 등을 통해 환경 보호 메시지를 전한다.

기업	송월타올
대학	영산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이동현, 김소윤, 이효정, 김근우
멘토	영산대학교 시각영상디자인학과 정기영 교수

멘티 - 이동현, 김소윤, 이효정, 김근우

“평소 학교 안에서 배울 수 없던 다양한 점을 기업과 함께하며 배우고, 그로 인해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어 기뻐합니다.”



행복과 즐거움, 그리고 나
CKD × HYU

건강기능식품의 핵심 성분을 화장품에 적용한 종근당건강의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 CKD. 코로나19로 크게 위축되었던 화장품 시장이 정상화됨에 따라 2022년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시장 상황에서 소비 트렌드는 소비를 통해 자신의 신념을 표출하는 미닝 아웃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출발한 '소울벨' 팀은 CKD를 구매하는 이유에 목적성을 부여하며 가치 있는 브랜딩으로 방향성을 잡았다. '행복'을 위해 건강을 바르고, '즐거움'을 위해 건강을 바르며, '나'를 위해 건강을 바르는 것에 초점을 맞춰 이런 키워드와 공통점이 있는 여행과 음악을 매치해 디자인 개발을 진행했다.

패키지의 경우 100% 재활용 지류와 공기를 인쇄를 통해 친환경 패키지 디자인을 했으며, LP판을 모티프로 한 CKD만의 즐거운 여행 에디션을 기획했다. 더불어 '당당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구상해 이 시대를 열심히 살아가는 MZ세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전시 공간은 음악과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시티팝 무드로 구성하고 포토 존과 AR 태깅을 통해 참여형 전시로 꾸몄다.

기업	종근당건강
대학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양세림, 박범진, 정쟁, 최진
멘토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김응화 교수

모두의 영혼을 울리기 위해
소울벨Soul Bell

기업 - 종근당건강

“아이디어에 지나지 않던 부분이 참여형 전시를 위한 AR 태깅을 활용해 음악과 여행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서로의 견해를 공유하고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뜻깊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멘토 - 김응화 교수

“학생들에게 브랜드와의 협업 기회이고, 기업엔 창의력 넘치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무한한 발전의 기회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멘티 - 양세림, 박범진, 정쟁, 최진

“실무자들과 함께 일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모습이 저희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또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들과의 협업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신 교수님과 종근당건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로컬을 이해한다는 것
베리쿠키Vari_khykie

로컬 크리에이터로 향하는 길
로컬쿠키루키

로컬의 잠재 자원을 활용해 도시와 지역, 골목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 연구 및 교육 컨설팅 기업과 도시, 지역 브랜드 전문가를 멘토로 로컬 산학 협력 경험이 풍부한 멘티가 모여 '베리쿠키 Vari_khykie'라는 팀을 결성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대중이 '로컬'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것. 로컬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고 로컬을 변화시키는 데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솔루션을 도출했다. 대중이 로컬 크리에이터가 되는 길에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에게도 잠재 능력이 있음을 깨닫도록 친근하고 쉬운 언어로 대중에게 한국리노베링을 알리려는 솔루션은 한국리노베링과 함께라면 누구나 로컬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연결된다. 변화하는 로컬의 모습은 쿠키가 연상되는 캐릭터 이미지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표현했다.

<서울디자인 2023> 전시에서는 '지역을 만나는 길'을 콘셉트로 길의 끝에서 예비 로컬 크리에이터가 로컬쿠키루키가 되었다는 스토리를 풀어낸다.



기업 - 한국리노베링

“유형의 제품이 없는 기업이다 보니 시각화된 브랜드 디자인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회사의 가치관, 상품, 세계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신선하고 새로운 결과물이 도출되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기업	한국리노베링
대학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박성현, 오영지, 이수빈, 조승민
멘토	경희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박상희 교수

멘토 - 박상희 교수

“<서울디자인 2023>, 디자인 쿠키루키들과 함께한 경희로운 동행! 세계 도시 서울을 위한 영 디자이너들의 가치 있는 동행!”



멘티 - 박성현, 오영지, 이수빈, 조승민

“한국리노베링과의 브랜드 전시를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새롭고 창의적인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규모의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해 많은 것을 배운 한 해였습니다.”

ESG 경영 철학을 보여주는 패키지 디자인

한덱스 Handex



수화로 전하는 함께하는 삶
테이팩스 Tapex

1977년 설립된 테이트 부문의 선두 주자인 테이팩스 Tapex는 고품질, 고기능, 환경친화형 제품에 주력해 왔다. 2차전지와 전기, 전자 및 반도체 부품까지 다양하고 전문적인 제품을 생산해 온 테이팩스는 식품 포장용 랩을 시작으로 전문가용 주방용품인 유니랩 브랜드 상품 개발도 이어갔다. 팀 '한덱스 Handex'는 친환경 제품 생산과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전과정 평가를 주력 상품에 최초로 적용하고 여러 기부와 나눔 활동을 해온 기업의 ESG 경영을 강조하며 패키지 개발을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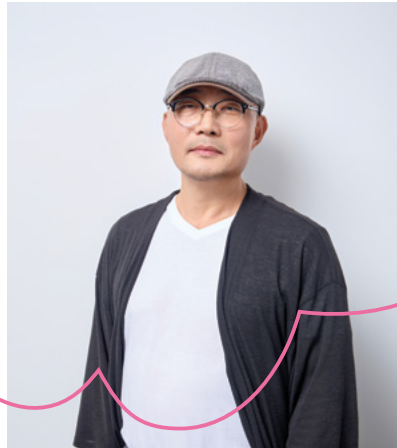
환경을 현명하게 생각하는 친환경 종이 패키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수화 모티프 캐릭터,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는 패키지 선물 세트 등을 디자인하며 테이팩스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가치 있는 동행에 참여하는 기업과 소비자 증가를 목표로 했다. 이 중 캐릭터는 비장애인도 수화를 재미있고 친근한 언어로 느낄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You & I'라는 의미를 지닌 '한덱스 프렌드 Handex Friend', 일명 한프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개발했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는 한프 스티커를 활용해 수화를 만들 수 있는 부스를 통해 동행의 가치를 더한다.

기업	테이팩스
대학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오재원, 고민지, 윤지수, 배소영
멘토	한양대학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이복영 교수

기업 - 테이팩스

"지속가능한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가치를 만드는 데 함께해주신 한양대학교 멘토, 멘티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산학 연계를 통해 MZ세대 트렌드를 반영한 브랜드와 제품을 창출하고, 영 디자이너와의 다양한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다채로운 기회와 경험의 장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멘토 - 이복영 교수

"인생은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춤추는 것을 배우는 것, <서울디자인 2023> 영 디자이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멘티 - 오재원, 고민지, 윤지수, 배소영

"'기업+영디자이너 브랜드전시'를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기업과 협업하며 실무를 체험할 경험을 얻을 수 있어 뜻깊었고,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구현하는 과정이 매우 즐겁고 유익했습니다."



제품 생애주기의 새로운 발견

빛나Shine

재사용 가능한 모듈형 LED 전구
mocoME

전구와 환경을 결합해 긍정적 변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는 팀 '빛나Shine'. 헬로우미스터리의 DIY 조명 브랜드인 '셀프미'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빛나가 주목한 것은 재사용 가능한 전구를 통해 사용자가 제품 생애주기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1인 가구를 위해 안전하고 단순한 교체 방식, 부품 교체를 통한 전구의 생애주기를 늘려 불필요한 폐전구 쓰레기 발생 방지, 자세히 알지 못했던 전구의 정보를 SNS 홍보를 통해 사용자들에게 친근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솔루션으로 정했다. 솔루션을 기반으로 디자인을 개발한 제품은 재사용 가능한 모듈형 LED 전구인 모코미mocoME의 지속가능성을 세상에 알리고 부품을 손쉽게 교체해 전구의 생애주기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전한다.

모코미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캐릭터 '코미'를 디자인했다. 모래사장에서 가치를 발견해 나가는 코미는 모코미가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전하는 스토리텔링을 담는다.

기업	헬로우미스터리
대학	목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강영림, 김수아, 박지은, 이수빈
멘토	목원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윤흥순 교수

기업 - 헬로우미스터리

“이번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학생 모두가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더 큰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디자이너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멘토 - 윤흥순 교수

“이번 워크숍은 영 디자이너인 학생들에게 기업의 브랜드 및 제품 개발에 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기업은 참신한 아이디어로 활력을 얻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멘토 - 강영림, 김수아, 박지은, 이수빈

“평소 접해보지 못한 실무 프로세스와 제품 개발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전구의 재활용 가치를 알게 되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버림을 디자인하는 것
Beyond the Floor

마루 제조 과정에서 가공 후 부산물은 연간 10톤 이상 발생한다. 이에 더해 최종 품질관리를 통과하지 못한 마루 제품은 연간 13.2톤 이상. KUJUNG.ST는 품질관리를 통과하지 못한 가공 부산물을 지속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 업사이클링 제품과 서비스로 창출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업사이클링을 통해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수명을 다하면 자연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버림'에까지 신경 써 디자인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군사체 블록이다. 마루를 활용해 군사체를 재배하고, 이를 이용해 군사체 블록을 만드는 것. 군사체 블록은 폐기 시 일반 목재보다 최종 분해되는 시간이 더 짧고, 땅속에 깊이 묻기보다 지표에 그대로 놓으면 더 빨리 부패된다. 마루와 군사체 블록을 활용해 마루 10장으로 만든 스톨 'My.10', 마루 8장으로 만든 벤치 'My.08', 마루 6장으로 만든 'My. 06', 군사체 블록으로 만든 북 파티션 겸 화분 'My.00' 디자인을 완성했다. 한편, 패키지의 경우 군사체 블록과 사탕수수 포장재로 박스를 대체하며 ESG를 실천했다. 완성된 디자인 가구들은 <서울디자인 2023>에서 소재 생성 과정을 보여주는 샘플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기업	구정마루
대학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최서영, 김가현, 김희진, Punn Lertjaturaphat
멘토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최민규 교수

쓸모를 다한 것에서 찾는 새로운 쓸모

KUJUNG.ST

기업 - 구정마루

“품질 관리를 통과하지 못한 마루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가구 제작을 통해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또 한 번의 발걸음을 딛게 되어 보람차게 생각합니다. 함께해준 카이스트 멘토 교수님과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멘토 - 최민규 교수

“코로나19 기간 끊어졌던 대학 간 교류와 경쟁의 장이 '기업+영디자이너 브랜드 전시'를 통해 다시 연결되고 학생들의 성장 기회로 삼을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열정과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결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멘티 - 최서영, 김가현, 김희진, Punn Lertjaturaphat

“아이디어 기획부터 전시까지 마루와 함께한 모든 과정은 저희에게 매우 가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전시 참여를 통해 실제 제품 디자인과 서비스 디자인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구정마루와 멘토 최민규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Corporate+Young Designer Brand Exhibiti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nies collaborate with young designers from design universities in this program. Within this initiative, young designers from the Millennials and Gen Z develop products and brands aligning with the ESG direction of the company. The culmination of their efforts is presented at the company's promotional center. Thirteen teams from nine universities and companies are paired and engage in project work from May, with the final results unveiled in October.

Event Name	Corporate+Young Designer Brand Exhibition
Period	June 16 – November 2, 2023
Venue	Museum Design Dulegil
Website	seoul-design.or.kr
Instagram	@seouldesign2023

Amoredo

Enhancing Every Hair Wash

The Brush

The team name 'Amoredo' is derived from 'Amore,' a shortened form of Amorepacific, and 'do,' a verb signifying active action. Recognizing that washing one's hair involves diverse and intricate movements, the team selected 'hair washing tools' as the project theme. Consequently, they crafted a brush specifically designed to make hair washing a delightful and effortless experience for individuals of all ages and abilities.

Green Dream Team

Delighting Children with Upcycled Experiences

The Green Dream Car

The collaboration between Kyung Hee University's Department of Visual Design and the BMW Korea Future Foundation resulted in the formation of the Green Dream Team, envisioning a sustainable (Green) Dream. This team is dedicated to developing products that not only raise awareness of the BMW Korea Future Foundation but also foster a culture of sharing. Moreover, their focus extends to crafting items that upcycle automobile waste, contributing to both the environment and society by harnessing the potential of automobiles, integral to the ESG values and BMW Group Korea.

Hongshim

Nongshim's ESG Pop-up Market featuring Eco-Friendly Packaging and Refill Stations

Nongshimga

Students specializing in brand package design from Hongik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Industrial Art and Design, in collaboration with Nongshim—a company dedicated to spreading happiness through healthy food—are actively promoting eco-friendly practices through refill stations. At Nongshim's ESG market, 'Nongshimga,' visitors can engage in firsthand experiences with eco-friendly packaging, utilize refill stations, and participate in diverse recycling programs centered around Nongshim's snacks.

Flâneur

Cameras capturing trash

TIC TAC TOC

The Origin and the young designers of Hongik University's Industrial Design Department, who propose flexible changes in the times with their convincing designs, came together to form 'Flâneur,' which means 'observing walker'. TIC TAC TOC, their brainchild, introduces a sustainable camera tailored for travelers, aiming to immortalize fresh perspectives for urban explorers.

VoL.1

Sustainable materials as the solution

Desk Life

Marrying the innovation of lab MZero, a company specializing in environmentally friendly household and desk products, with the imaginative prowess of young designers, they opted for CX—a material crafted from wood sourced from discarded branches and sawdust. They ingeniously developed a novel method to 3D print CXP material in pellet form, resulting in the creation of 18 designs tailored for 18 distinct "desk lives."

Datarium

A valuable life with data

HELM

"In a sea of data, individuals seize the helm to chart their own course." In an age saturated with information overload and the passive acceptance of sensational and ambiguous data, they present strategies to uphold personal agency.

Blue Wave

Life with Pets
RepurePet

The Blue Wave team crafted a package design for RepurePet, a brand dedicated to personalized pet care, and advocated for brand recognition through a diverse product lineup. Concentrating on pet owners' inclination to provide their dogs with something "clean and safe" consistently, the team designed trays, brushes, and packaging for pet products that are both recyclable and easily identifiable.

Soul Bell

Happiness, Joy, and Me
CKD x HYU

CKD, a high-performance skincare brand from Chong Kun Dang, centers its design on the application of health for 'happiness,' 'joy,' and 'me,' drawing inspiration from common keywords found in travel and music. The packaging is thoughtfully crafted with eco-friendly materials, utilizing 100% recycled paper and soybean oil printing. Additionally, a playful travel edition featuring a vinyl record motif has been conceived to enhance CKD's unique identity.

Handex

Package Design Reflecting ESG Business Philosophy
Tapex

The 'Handex' team crafted environmentally conscious paper packages adorned with characters featuring sign language motifs, mindful of social inclusivity. Complemented by thoughtfully curated gift sets designed to leave a lasting impression, their objective is to foster a positive image for Tapex and encourage a growing community of companies and consumers to engage in meaningful causes.

KUJUNG.ST

Crafting the Art of Discard
Beyond the Floor

Its aim extended beyond merely creating a new product through upcycling; the team aspired to design a product that could seamlessly return to nature at the end of its life cycle. Opting for the mycelium block, the flooring serves as a substrate for mycelium growth, subsequently forming mycelium blocks. Notably, mycelium blocks boast a quicker decomposition time compared to traditional wood when disposed of, and they degrade more rapidly when left on the ground as opposed to being buried deep in the soil.

Twenty-One

Transforming scraps through
upcycling to convey a message
Once Again Vegan

Crafted from natural fibers that emit only one-third of the carbon emissions of synthetic polyester, Songwol towels exemplify a commitment to ESG management. In response, the 'Twenty-One' team produced an ESG promotional video spotlighting the upcycled towel and the Once Again Vegan Towel. Utilizing 10 types and 164 tons of leftover materials from the 2022 production, the video showcases the company's eco-friendly practices, emphasizing the use of 100% combed yarn, its position as the leading towel producer in Korea, and the innovative upcycling process utilizing scraps.

VARI_KHUKie

The Road to Local Creators
Local Cookie Rookie!

A power research and education consulting company that utilizes local potential resources to solve problems in cities, regions, and alleys, and a city and regional brand expert as a mentor, along with mentees experienced in local industry-academia cooperation, formed a team called 'VARI_KHUKie'. The goal of the project is to help the public better understand 'local'. The project aims to enhance public understanding of the 'local' by bridging the gap and facilitating active participation in local change.

Shine

Reusable Modular LED Bulbs
mocoME

Inspired by Hellomisterlee's DIY lighting brand 'Selfme,' Shine revolves around the concept of aiding users in appreciating the value of the product lifecycle, particularly through a reusable light bulb. The designed product effectively communicates mocoME's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as a reusable modular LED bulb, showcasing its environmental consciousness and introducing added value by facilitating easy part replacement to extend the bulb's life cycle.

2023 DDP디자인론칭페어

컬래버레이션 & 론칭 COLLABORATION & LAUNCHING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23 DDP디자인론칭페어'는 역량 있는 소상공인의 똑똑한 노하우와 창의적인 디자이너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는 디자인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Valuable Life(가치 있는 동행)'를 주제로 리빙 & 뷰티 분야의 실험적인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자유로운 발상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디자인을 통해 삶의 공간을 변화시키는 디자이너와 비슷한 제품이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대량생산의 폐해 속에서 상대적으로 이상적인 방식의 구조와 패턴으로 개인의 욕구와 모두의 웰빙을 추구하는 소상공이 만나 세상에 없던 디자인 제품을 론칭한다. 또 'Design for all' Valuable Life를 추구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열두 곳이 다양한 디자인 제품의 론칭을 이끌며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한다.

올해 달라진 점은 '베스트 활동팀' 선정을 추가한 점이다.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을 매칭해 그 어디에도 없는 상품을 개발하는 유일무이한 플랫폼인 'DDP 디자인론칭페어'를 통해 지금까지 만들어낸 역대 우수 상품과 그 상품을 만든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의 활동을 되짚어봤다. 페어가 끝난 후 중단하지 않고 유통과 판매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제품을 알려온 팀에 '베스트 활동상'을 수여했다. 페어가 단순히 응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디자인으로서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작점이기도 하다.

프로젝트 기간	2023년 3월 1일 - 2023년 11월 2일
모집, 매칭 및 제품 개발	2023년 3월 1일 - 2023년 8월 18일
우수 제품 전시	2023년 10월 24일 - 2023년 11월 2일

행사 장소	DDP 아트홀 2관
행사 내용	컬래버레이션 60팀, 론칭관 12개사
웹사이트	ddpdesignfair-ex.or.kr



소상공인 +디자이너 60팀

손태선 + 스튜디오 메이어
우드스튜디오 옴 + 공작디엔씨
Moon Krystal + 보다,담다
아움 + 보다,담다
HSJG + 디바제
히트조명 + 연지공방
너드파티션 + 히트조명
히트조명 + 토요일가구클럽
히트조명 + 샘스탁스튜디오
무딕스 + 윤경현
윤경현 + 은담스튜디오
최진호 + 무딕스
제이(주키퍼디자인) + 디자인맘
리메이크랩 + 칠한친구
예그린에드 + 이지스튜디오

Thincker + 스튜디오엠펜샌드
히말라야 잡화점 + 보배그릇
히말라야 잡화점 + 플레이버
다비주식회사 + 신상아
숨인공방 + 두강호
숨인공방 + HSJG
박준희 도자기 + Samll Splash
히말라야 잡화점 + PP
HSJG + 커먼메이크
HSJG + 뉴다플랫
세현테크 + 컨투어스튜디오
이시평 + 정유경
바이스프링 + 우딕
드로DRO + 플로피FLOPY
이시산 + 김병섭

DSLMS + 비포머티브
드로잉캔들 + 김혜민
이채영 + HEEE
은담스튜디오 + 이채영
은담스튜디오 + HEEE
고새 + 토요일가구클럽
타이타임 + 토요일가구클럽
타이타임 + 전민우
어고스튜디오 + 빈지니
온바이소이 + 비포머티브

준휘김 + 홍경민
타임 + 노이 레포르드
피아즈 + 유리
주식회사 제4의공간 + 이지스튜디오
Thincker + Studio Look at
LHM + 권도연
카푸네 + 트리플레이치
케이제이 디자인 + 샘스탁스튜디오
소파샵 + 장승태
그나무 + 유수열
9E:83 + 솔 ^{SOT}
모월 + 전희원
모월 + 플레이버
올데이온 + 토요일가구클럽
오류엘리먼트 + 최원서
오스오프 + 조영진
사이트레그룹 + 비아컬렉티브
아웃트로 + 비아컬렉티브
이목스튜디오 + 무아유
주식회사 제4의공간 + 이목스튜디오

베스트 디자인

스마트한 기능에 더한 아날로그 감성

바이브 라디램프 Vibe Radilamp

출품작 소개

바이브폴과 라디램프를 결합한 조명.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빛을 비추고 배광을 각자 기호에 맞게 섬세하게 조절해 무드 조명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명을 만들고자 했다. 조명 전면은 화이트 색온도 제어 기능으로 따뜻한 감성의 빛을 연출할 수 있으며, 후면에는 1600만 컬러의 RGB 색온도 조절을 통해 퇴근 후 다양한 취미 생활을 위한 특별한 무드를 조성할 수 있다. '양면 스탠드 조명'이 디자인 콘셉트다.

협업 과정

무딕스 내부구조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다. 조명은 제품의 라이프사이클 내에서 AS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제품이다. 우리가 만들고자 한 것은 철 재질의 150cm 플로어 조명이기 때문에 출고 이후 다시 회수해 수리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를 고려해 조명 내부를 모듈화해 LED와 제어 부분을 분리해 별도로 AS가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무엇보다 디자인보다는 소프트웨어와 UI/UX^{User Interface/ User Experience} 영역에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무딕스가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제품디자인에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잘 녹아들게 하는 데 집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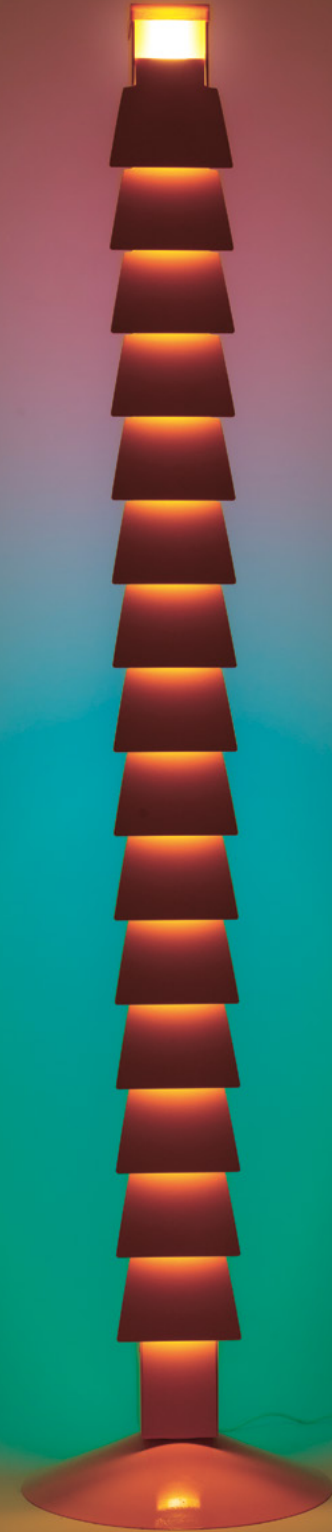
윤경현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제어 기능으로 자신이 원하는 조도와 색상을 고를 수 있는 디지털 기능이 있지만 아날로그 감성 역시 놓치지 않았다. 앞면에 위치한 패널은 위아래로 조정해 자신이 원하는 조도로 조절이 가능하며 실내 구석진 곳에 배치해도 빛의 방향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지속가능성으로 조명의 빛만으로도 다양한 공간을 연출해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 역량을 지닌 소상공인과 협업을 진행한 덕분에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보다 키울 수 있었다.



소상공인
무딕스



디자이너
윤경현



베스트 디자인

지속가능한 소재로 실현하는 디자인

써클러 커넥션 Circular Connection

출품작 소개

알루미늄이라는 소재는 잘 부식되지 않고 가벼우며 다른 소재에 가공하기도 쉬운 편이다. 재활용이 용이하다는 것 또한 큰 장점이며 내구성도 뛰어나다. 이런 소재의 특징과 트레이의 사용성을 충분히 고민해 디자인했다.

협업 과정

세현테크 컨투어스튜디오가 제안한 것은 유기적인 곡면을 포함한 트레이였다. 이전에는 2D 가공을 주로 해 입체적인 3D 가공은 생소했다. 2D 가공은 일반적인 직선 엔드밀을 사용하는데, 트레이의 유기적인 곡면을 구현하기 위해 볼 엔드밀을 사용했다. 공구의 이동속도를 느리게 조정해 유기적인 면을 섬세하게 가공해 나갔다. 트레이는 물건을 올려두는 제품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곡면을 구현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지만 우리 힘만으로는 풀리지 않던 부분이 디자이너와 논의를 거듭하며 해결되었다. 제품을 대량생산할 때와 달리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협업 과정이 좋은 자극이 되었다.

컨투어스튜디오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알루미늄은 매력적인 소재다. 알루미늄 가공을 주로 하는 세현테크와 협업해 트레이 시리즈를 개발하며 사용하는 부분은 부드러운 곡면으로 가공하고 다른 부분은 직선으로 가공해 소재가 지닌 무게감을 나타내려고 했다. 디자인 프로그램을 거쳐 모델링한 유기적인 면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세현테크 측과 긴밀하게 소통했다. 이 과정에서 알루미늄 가공 원리부터 방법, 공구에 대해 배웠으며 이를 통해 재료의 소모는 적게 하면서 심미적인 제품을 구현할 수 있었다.



소상공인
세현테크



디자이너
컨투어스튜디오



베스트 디자인

공간이 확장되는 듯한 사이드 테이블

익스텐션 Extension

출품작 소개

바닥면에서 반사되며 공간이 확장되는 느낌을 새롭게 해석한 사이드 테이블. 폭이 좁고 길어 책을 꽂을 수 있는 기둥과 오브제를 둘 수 있는 상판을 결합해 사용성까지 고려했다. 스테인리스스틸 기둥을 적용한 헤어라인 마감*과 바닥면의 폴리싱 마감의 반사 효과를 통해 구조물이 끝없이 연장되어 보인다. 또 분체도장이나 착색 등의 공정을 배제해 환경오염을 막고 소재가 지닌 아름다움을 강조했다.

* 스테인리스스틸 표면을 한쪽 방향으로 매끈하게 갈아 표면이 머릿결 느낌이 나게 하는 기법.

협업 과정

Thinner 디자이너가 원하는 형태를 반영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겪었다. 샘플 제품을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고, 직접 써본 후 이상적인 공정을 거쳐 양산 가능한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판매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던 고정관념을 버릴 수 있었다. 생산과정과 물류상의 원가절감을 통해 싸고 많이 팔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보다 우수한 기능과 심미적인 디자인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 스토리를 담는 것이 또 다른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계속해서 디자이너와 제품을 개발하며 더 나은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Studio Look at 가구가 지닌 기능성과 작품성 중 어느 한 요소만 강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민했다. 기능성만 따지면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고, 디자인에만 집중하면 값비싼 소비자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차별성을 가지되 납득 가능한 품질과 기능성, 완성도를 균형 있게 고려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점은 자원의 순환과 재활용이었다. 원자재에 다른 성분을 첨가하면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하고 버려지는 자재 역시 많아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 재활용이 용이한 소재를 활용했다. 고도화된 시스템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구가 아니라 작은 브랜드가 스토리를 담아 만든 가구가 소비자와 애착을 형성하고 오래 쓰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소상공인
Thinner



디자이너
Studio Look at



자투리 자재에서 찾은 아름다움

XCIX

출품작 소개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 소재의 물성과 가공 방식에 집중해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었다. 버려지는 자투리 자재를 찾아 그 자재가 지니는 물성을 파악하고, 소재를 가공하는 공정에서 디자인 미학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펜 트레이, 연필꽂이, 명함 홀더 같은 소품을 디자인했다. 재단된 뒤 버려지는 알루미늄 덩어리에 다양한 규격의 구멍을 뚫거나 밀링 가공 시 사선의 길을 내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기도 했다. 기능성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깔끔하고 예지 있는 조형 언어를 통해 군더더기 없이 고요하면서 인상적인 결과물을 완성했다.

협업 과정

이시산 '지속가능성'이라는 키워드 아래 쓸모없는 것, 버려지는 것들에 대해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협업을 진행하며 볼트와 너트로 결합되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잘 결합되는 동시에 심미적인 완성도를 위해 노출되지 않고 숨길 수 있는 간결한 디자인의 제품으로 완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문제는 알루미늄 덩어리 자체가 너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해결했다. 좋은 결과물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디자이너와 함께 협업하며 혼자 작업할 때보다 더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김병섭 작업할 때면 일반적으로 작품의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며 그에 맞춰 재료를 가공하고 만든다. 하지만 소상공인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의 기본 공정과 자재의 특성에서 나오는 미학을 깊이 있게 배울 수 있었다. 또 제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 판매로 이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았다. 협업 이후에도 작품 활동과 공간 디자인 작업을 해나가며 철뿐만 아니라 다른 소재의 자투리 재료에 더욱 집중해 새로운 작품과 소품 등을 디자인해 보고자 한다.



LEE SISAN

소상공인
이시산



디자이너
김병섭



베스트 활동

좁은 공간에서 더 빛나는 쓰임새

캣 타워 하임 Cat Tower Heim

제품 소개 '캣 타워 하임'은 보기에 예쁘고 좁은 공간에 적합한 실용성이 돋보이는 제품이다. 집 안 어디에 뒀도 어울리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콤팩트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면적을 기존 캣 타워 대비 30%만 차지해 좁은 공간에도 거뜬히 배치할 수 있다. 또 기존 제품인 '캣 타워 슬라이드'나 '캣 타워 미니'와 함께 배치하면 방향에 따라 놀이 공간을 바꿀 수 있다. 단단하고 부식에 강하며 소프트 우드에 비해 수축과 팽창이 적은 하드 우드를 사용해 만들었다.

캣 타워 하임의 현재 'DDP디자인론칭페어'는 자신들의 상품을 세상에 알리고 싶은 디자이너와 소상공인에게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생일 같은 날이다. 나미가구와 호우디자인은 과거에도 한 팀으로 맺어져 최종 전시 팀이 되었고, 올해는 베스트 활동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지난 전시에서 큰 관심을 받아 많은 것을 시도해 보고자 했지만, 정작 주력 제품인 캣 타워 하임을 상시 판매하는 스토어 오픈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아쉽게도 관심이 이어지지 못했다. 이전만큼 관심을 얻기까지 여러모로 힘들었지만 반려동물과 서로 행복하게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려는 시도에 공감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홍보와 마케팅 주거 공간이 좁아 반려묘와 동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협업을 제안했고, 홍보 효과 역시 만족스러웠다. 실제로 사용하며 느낀 높은 만족감을 반영한 사용 후기 덕분에 판매량이 급증했고, 캣 타워 하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이들을 타깃층으로 삼아 마케팅 효율이 높았다.

미래 반려묘 가구뿐 아니라 '하임' 시리즈의 디자인을 이을 계단식 반려견 가구를 새롭게 론칭했다. 또 반려묘가 뛰어 올라갈 수 있는 제품 출시 요청이 꾸준히 들어와 슬라이드 형태의 디자인도 준비 중이다. 향후 호우디자인 제품 라인업으로 방을 채울 수 있도록 장난감이나 패브릭 제품 등을 계속해서 선보일 계획이다.



소상공인
나미가구



디자이너
호우디자인



베스트 활동

자연을 모티프로 한 패턴과 물세탁이 가능한 소재의 조합

티 가든 러그 Tea Garden Rug

제품 소개 자연이 그려놓은 아름다운 그림에 비포머티브의 해석을 더해 아름다운 패턴을 완성했다. 차나무의 어린잎이 자라는 5월에 충남 보령과 경남 하동의 차밭을 여행하며 디자이너가 직접 보고 느낀 감성을 스케치에 담았고, 디테일 수정을 거쳐 가장 사랑스러운 패턴을 구현했다. 바쁜 일상에서 잠깐이나마 휴식을 주는 공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명상, 다도, 요가 등 의식적으로 심신을 이완하며 휴식하는 데 티 가든 러그가 도움이 될 것이다.

티 가든 러그의 현재 라익디스는 브랜드와 디자이너가 파트너로 함께 성장한다는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다. 서로 장점을 극대화하는 성장이 디자인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DDP디자인론칭페어'는 이런 생각에 가장 잘 부합한다. 디자이너와 브랜드가 공존하고 함께 헤리티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성장의 시작점에 이 페어가 자리한다. 사실 페어가 끝난 후 제품에 대한 반응은 저조한 편이었다. 아마도 티 가든 러그가 눈에 확 띄는 디자인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판매율이 점차 올라가며 만족도가 높아졌고, 지금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홍보와 마케팅 'DDP디자인론칭페어'를 통해 '티 가든 러그' 프로젝트를 킥오프한 시점부터 제품을 론칭하기까지 과정을 콘텐츠화해 다양한 채널에 노출했다. 라익디스는 이 프로젝트를 왜 시작했는지, 비포머티브는 이 디자인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좋은 마케팅 소재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며 써본 소비자들이 티 가든 러그가 인테리어 면에서 공간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지 공감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었다.

미래 실물을 확인한 후 구입하기 원하는 소비자가 많다. 화면으로 볼 때보다 실제로 봤을 때 더 아름답기도 하고. 내년에는 라익디스 오프라인 쇼룸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다. 티 가든 러그의 이야기를 잘 풀어낼 수 있는 디스플레이로 선보일 계획이다. 또 러그의 패턴을 활용해 제품 라인업도 확장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라익디스



디자이너
비포머티브



론칭관 12개사

모온 Moon



토이즈앤



언롤서피스 Unroll Surface



테일하이 Tailhigh



원플디자인 ONE+DESIGN



포워크 4WORK



애니락



치공 CHIGONG



호네스 HONES



로우리트 콜렉티브 LOWLIT COLLECTIVE



씨오지디자인스튜디오 cogdesignstudio



스튜디오 얼라이브 Studio Alive





모은 M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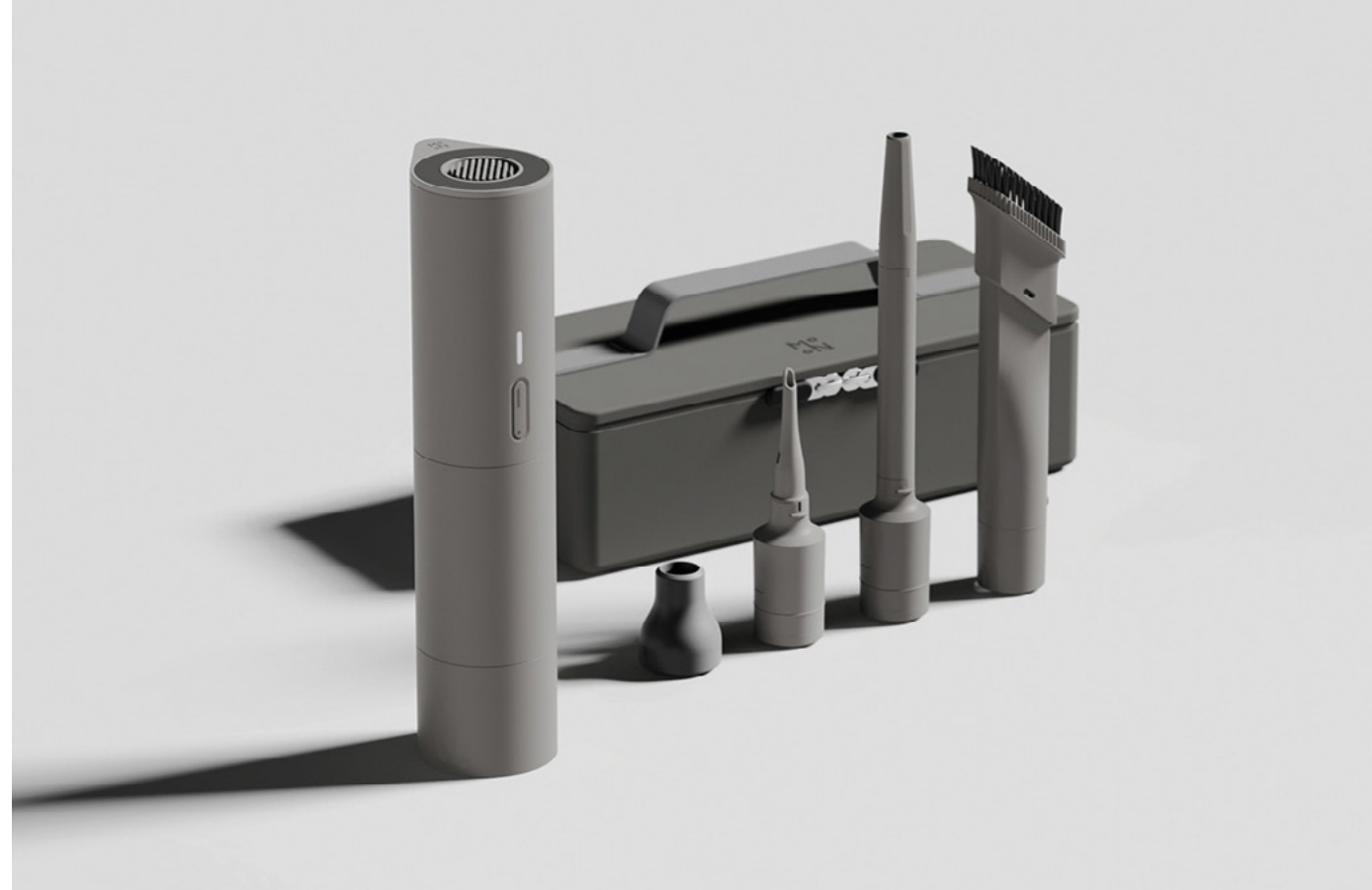
디자인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창조하는 브랜드 모은에서 정의하는 디자인은 새롭고 실현 가능한 가치 있는 활동이다.

모은의 시작 'RND+'라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를 5년 정도 운영하며 제품 개발의 한계를 경험했다. 프로젝트의 시작과 마무리, 그리고 이후 시간까지 모두 책임지고 전 과정을 직접 결정해야 훌륭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금세 사라지는 제품이 아니라 10년, 20년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고, 대를 이어서도 사용하며 시간을 초월한 가치를 지닌 제품을 직접 만들어보고 싶어 브랜드를 설립했다.

새로운 제품 첫 번째는 마음을 울리는 착한 조명 '더 벨'. 더 벨은 차임벨의 형상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무선 조명 제품이다. 착한 선물이 버려지지 않고 오래 사랑받으며 사용될 수 있도록 배터리 교체 서비스(배터리가 삽입된 소형 조명은 대부분 배터리 교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버려지는 쓰레기 없이 재사용이 가능한 패키지 디자인, 장애우가 조립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기업과의 협업 등 생산 과정 또한 매력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 번째는 캠핑을 위한 오브제 무선 청소기 '오비큐에어 캠퍼'. 흡입 청소와 블로 청소 모두가 가능한 오비큐에어 캠퍼는 강력한 BLDC 모터와 캠핑에 유용한 다양한 툴 키트를 제공해 기본적인 청소는 물론 캠핑에 필수적인 불 피우기, 매트 공기 채우고 빼기 등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책상 위 등에 올려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없는 모은 멀티탭이 있다.

론칭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모은은 환경에 대한 책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서브 프로젝트 '모은 그린'을 실천하며 ESG 경영 철학을 지켜가고 있다. 친환경 가치를 위해 부스는 재생 가능한 소재인 종이와 친환경 재료로 디자인했다. 또한 모은 그린의 이념을 담은 다양한 신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다.

DDP디자인론칭페어라는 플랫폼 디자이너와 브랜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디자인산업과 소비자 간 소통과 교류를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Nature N

토이즈앤

굴 껍데기의 새로운 쓰임

우리를 소개합니다 매년 버려지는 굴 껍데기는 대략 38만 톤. 이는 1톤 트럭 1054대가 1년 동안 매일 옮겨야 하는 양이다. 폐기되는 굴 껍데기 중 재활용되는 건 19%에 불과하다. 토이즈앤은 굴 껍데기를 소재로 활용해 한국의 미를 더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든다.

토이즈앤의 시작 토이즈앤의 대표는 우리나라 핵심 굴 생산지 중 하나인 거제도에서 나고 자랐다. 매년 쏟아지는 굴 껍데기로 인한 문제를 가까이에서 경험한 그는 고향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버려진 굴 껍데기를 활용할 방안을 고민한다. 그 결과 찾은 해법 중 하나는 도자기를 물건의 소재로 활용하는 것. 굴 껍데기 성분의 90% 이상이 탄산칼슘이라는 데 착안해 도자기 만들기에 도전했다.

새로운 제품 버려지는 굴 껍데기를 이용해 친환경 합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한 이후, 네이처앤 Nature N이라는 브랜드를 론칭했다. 네이처앤에서는 달항아리 인센스 홀더를 제작할 뿐 아니라 DIY 제품으로도 출시하고, OEM 방식으로 생산도 하고 있다. 자체 기획한 상품으로는 달항아리 모양의 인센스 홀더와 팔각병 인센스 홀더, 달무리 플레이트 등을 출시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선보이고 있다.

론칭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토이즈앤에서 출시하는 모든 제품은 UPSUnique, Pure, Simple 콘셉트에 따라 디자인한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제품은 대한민국 국보 309호 달항아리와 국보 258호 청화백자를 모티프로 한 유니크한 디자인, 은은하고 포근한 유백색의 퓨어한 디자인, 단순한 곡선과 직선을 사용한 심플한 디자인이다.

네이처앤의 미래 '버려지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한 친환경 산업 생태계의 선두 주자가 된다'는 비전을 정하고 다양한 실험과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판매 채널 다각화를 위해 해외로는 미국 아마존과 동남아시아 소피 론칭, 국내에서는 신세계 면세점과 롯데백화점 등 최고급 매장 입점을 목표로 한다.

DDP디자인론칭페어라는 플랫폼 멋진 전시를 통해 관람객에게 네이처앤의 아름다움이 잘 전달되기를 바란다.





자이 ZAI

원플디자인 ONE+DESIGN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드는 연필

우리를 소개합니다 원플디자인은 고객의 삶에 더 많은 가치와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기업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모든 단계에서 감동과 또 다른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뛰어난 디자인과 기능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치 경험을 중시한다. 이에 더해 환경과 사회적책임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환경친화적 소재와 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한다.

자이의 시작 제품디자인 컨설팅 전문 기업인 원플디자인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지사를 운영했다. 그러던 중 프리미엄 문구 브랜드 자이ZAI의 제품디자인 컨설팅을 의뢰받게 되었다. 이 의뢰가 브랜드의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다. 항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을 추구한 원플디자인은 자이에도 이런 가치를 담고, 문구 제품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에 특별한 감성과 가치를 전하고자 했다. 자이가 성공적으로 성장하며 원플디자인은 자이의 제품디자인 총괄이자 해외 비즈니스 운영을 담당하게 되었다.

새로운 제품 자이 탄소 펜 3.0은 1세대 실버 포인트, 2세대 탄소 펜을 선보이며 받은 소비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더 나은 기술을 접목해 발전시킨 제품이다. 숲의 나무를 베지 않고 만들어 평생 쓸 수 있는 연필을 실현하는 데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자이 탄소 펜 3.0은 연필심 1080개를 압축한 용량의 탄소심을 개발해 기존 연필심보다 내구성이 높고 마모율도 매우 낮아 평생 사용이 가능하다.

론칭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나무의 도움 없이 자란 연필'이라는 전시 콘셉트를 통해 환경보호와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 나무를 베지 않고도 충분히 연필 기능을 하는 문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이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전시 공간은 아름다운 나무 한 그루로 연출하며, 이 나무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 가치를 상징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과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혁신적 기술과 디자인을 통해 나무를 보호하고자 하는 원플디자인의 고민과 노력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자이의 미래 자이는 혁신적 디자인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성장해 나갈 것이다. 꾸준히 '깎지 않는 연필' 개발과 제작에 힘쓸 것이며, 나무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전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2024년에는 4세대 탄소 펜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 중이다. 성능과 감성을 유지하며 더욱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곳에서 자이를 꾸준히 만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전시와 이벤트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DDP디자인론칭페어라는 플랫폼 디자인 기업에 많은 의미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DDP디자인론칭페어'는 전문가의 평가와 선정 과정을 거쳐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는 디자인 기업으로서 쏟은 노력과 열정이 인정받는 것이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한다. 소비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좋은 전시가 기획되기를 기대한다.





포워크4WORK

디자인을 통해 찾는 솔루션

우리를 소개합니다 포워크는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솔루션을 찾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제작하고 생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자 만들어졌다. 다양한 접근 방법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작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자사 제품뿐 아니라 타 기업의 제품 개발과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포워크의 시작 각각 가구, 인테리어, 제작, 기획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은 4명의 디자이너가 모여 만든 브랜드다. 각자 쌓은 경험이 다른 만큼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으며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제품 FAmdesk-DUO는 모니터 상판의 각도가 기울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동안 의자에 바른 자세로 앉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거북목이나 허리가 구부정한 자세를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손부터 팔꿈치까지 많은 부분이 상판에 닿기 때문에 마우스나 키보드 사용 시 피로도도 줄일 수 있다. 의자에 앉거나 서서 일하기 편한 높이를 액추에이터를 통해 조절하기 때문에 개인 상황에 맞춰 미세한 조절이 가능하다.

론칭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똑바로 앉으라는 조언은 처음 책상 앞에 앉는 순간부터 수없이 많이 들어온 말일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똑바로' 앉아 일하고 있을까? 포워크 부스에서는 이제부터라도 똑바로 앉아서 공부하거나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유용한 도움을 줄 것이다.

포워크의 미래 건강한 삶을 위해 지켜야 하는 오피스 환경을 관심 있게 연구하고, 이에 도움이 될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자 한다.

DDP디자인론칭페어라는 플랫폼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을 위한 플랫폼뿐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연결 고리 역할도 기대한다.



HONES

호네스 HONES

가구의 본질과 고유의 DNA

우리를 소개합니다 리빙디자인 스튜디오 호네스는 가구의 본질을 유지하며 호네스 고유의 디자인 DNA를 담은 가구를 선보인다. 선택지가 많은 이 시대에 좋은 가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가구를 디자인하며 고객이 보다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해 공간 콘셉트에 맞는 가구를 디자인하고 컨설팅한다.

호네스의 시작 금형을 이용해 찍어내는 방식의 가구가 아니라 소재를 깎고 구부려 만들어내는 수작업 공정에 흥미를 느껴왔고, 각 분야의 장인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여전히 숙련된 장인과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호네스의 디자인 역량으로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 회사와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새로운 제품 올해 조명 브랜드 보나키아의 두 번째 컬렉션이 출시되었다. 보나키아의 첫 번째 컬렉션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이를 보완해 두 번째 컬렉션을 준비했고, 이는 새로운 시도였다. 이 중에서도 '키아' 조명은 투명한 물질에 빛이 맺히지 않는 현상에 착안해 샌딩한 아크릴을 통해 빛의 광원을 이동한 조명이다. 단순한 형태에서 오는 강직한 느낌과 각 소재 본연의 성질이 느껴지는 마감으로 현대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최근에는 의자와 테이블 디자인을 진행 중인데, 목재와 금속 파이프를 활용해 구조적으로 심플하면서 각각의 소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형태의 의자를 만들고 있다. 호네스만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첫 의자이니만큼 어떤 반응이 나올지 자못 기대 중이다.

론칭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호네스만의 고유한 디자인 DNA를 공유하기 위해 페어에 참여했다. 형태와 기능의 균형을 높이 평가하는 동료 디자이너와 업계 전문가는 물론 호네스와 결이 비슷한 취향을 지닌 소비자와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호네스의 미래 국내 리빙 제품 제조 시장은 해외 디자인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편이다. 제품디자인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못하고 해외 브랜드를 비슷하게 따라 하는 방식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기술을 갖추고도 고유의 디자인이 없어 제조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협업해 제조업 시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DDP디자인론칭페어라는 플랫폼 보나키아는 '을지로 라이트웨이' 프로젝트에서 탄생했다. 디자이너와 제조사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된 전시에서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각 분야 전문가가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해 새로운 브랜드가 탄생하고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협업 팀 중 지속되는 팀이 있는 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팀도 있는데, 매칭 시스템을 보다 체계화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로우리트 콜렉티브 LOWLIT COLLECTIVE

버려진 것에서 새롭게 찾는 쓸모

우리를 소개합니다 버려진 것에서 새로운 목적을 찾고 의미를 연결하는 작업인 리퍼포징 Repurposing. 로우리트 콜렉티브는 리퍼포징 스튜디오다. 페플라ستيك처럼 버려지는 소재를 자재로 개발하고 자체 자재를 바탕으로 가구를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로우리트 콜렉티브의 시작 로우리트 Lowlit는 저조도, 저조명된 것을 뜻한다. 잘 보이지 않는 것 혹은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에서 의미와 쓰임새를 찾아내려는 의지를 담은 이름이다. 페플라ستيك을 활용한 자재는 빈티지한 느낌이 들면서 소재 자체가 주는 느낌이 매력적이다. 플라스틱이 지닌 대량생산을 위한 소모품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페플라ستيك 문제를 해소하며, 이와 동시에 흥미로운 재활용 소재로 다양한 디자인을 구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브랜드를 시작했다.

새로운 제품 앤시언트 팻 Ancient Pot은 500여 년간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의 특징에 착안해 고대 유물처럼 손으로 빚은 듯 비정형적 조형을 특징으로 한다. 아트피스로 제작한 디자인을 수정해 대량생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준비 중이다. 가구 시리즈 베카 Vecca는 페플라ستيك 소재에 바이오매스를 섞은 자체 소재를 활용한 가구로 'DDP디자인론칭페어'에서는 스톨과 벤치 2종을 소개한다. 고인들의 영속성을 디자인에 담으려 했으며 U자형 다리 실루엣은 고인들 구조와 고대 그리스 건축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형태다.

론칭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제품이 일상에서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고 그려볼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민다. 로우리트 콜렉티브가 소재 베이스 디자인을 선보이는 만큼 해당 소재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소재와 색상을 전시해 페플라ستيك이 생소한 시민들도 마음껏 경험해 볼 수 있다. 전시 기간에 DDP 공식 스토어를 통해 판매된 제품의 수익금 중 일부는 환경 관련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로우리트 콜렉티브의 미래 'DDP디자인론칭페어'의 주제가 '가치 있는 동행'이듯 로우리트 콜렉티브 역시 개성 강한 구성원과 동행하며 넓게는 폐자원을 재자원화하는 협력사부터 티끌 플라스틱을 기증하며 참여한 소상공인 협력자까지 함께하고 있다. 이들과 계속 동행하며 소재 기반 디자인 스튜디오이자 리퍼포징 스튜디오로서 생소할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DDP디자인론칭페어라는 플랫폼 일상을 함께하는 가구와 조명, 홈 리빙디자인 신제품을 함께 선보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반갑고 기쁘다.



Unroll Surface®

언롤서피스 Unroll Surface

디자인으로 실현하는 소재의
지속가능성

우리를 소개합니다 언롤서피스는 대체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소재의 지속가능성을 연구하고, 이를 발 빠르게 디자인 제품으로 개발하는 브랜드다. 모든 제품을 석유계 신생 플라스틱 없이 바이오소재와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일상적인 물건의 소재를 바꿈으로써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전파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그려간다.

언롤서피스의 시작 언롤서피스에서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재다. 제품 서비스에서 종종 차순위 가치로 여기는 '소재'에 집중하다 보니 개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첫 번째 제품인 텀블러는 원하는 형상과 물성이 나오지 않아 개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럼에도 확고히 지켜가는 브랜드 철학이 우리 사회에서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며 브랜드를 다져가고 있다.

새로운 제품 2023년 상반기에 몇몇 기업과 의미 있는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물을 하반기에 신제품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기존에 다루온 대체 플라스틱 소재를 넘어 알루미늄 업사이클링 소재를 활용해 제품을 개발하기도 했다.

론칭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전시 콘셉트는 탄소 배출의 최소화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 전시를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한 전시 테이블과 선반 등을 모두 건설 임대 기업인 (주)성지제강과 협업해 진행하고, 전시 후에는 다시 원래대로 자재로 사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시 관람자가 직접 탄소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내일의쓰임과 함께 구축해 지속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언롤서피스의 미래 브랜드가 가진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철학을 꾸준히 지켜가는 것이 언롤서피스의 방향성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선보이고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도 늘려가며 철학을 더욱 견고히 다져나갈 것이다.

DDP디자인론칭페어라는 플랫폼 페어를 통해 브랜드를 알릴 기회를 갖는 것도 좋지만, 더 나아가 이후 브랜드가 성장하고 비즈니스를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가 마련되면 좋겠다. 이와 더불어 서울을 거점 삼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브랜드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DDP디자인론칭페어'가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테일하이 Tailhigh
퍼스퍼드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트립 & 액티비티 문화

우리를 소개합니다 반려동물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아웃도어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창의적인 제품과 서비스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즐기는 트립 & 액티비티 문화를 만들어가며 2021년 브랜드를 론칭한 이래 지속적으로 인지도를 넓혀가고 있다. 2023년에는 제품군을 확대하고 국내외 박람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반려동물 아웃도어 영역에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테일하이의 시작 반려동물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테일하이를 론칭했다. 테일하이의 모든 제품에는 브랜드의 철학을 담으려고 한다.

새로운 제품 '하이브리드 하네스'는 하네스와 리드 줄 일체형 제품이다. 1.4-1.5m의 리드 줄이 하네스 등 부분에 내장되어 있어 줄을 걸거나 풀 필요 없이 손잡이만 잡으면 된다. 이와 반대로 손잡이를 놓치는 경우에도 줄이 멈춘다. 이 기술과 하네스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모두 기술 특허와 디자인 등록을 마쳤다. 공기 주입식 구멍조끼는 기존 구멍조끼보다 높은 부력과 안정적인 밸런스를 갖추고 있다. 실제 스쿠버다이빙가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해 안전한 것은 물론이다. 이 외에도 신축성이 우수하고 체온 유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네오프렌 소재로 만든 'Go2 스웬수트'와 입고 벗기 편하고 머리 부위에 360도 빛 반사 섬유를 사용해 어두워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Go2 레인코트' 등을 새롭게 선보였다.

론칭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테일하이의 론칭관은 'Play in Nature'를 콘셉트로 꾸민다. 가공하지 않은 베니어합판을 사용해 자연 친화적으로 공간을 꾸미고, 그 안에 자연에서 가장 돋보이는 색상과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전시한다.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이 더 많은 시간을 자연에서 반려견과 뛰어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에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아낼 것이다.

테일하이의 미래 테일하이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아웃도어 문화를 만들어가려 노력하고 있다. 야외 활동 시 좀 더 편리하고 안전한 데다 창의적이기까지 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가장 행복한 순간을 테일하이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테일하이가 바라는 바다.

DDP디자인론칭페어라는 플랫폼 창의적이고 품질 우수한 제품이 판매가 부진해 널리 알려지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판로 개척에 도움을 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anylock

밀다 Milda
애니락

손잡이 하나로 변하는 공간

우리를 소개합니다 '밀어서 편리하게 연다'는 의미를 담은 '밀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 미국, 중국에 상표출원을 하고 140개국 백커 Backer, 투자자와 협력 업체를 보유한 미국의 킥스타터 Kick-starter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며 도어록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한다. 우수 제품을 통해 한국의 제조 산업이 다시 부흥하는 꿈을 키운다.

밀다의 시작 공중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뒤 또다시 움켜잡고 열어야 하는 상황이 비위생적으로 느껴져 밀어서 여닫는 손잡이를 개발했다. 사용성을 개선하고 교차감염을 최소화하며 화재 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를 반영해 제품을 개발했다. 아이부터 고령층까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없는 디자인으로 개선해 나갔다. 관 모양으로 된 튜블러 방식의 배리어프리 기능에 성공하며 고령 친화 제품, 어린이용 제품, 재난 안전 제품 시리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새로운 제품 첫 번째 제품은 해외 수출을 고려한 프리미엄 인테리어로 포지셔닝한 '밀다' 시리즈와 만 5세 미만 아동이 사용하기 좋은 보급형 푸시풀 Push-pull 손잡이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 학교의 피난계단, 아파트 비상계단, 화재 시 빠른 탈출이 가능한 재난 안전 푸시풀 손잡이도 출시할 계획이다.

론칭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밀다의 초기 제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 손잡이 하나만 바뀌도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어떻게 달라지고, 얼마나 편리해지는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밀다의 미래 인테리어용 푸시풀 손잡이와 고령 친화 제품, 재난 안전 제품을 통해 다양한 공간에서 모든 사용자 편의성과 안전을 생각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목표다.

DDP디자인론칭페어라는 플랫폼 제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감각적인 제품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잠재력을 지닌 제품이 'DDP디자인론칭페어'를 통해 제품을 알릴 기회를 얻고 상용화를 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chigong

치공 Chigong

치유와 가치를 만드는 공간

우리를 소개합니다 1998년부터 치과와 보건소에 구강용품을 공급하던 자사 제조업체 (주)이케이비전의 노하우와 뉴욕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돌아온 디자이너의 컬래버레이션으로 탄생한 친환경 구강용품 브랜드. 빈티지한 기능성 칫솔을 비롯해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과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선보인다. 편리와 편의만을 위한 선택이 더 이상 환경을 망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트렌디한 디자인에 심혈을 기울인다.

치공의 시작 미국에서 오랜 시간 모션 그래픽스 디자이너로 일하며 분수거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현실에 실망감을 느꼈다. 한국에 돌아와 국내 칫솔 제조회사를 운영한 아버지의 노하우와 연륜, 모션 그래픽스 디자이너인 아들의 디자인과 브랜딩으로 치공을 시작했다. 2022년 와디즈 펀딩을 통해 첫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기존의 한정적인 칫솔 디자인에서 벗어나 빈티지하고 키치한 감성을 담았다.

새로운 제품 롯데와 협업해 '치공 x 벨리곰 1P 칫솔'과 허 클리너를 제작 중이다. DDP에서 선보인 '벨리곰 4p 칫솔'의 호응으로 계약을 연장하면서 올해 새로운 제품을 론칭할 예정이다. 치공의 첫 번째 제품인 '치공 episode.0 친환경 칫솔'은 옥수수 전분 추출 원료인 PLA 소재를 활용해 탄소배출량을 70% 이상 저감했다. 치공의 두 번째 제품인 '치공 episode.1 친환경 허 클리너'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친환경 요소인 바이오매스를 소재로 만들었으며 제품 제조 시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다. 세 번째 제품인 '치공 episode.2 친환경 숲도 칫솔'은 PLA 몸통의 세련된 나뭇결 텍스처와 곡선형 맞춤 핸들이 안정적인 그립감을 제공한다. 네 번째 제품인 '치공 episode.3 무불소 치약'은 천연 계면활성제와 레몬민트 향이 더해져 칫솔질을 하고 나면 입안이 상쾌하고 깔끔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론칭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친환경 제품의 기능적인 특징과 더불어 빈티지하면서 힙한 콘셉트의 브랜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획 중이다. 평범한 구강위생용품도 각자의 감성을 담은 인테리어 소품이 될 수 있고, 뉴트로 무드의 공간 연출로 제품과 브랜딩 모두 관람객의 시선을 모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치공의 미래 치공은 구강위생용품을 넘어 종합 토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서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비건 원료로 만든 비건 화장품으로 핸드크림과 립밤 등을 출시하고, 내년에는 룸 스프레이와 디퓨저 등 향 관련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DDP디자인론칭페어라는 플랫폼 치공이 기능성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과 브랜딩에 심혈을 기울였기에 페어를 통해 소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품의 강점을 많은 관람객에게 알리는 것은 치공 같은 신생 브랜드에 더할 나위 없이 귀한 기회인 것 같다.



SANRO

산로 Sanro

씨오지디자인스튜디오
cogdesignstudio

우리가 진짜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일

우리를 소개합니다 창업 8년 차 산업디자인 전문 스튜디오
씨오지디자인스튜디오가 전개하는 브랜드 '산로'. 디자인 기획부터 설계,
양산의 전 과정을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하며 노하우를 쌓고 파트너인
생산업체들과 협업이 가능해 직접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산로의 시작 지난해 한 클라이언트와 연간 계약이 종료되고 용역 서비스가
결코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데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만의 의지와 철학으로 진짜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마음으로 자체 브랜드를 시작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자력갱생의 산물인 셈이다.

새로운 제품 F&B 매장을 운영하거나 새로운 공간을 준비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간에 꼭 필요하지만 제품 선택지가 많지 않은 제품을 산로만의
감각으로 만들고 있다. 현재는 조명과 가격표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우산꽃이, 화분, 바스켓 같은 인테리어 소품부터 벌레 잡는 포충기를 비롯한
전자제품까지 제조업체와 함께 만들 수 있는 모든 제품을 시도할 예정이다.

론칭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산로가 만드는 제품은 그동안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용역 서비스를 하면서 양산 과정에서 나오는 원재료의 부산물을
이용한다. 자투리로 할 수 있는 수많은 디자인을 통해 그냥 버려질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격경쟁력도 높다.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으로 제품을 바라보고 재료를 재사용하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부분을 관람
포인트로 삼아주기 바란다. 제품을 진열하는 테이블과 선반 모두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하다. 팝업스토어를 통해 제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산로의 미래 우리는 아티스트가 아니다. 산업디자이너로서 환경에 적합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제품을 만들 의무가 있다. 예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공법으로 만들 생각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쓰고 싶고, 만들고 싶은 제품을 쓰는 사람이 즐겁게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북촌에 준비 중인 쇼룸에서 이 모든 제품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DDP디자인론칭페어라는 플랫폼 신생 브랜드에 무척 소중한 기회다. 산로
역시 좋은 제품으로 페어를 찾아갈 생각이다.



STUDIO ALIVE
FOR ALL LIVING THINGS

스튜디오 얼라이브 Studio Alive

반려동물과 반려인 모두의 행복

우리를 소개합니다 반려동물의 24시간, 나아가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며 그 습성에 적합하고 가치 있는 제품을 선보임으로써 더 나은 삶에 기여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모든 제품은 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하며 개발해 환경에 이롭고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소재와 색, 섬세한 디테일을 반영하며 뛰어난 기술로 제작한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아름다운 선물 같은 브랜드다.

스튜디오 얼라이브의 시작 제품을 개발하고 디자인해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며 반려동물을 입양해 회사에서 키우던 중 반려동물 관련 프로젝트의 용역을 자주 진행했다. 자연스레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시장에 관심이 많아졌고, 우리의 반려견 '당당이'에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지금은 고양이 세 마리도 입양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스튜디오 얼라이브에서 개발한 모든 제품의 첫 번째 소비자는 이 반려견과 반려묘다. 이 아이들의 사용경험 데이터를 통해 상품의 성패를 가늠한다.

새로운 제품 반려동물이 좋아하고 자연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상품을 개발 중이다. '노 플라스틱' 제품을 비롯해 친환경 인증을 받은 펄프로 만든 식기, 스크래처, 숨숨집, 비닐 포장을 줄일 수 있는 종이 쌀 포대 방식의 패키지, 재활용 가능한 놀이 기구 등 반려동물과 환경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론칭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미니멀한 디자인 콘셉트와 지속가능한 CMF Color, Material, Finishing 디자인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품을 전시할 계획이다. 우리 제품을 사용하는 반려인들의 흥미로운 콘텐츠도 영상으로 제작해 상영한다.

스튜디오 얼라이브의 미래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사랑하는 지속가능한 상품을 개발하고 그 상품을 통해 가치를 전달하고 경험하게 한다는 철학을 지켜갈 것이다. 또 해외시장에서도 성과를 올리는 글로벌 브랜드를 목표로 한다.

DDP디자인론칭페어라는 플랫폼 취지는 다양한 제품을 통해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제조업 기반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협력 기반 행사가 되었으면 한다. 전시와 비즈니스가 훌륭한 협업을 이뤄 지속적으로 시장과 연결되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한다.



Collaboration & Launch Platform

The 2023 Design Launching Fair, now in its fifth year, serves as a catalyst for new product development projects, fostering a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smart expertise of proficient small businesses and the innovative ideas of creative designers. Aligned with the theme of 'Valuable Life,' the event will unveil experimental products in the realms of living and beauty. Visionary designers, driven by unrestricted creativity, join forces with small businesses dedicated to meeting individual needs and fostering collective well-being through personalized and idealized structures. This collaboration culminates in the launch of design products that break away from the mass production landscape, where similar products inundate the market indiscriminately. Furthermore, 20 design studios championing 'Design for All' and Valuable Life will introduce a new lifestyle by unveiling a diverse array of design products.

What sets this year apart is the introduction of the Best Activity Award. Serving as a unique platform that fosters collaborations between designers and small businesses to bring unparalleled products to life, we reflect on the exceptional products and the endeavors of the designers and small businesses behind them. The Best Activity Award recognizes a team's continuous efforts beyond the fair, actively promoting their products through distribution and sales. This marks the initiation of a virtuous cycle, aiming to transform the fair into a mutually beneficial design event.

Dates	October 19, 2023–November 2, 2023
Venue	DDP
Event Details	60 collaboration teams, 12 launches
Website	www.ddpdesignfair-ex.or.kr

3 Best Designs

Analog Sensibility Enhanced with Smart Functionality

Vibe Radilamp

Maker Mudix

Designer Kyunghyun Yoon

Vibe Radilamp blends analog sensibility with smart functionality, merging a vibe pole with a radilamp. The objective was to create a versatile light, allowing users to customize the light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The front features a white color temperature control for warm light, while the back boasts an RGB color temperature control offering 16 million colors for diverse post-work activities. The design concept revolves around the idea of a 'double-sided stand light.'

Design Achieved Using Sustainable Materials

Aluminum Tray Series

Maker Saehyun Tech

Designer Contour Studio

Aluminum, known for its resistance to corrosion, lightweight nature, and ease of processing compared to other materials, holds significant recyclability advantages while maintaining durability. Their design for the tray takes into account these material attributes and enhances usability.

A Space-Expanding Side Table

Extension

Maker Thinker

Designer Studio Look At

Vibe Radilamp blends analog sensibility with smart functionality, merging a vibe pole with a radilamp. The objective was to create a versatile light, allowing users to customize the light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ir preferences. The front features a white color temperature control for warm light, while the back boasts an RGB color temperature control offering 16 million colors for diverse post-work activities. The design concept revolves around the idea of a 'double-sided stand light.'

2 Best Activity Teams

Maximizing Radiance in Minimal Space

Cat Tower Heim

Maker Nami Furniture

Designer H.O.U Design

Cat Tower Heim stands as an elegant and functional solution tailored for compact living spaces. Versatile in placement throughout the house, its sleek design seamlessly integrates into any environment. Occupying just 30% of the footprint of a traditional cat tower, it's an ideal fit for small spaces. Enhance your feline's playtime by combining it with the Cat Tower Slide or Cat Tower Mini, creating a dynamic play area with directional versatility. Crafted from hardwood, known for its durability and corrosion resistance, this design minimizes shrinkage and expansion compared to softwood alternatives.

A Fusion of Patterns Inspired by Nature,
Crafted from Washable Materials

Tea Garden Rug

Maker Be Formative

Designer Likethix

Nature's exquisite canvas weaves a captivating tapestry with Be formative's interpretation. The designer, inspired by the tranquil landscapes of Boryeong and Hadong's tea gardens in May, translated the essence of growing young tea leaves into a non-formal interpretation. Evoking the emotions witnessed during this visit, the designer meticulously crafted a captivating pattern that exudes charm. This rug serves as a respite amidst the hustle and bustle, inviting moments of relaxation into your daily rituals such as meditation, tea ceremonies, and yoga.

2023 DDP Design Launching Fair

Launch Studio

Emotion & Sustainability

MO-ON Best Launch

Introducing the Bell, an illuminating creation with a heartfelt touch. This wireless lighting product draws inspiration from the form of a chime bell. Committed to ensuring that meaningful gifts are cherished and utilized for an extended period rather than discarded, the production process includes a unique battery replacement service (a feature not commonly found in most small lights with inserted batteries), an eco-friendly package design to minimize waste, and a collaborative effort with a social enterprise involv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the assembly process.

Repurposing Oyster Shells

Nature N(Toysand)

After successfully creating an environmentally friendly synthetic material from discarded oyster shells, the company launched the brand Nature N. Nature N encompasses both DIY and OEM products, featuring moon jar incense holders among other items. The company's proprietary product line comprises moon jar-shaped incense holders, octagonal incense holders, and moon cluster plates, all available in diverse online and offline stores.

Eco-Friendly Pencils without Tree Cutting

ZAI(One+Design)

The ZAI Carbon Pen 3.0 represents an advancement in technology, incorporating valuable consumer feedback from its predecessors, the first-generation Silver Point and the second-generation Carbon Pen. Its aim is to bring forth a pencil that can withstand a lifetime of use without contributing to deforestation. The ZAI Carbon Pen 3.0 employs an innovative design, utilizing a new process to create carbon nibs, eliminating the need for metal or conventional carbon nibs. This results in a more robust pencil with minimal wear and tear, ensuring a lifetime of sustainable use.

Finding Solutions through Design

4work

The FAmdesk-DUO features an angled monitor top designed to promote proper posture while in use, reducing the likelihood of turtle neck and hunched back postures. This configuration minimizes fatigue when using a mouse or keyboard, providing enhanced support as many parts of your hands and elbows rest on the top. The height adjustment, suitable for seated or standing work, is precisely controlled by an actuator, allowing personalized fine-tuning to meet individual preferences and needs.

The Essence and Distinct DNA of Furniture

Hones

This year marked the introduction of Bonakia's second collection, drawing inspiration from the intriguing concept of light absence within transparent materials. The lighting products ingeniously navigate the light source through sanded acrylic. The inherent rigidity of simple shapes, coupled with finishes that mirror the essence of each material, establishes a contemporary ambiance. Recent endeavors include the design of chairs and tables, where wood and metal pipes are harmoniously utilized to create structurally straightforward chairs seamlessly integrating with each material. The reception of the chair, representing the embodiment of Hones' design philosophy is early anticipated.

Discovering New Uses for Discarded Objects

Lowlit Collective

The concept of the ancient pot draws inspiration from the enduring nature of plastic, with a lifespan exceeding 500 years. Its distinctive hand-molded shape resembles an ancient artifact, initially conceived as an art piece and now undergoing refinement for mass production. The Vecca furniture series utilizes proprietary materials crafted from recycled plastic blended with biomass, introducing a stool and a bench at the DDP launch. Embracing the permanence associated with dolmens, the U-shaped leg silhouette presents a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dolmen structures and ancient Greek architecture.

Sustainable Materials in Design

Unrollsurface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2023, they have embarked on meaningful collaborative projects with various companies, and the outcomes will be reveal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new products in the second half of the year. In addition to their ongoing work with alternative plastic materials, they have expanded their efforts to include products crafted from upcycled aluminum.

Travel & Activity Culture with Pets

Tailhigh(Firspurt)

The hybrid harness seamlessly combines both harness and lead into a single product. The 1.4–1.5 leash is integrated into the back of the harness, eliminating the need for attaching or detaching the leash—simply grab the handle. Conversely, lifting the handle causes the leash to stop.

Simplifying Door Opening for Everyone

Milda(AnyLock)

The initial offering is the Milda series, strategically positioned for premium interiors with a focus on overseas export. Additionally, they are gearing up to introduce an entry level push-pull handle tailored specifically for children under 5 years old. Further plans include the launch of disaster safety push-pull handles designed for evacuation stairs in schools, emergency stairs in apartments, and quick escape in case of fire.

A Space of Healing and Value

Chigong(Ekvision)

Chigong introduces its inaugural product, Chigong episode.0 eco-friendly toothbrush, cutting carbon emissions by over 70% through the use of PLA material derived from corn starch. Following this, Chigong's second product, Chigong episode.1 eco-friendly tongue cleaner, incorporates biomass—an eco-friendly element extracted from sugar cane—minimizing carbon emissions during production. The third product, Chigong episode.2 eco-friendly charcoal bristle toothbrush, features a PLA body with a refined wood grain texture and a custom curved handle for a secure grip. Lastly, Chigong episode.3 fluoride-free toothpaste stands out with natural surfactants and a refreshing lemon-mint flavor for a clean and invigorating finish.

Harnessing Design Expertise

Sanro(COG Design Studio)

Geared towards consumers managing F&B stores or embarking on new space endeavors, Sanro offers indispensable products with limited available options. Currently featuring lights and price tags, their future endeavors include a diverse range, expanding from electronics to interior accessories like umbrella stands, planters, baskets, and bug traps, all developed in collaboration with their manufacturing partners.

Sustainable Pet Products

Studio Alive

Studio Alive is committed to developing products that cater to pets' preferences while embracing a natural and sustainable ethos. Ranging from "no-plastic" items to tableware crafted from environmentally certified pulp, scratchers, hiding places, and paper rice-wrapped packaging to minimize plastic use, to recyclable playthings, Studio Alive is dedicated to developing products that prioritize the well-being of pets and contribute positively to the environment.

기업 전시 & 팝업

국내외 ESG를 선도하는 기업이 홍보 파빌리온과 기업 팝업 전시를 마련해 시민에게 기업이 추구하는 착한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공유한다. 다양한 시민 참여 이벤트가 더해져 보다 많은 사람이 가치 있는 동행에 함께하기를 권한다.

개최 기간	2023년 10월 24일 - 11월 2일
행사 장소	DDP 어울림광장, 팔거리
행사 내용	협력 기업 14개
웹사이트	seoul-design.or.kr



- 노티드
- 러쉬코리아
- 망그로브
- 고창군 × 상하농원
- 새턴버스
- 송월타올
- 아얀투
- SK이노베이션 × 국민대학교
- MCM
- 이케아코리아
- 현대자동차
- 플라스틱방앗간

노티드

디저트 카페에 머물지 않고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나 일상의 보다 많은 부분에 노티드의 달콤한 감성을 전한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의 노티드 노티드는 다양한 베이커리와 케이크, 도넛을 즐길 수 있는 디저트 카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감성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와 경험을 제공하며 푸드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 <서울디자인 2023> 기간 선보이는 노티드 트럭에서는 매장보다 다른 매력의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티드의 가치 있는 동행 '가치 있는 동행'이라는 주제에 맞춰 '재사용'을 키워드로 정하고 노티드 트럭의 메인 콘셉트로 잡았다. 팝업스토어는 전시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팝업스토어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했다. 그 결과물이 푸드 트럭이다. 노티드 매장 자체를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매장 환경은 달라졌지만 시민들에게 매장 똑같은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푸드 트럭을 꾸몄다. 푸드 트럭은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폐기하는 매장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서도 매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ESG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노티드는 푸드 트럭뿐 아니라 부스도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재사용이 가능한 빌드웰러를 일부 매장에 적용했다.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접객업에서 적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 이외에도 노티드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패키지에 잉크부터 종이까지 모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며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언제 어디에서나 노티드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유의 감성을 담은 푸드 트럭으로 <서울디자인 2023>을 찾는다. 사랑이 담긴 이곳에서 도넛과 함께 즐겁고 달콤한 순간을 나누고자 한다.



지속가능성을 체득한다는 것 러쉬코리아



원재료의 씨앗이 싹을 틔워
자연을 해치지 않고 사람을 위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쓰인 뒤 무해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시작과 끝을
지나 다시 시작되기까지
러쉬코리아가 지향하는
지속가능성은 계속된다.

기업 전시 & 팝업

<서울디자인 2023>에서의 러쉬코리아 친환경 가치를 전달하고자 하는 러쉬코리아는 100% 재사용, 재활용이 가능한 '블랙 팻'과 '낫랩(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천 포장재)'으로 만든 작품을 전시하며 사람과 동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브랜드 가치를 전달한다. '자원순환'을 테마로 러쉬코리아가 추구하는 자원순환과 지속가능성에 대해 쉽고 재미있는 디자인 요소를 더해 표현했다. '리토의 리제너레이션 팜'이라는 이름으로 버려지는 패블라이트 폐자재를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 토끼 '리토'가 자원순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러쉬코리아의 가치 있는 동행 러쉬코리아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꿈꾼다. 매년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는 캠페인을 전개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무겁지 않게 전달한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가족과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다양한 이벤트로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이고자 한다.

ESG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러쉬코리아가 정의하는 ESG는 ESG의 궁극적 목적인 조화로운 상생을 비즈니스의 전 과정에서 실천하는 것이다. 원재료의 씨앗을 땅에 심는 순간부터 제품 용기를 회수해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과정, 나아가 고객에게 환경파괴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를 막는 행위에 동참하도록 이끌며 변화를 주도하는 활동을 통해 ESG를 실천한다. ESG는 특정한 누군가의 숙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가치다. 러쉬코리아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ESG를 실천하는 것이 조직에 내재화되어 있다.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ESG 성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을 트레이닝하고 자발적 노력을 이끌어냄으로써 조직문화에 ESG가 체화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고객 및 관련 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펼치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시민과 함께 숨은보물찾기를 콘셉트로 한 이벤트에 참여하며 6가지 자원순환 키워드를 꼭 마음에 새기기를 바란다. 리토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사진을 찍으며 어린아이들도 재활용과 재사용의 가치를 깨닫기를 기대한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들이 건강한 커뮤니티를 이루고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것. 맹그로브는 동행을 통해 살아가는 동안 직면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의 맹그로브 맹그로브는 다양한 사람들이 건강한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이끄는 코리빙 하우스 브랜드다. 한 지붕 아래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감각과 다채로운 경험, 즐거운 교류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커뮤니티'를 품고자 한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는 맹그로브가 그리는 커뮤니티를 모티프로 같은 공간에 함께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다양한 교류의 양상을 '맹그로브 놀이터'라는 콘셉트에 담았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그룹, 개개인의 공존 등 다양한 관계의 모양을 각각의 놀이 기구로 표현해 맹그로브가 그리는 유쾌한 코리빙 라이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맹그로브의 가치 있는 동행 맹그로브는 동명의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를 모티프로 한다. 다양한 동식물의 보금자리가 되어주면서 존재 자체로 지구온난화를 막아주는 고마운 나무다. 여러 생명체를 너그럽게 품는 맹그로브나무처럼 개성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코리빙 하우스에 모여 조화롭게 성장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모여라! 맹그로브 놀이터'를 방문한 사람들은 각각의 놀이 기구를 체험하며 의도했던 그렇지 않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마주치게 된다. 놀이터라는 공간에서 저마다 어떤 방식으로 놀이 기구를 즐기는지 관찰하고 교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혼자일 때 혹은 누군가와 함께할 때 즐기는 방식과 경험이 달라진다는 것을 체험으로 느낄 수 있다.

ESG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MRGV는 '부동산을 매개로 어떤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서 출발한 기업이다. ESG가 포괄하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이 세 가지 주제 가운데 '사회'에 방점을 찍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을 시작한 셈이다. MRGV는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사회 이슈로 인식하고 사업 주제로 정한다. 첫 사업은 청년들을 위한 코리빙 하우스 맹그로브로 도심에서 1인가구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대안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로 마주하는 사회문제에 주목해 솔루션의 경계를 확장해 갈 것이며, 더 나은 대안 공간을 개발해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

시민과 함께 맹그로브 놀이터는 찾는 시민이 없으면 완성될 수 없는 공간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과 교류를 놀이터라는 콘셉트로 표현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각각의 놀이 기구는 서로 다른 양상을 띠는 만남과 교류를 상징한다. 예를 들어 전시 공간 한편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흔들 목마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지만 가까이 마주 앉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추억을 쌓을 수도 있다. 돌이 아니라 넷이 모여야 완성되는 모임 시소, 가운데에는 한 명이 오를 때마다 전체가 술렁대는, 가장 많은 사람이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널따란 공기 마루도 있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혼자 또는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기구를 체험하며 다양한 사람이 건강한 커뮤니티 안에서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성장하기를 꿈꾸는 맹그로브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란다.



농촌에서 찾는 가치 고창군 × 상하농원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 모델인
고창군의 상하농원에서는
미래를 위한 해법을
동행에서 찾을 수 있다.



기업 전시 & 팝업

<서울디자인 2023>에서의 고창군 × 상하농원

상하농원은 고창과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드러내기 위해 지역과 기업의 상생 구도와 자연에서 오는 건강함을 알릴 수 있도록 전시 부스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 고창군과 상하농원이 함께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농촌 먹거리를 알리는 브랜드 홍보관, 자연이 주는 건강한 먹거리를 맛볼 수 있는 시식관, 이렇게 두 곳으로 나눠 구성했다.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계절을 거스르지 않는 농촌의 가치를 담은 건강에 이로운 먹거리를 직접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청년 농부들이 도시에 건강한 먹거리를 알리기 위해 떠나는 여행길이라는 스토리를 설정하고, '상하농부의 도시 유랑'이라는 콘셉트로 부스를 운영한다.

고창군 × 상하농원의 가치 있는 동행 농업이 노동에 그치지 않고 가공과 유통, 서비스 그리고 관광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으며, 고창과 동행하는 상하농원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는 기업임을 전달하고자 했다. 부스에서 선보이는 모든 제품은 미네랄을 비롯해 영양분이 풍부한 고창의 황토에서 재배돼 직접 가공한 것이다. 행정구역 전체가 생물관보전지역인 고창에서 키운 건강한 재료로 상하농원 공방장들이 자연을 담아 제품을 빚어냈다. <서울디자인 2023>을 통해 이 제품에 담긴 진정성을 전하고 싶다.

ESG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상하농원은 단순히 투자로 유지되는 기업이 아니다. 기업과 정부, 지자체가 하나로 뭉쳐 만들어낸 상생 모델의 성공 사례로 농촌과 산업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테마파크다. 또 ESG 경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한 사례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공간과 제품, 콘텐츠로 고창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상생의 가치를 실현한다. 또 방문객이 특히 많이 이용하는 시설 중 하나인 식음 매장에서 생분해성 재활용 소재 컵을 사용하거나 수거한 재활용 컵을 세척해 리사이클 화분을 만드는 방법을 홍보하며 어린이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다. 테마공원은 자원의 선순환구조인 '오가닉 서클'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친환경 교육 공간이기도 하다. 훌륭한 환경에서 유기농 사료를 먹고 자란 젖소의 분뇨와 매일유업 계열사인 커피 전문점 풀바셋에서 나오는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 발효 퇴비를 만들고, 이 퇴비로 젖소들에게 먹일 건강한 풀이 자라는 초지를 가꾼다. ESG 경영을 위한 상하농원의 노력은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재 테마공원 부지에 3만여 평 약 9만9000㎡의 숲 테마 정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내년 6월 공사가 끝나는 '상하의 숲'은 탄소 저감에 기여하며 지역 주민은 물론 도시 생활자들에게도 '자연과 하나 되는 숲속 힐링'을 선사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시민과 함께 시민들과 환경과 먹거리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 먹거리가 재배돼 식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을 공유하며 시민들이 먹거리에 대해 어떤 걱정을 하고 있는지 듣고자 한다. 또 기회가 된다면 각 분야의 실력 있는 전문가들과 서로 배우고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싶다.



모두를 위한 욕실 새턴바스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것.
새턴바스는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지금, 살던 집에서
건강히 나이 들어가는 방법을
모색한다.

기업 전시 & 팝업

<서울디자인 2023>에서의 새턴바스 새턴바스는 지난 34년간 욕조 제조 분야에서 노하우를 쌓아왔으며 지금은 모듈형 욕실도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 욕실 문화의 선구자로서 이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자체별로 설치 가능한 모듈형 이동식 목욕탕을 제안한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대중목욕탕의 수가 줄어든 노인이나 중장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듈형 이동식 목욕탕을 통해 약자와 동행하고, 고령화사회에서 노약자 복지를 실현하는 방안을 보여주고자 했다. 완벽한 방수 시스템에 스팀 사우나도 가능하며, 효과적인 급수 시스템을 갖춘 첨단 설비를 적용한 미래 욕실을 구현했다.

새턴바스의 가치 있는 동행 사회적 소외계층 역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씻을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이런 기능을 수행하던 대중목욕탕의 수가 충분하지 않은 지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듈형 이동식 목욕탕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새턴바스 부스에서 선보인 모듈러 미니 목욕탕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우선 필요할 때만 에너지를 사용하는 순간 온수 기능을 갖춰 기존 방식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60% 이상 줄일 수 있다. 스팀 사우나 역시 3분 만에 실내 온도가 48°C에 도달하기 때문에 사우나를 효율적으로 즐길 수 있다. 또 목욕물은 리사이클링 시스템으로 정수해 기존 방식 대비 90% 이상 절약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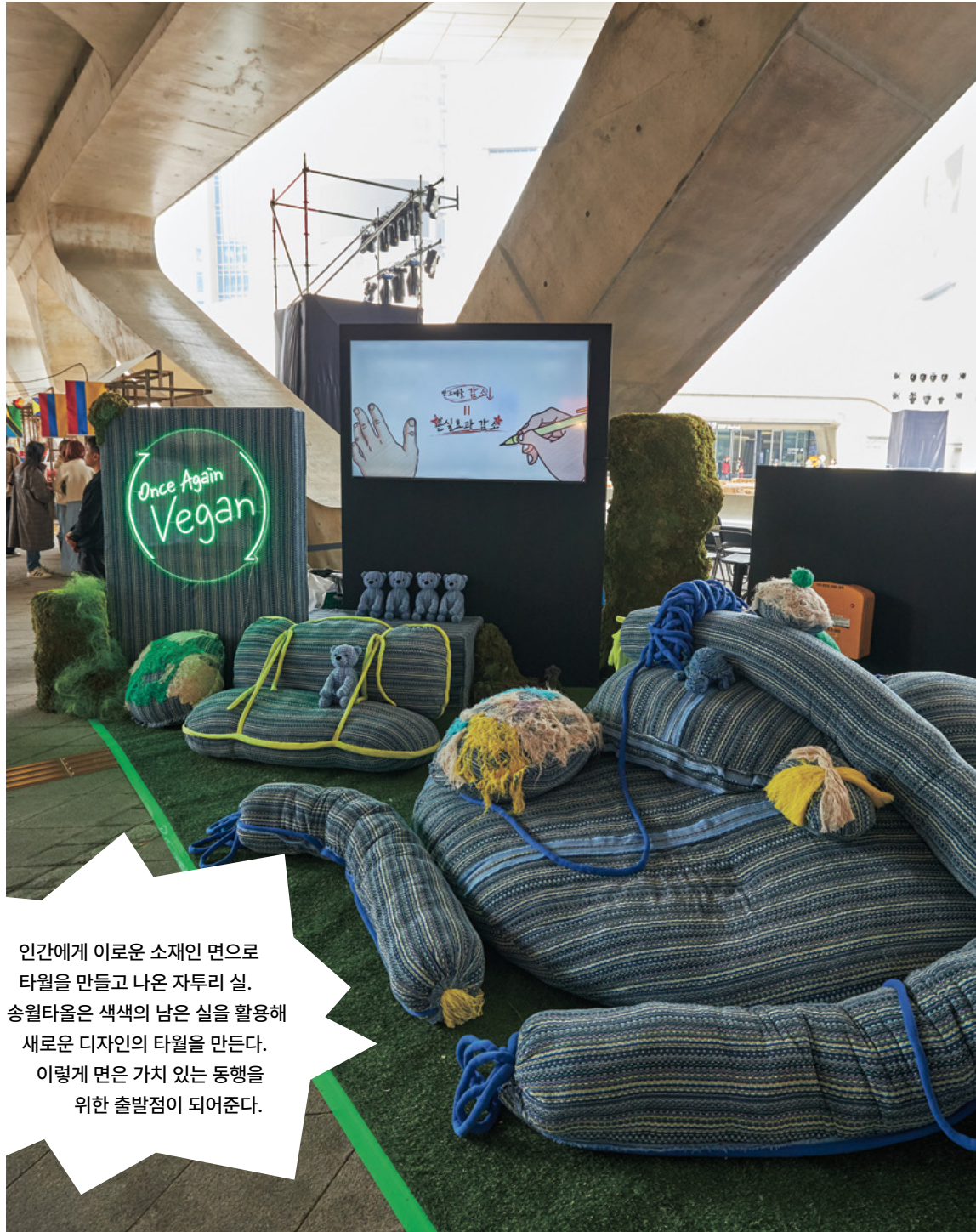


ESG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1990년에 창업한 새턴바스는 국내 최초로 아파트 욕실 제품 대부분을 개발해 공급했다. 지금은 개별 제품이 아니라 욕실을 모듈형으로 제작해 납품할 만큼 큰 발전을 이뤘다. 초고령사회, 백세시대에 진입한 지금 새턴바스는 아파트 욕실을 개선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Aging in Place)'를 선도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노인층의 낙상 사고가 대부분 침실과 욕실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에 착안해 고령자가 살던 집에서 보다 쾌적하게 지낼 수 있는 방안을 반영한 욕실을 개발하는 것이 새턴바스가 지향하는 지속가능성이다.

시민과 함께 <서울디자인 2023>에서 많은 시민과 창의적 상호작용을 하며 제품이나 서비스 과정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고 수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시민은 모듈형 이동식 목욕탕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 활용 방법을 경험하고 새턴바스를 더 깊이 이해하고 즐길 것이다.



면에서 찾는 해법 송월타올



인간에게 이로운 소재인 면으로 타월을 만들고 나온 자투리 실. 송월타올은 색색의 남은 실을 활용해 새로운 디자인의 타월을 만든다. 이렇게 면은 가치 있는 동행을 위한 출발점이 되어준다.

기업 전시 & 팝업

<서울디자인 2023>에서의 송월타올 송월타올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탄소 발생량이 일반 실의 3분의 1 수준인 코마사 100% 원사로 상품을 만든다. <서울디자인 2023> 기업 전시에서는 생산과정에서 남은 실로 만든 대형 쿠션을 다수 비치해 타월의 물성과 실의 색채를 살펴볼 수 있는 휴게 공간을 조성한다. 자투리 실을 활용한 전시의 시작점은 우리가 평소 입고 사용하는 제품의 원단 소재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수건 하면 송월타올을 떠올릴 만큼 타월은 송월타올의 핵심 제품이다. 타월의 원재료는 면화로 완전한 비건이기도 하다. 이런 맥락에서 타월에 ESG 중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싶었다. 송월타올의 국내 공장에서만 하루에 18여 톤에 달하는 타월을 제조하며 그만큼 버려지는 실의 양도 많다. 각각 다른 색으로 염색한 자투리 실을 모아 타월을 만들면 알록달록한 색상의 니트처럼 색다른 디자인의 타월을 만들 수 있다. 송월타올은 그동안 남은 실을 활용해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고, 이런 고민 끝에 '리사이클'의 '비건'이라는 키워드와 '원스 어겐 비건(Once Again, Vegan)'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도출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섬유 제품을 소비할 때 제품의 원재료와 과도한 폴리에스테르 소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송월타올의 가치 있는 동행 인간의 공감각은 감각을 매개로 어떤 대상과 교감할 때 인간이 받아들이는 인지를 말한다. 송월타올은 오감 중 타월을 만지고 싶은 촉감을 자극하며 시민들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촉감을 통해 '원스 어겐 비건'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

ESG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ESG의 기본 개념에 이윤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기업이 정의하는 ESG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치를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라는 3가지 항목으로 묶어놓은 것이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윤 창출이며 기업에 이윤이 없다면 ESG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이윤이 있어야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설비투자가 가능하고, 직원들에게 더 안전한 직장을 제공할 수 있으며, 재투자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고객을 더 만족시키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이런 이윤을 기반으로 한 ESG 경영은 지속가능한 경영에 도움이 된다. 지속가능한 기업은 ESG라는 가치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이윤을 창출해 낼 것이다.

시민과 함께 올해 창립 74주년을 맞이한 송월타올은 동반성장을 경영의 중심에 두고 있다. 전국 180여 개 대리점, 직원과 맺은 관계를 기업의 동력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대리점과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기 위해 국내외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열고, 2021년에는 노사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할 만큼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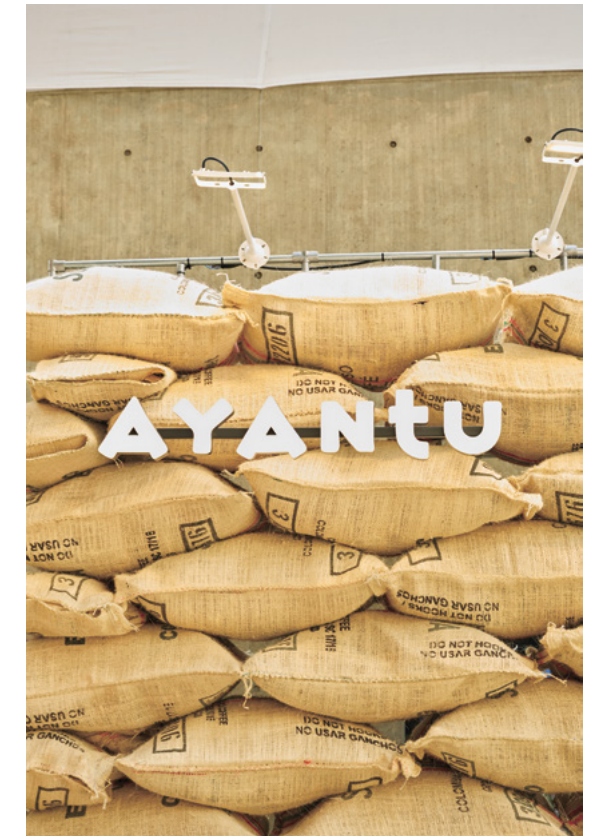
아프리카 농부의 땀과 노력으로
기른 커피 원두가 아프리카의 빛이
되어 어린이들을 꿈꾸게 한다.
아얀투는 커피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아프리카에 빛을 선사하는
프로젝트에 쓰는 가치소비를
통해 가치 있는 동행을
실현한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의 아얀투 해당 국가의 최고 커피에 수여하는 '컵 오브 엑셀런스 Cup of Excellence'에서 1위를 수상한 에티오피아 유명 커피 농장인 물루게타 문타샤 Mulugeta Muntasha의 커피를 소개한다. 톱 스페셜티 커피를 경험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아얀투는 에티오피아와 직거래하며 원두, 캡슐, 드립백, 콜드브루 등으로 상품화해 소개하고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 부스 뒤쪽 벽을 커피를 담은 마대를 활용해 만들었다. 전시 부스 콘셉트를 정할 때 아얀투를 잘 표현하고, 부스를 찾은 시민들이 아얀투 부스를 흥미롭게 생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얀투의 가치 있는 동행 버려지는 커피 마대를 활용해 부스 벽을 구성해 ESG 요소를 전달했다. 또 아얀투의 커피를 솔라카우 Solar Cow 프로젝트와 연계해 설명하며 일상에서 탄소 배출 감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ESG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요크YOLK는 ESG를 '함께하는 노력의 대명사'라고 정의한다. 아얀투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요크는 아프리카 지역 학교에 태양광 패널이 달린 작은 조형물을 설치해 태양광에너지로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학생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하는 솔라카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타임> 선정 최고의 발명품과 CES 혁신상(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술)에 선정됐을 만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얀투의 커피 매출액 중 10%는 솔라카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한다. 한잔의 커피가 에티오피아 농장에 하루를 지낼 불빛이 되어주는 셈이다. '원 컵, 원 라이트 One Cup, One Light' 캠페인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여러모로 특별한 커피 한잔을 시민들과 즐기고 싶다. 아얀투 부스를 찾는 분들에게는 에티오피아 컵 오브 엑셀런스에서 1위를 한 물루게타 문타샤 레계제 농부의 커피(1kg에 120만원에 낙찰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커피)를 무료로 시음할 기회를 제공한다. 아얀투의 커피는 아프리카에서 빛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통을 통한 가치 전달 SK이노베이션 × 국민대학교

ESG 경영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보여주는 SK이노베이션. 국민대학교와 함께한 전시를 통해 환경오염의 불편한 진실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다각도로 전한다.



기업 전시 & 팝업

<서울디자인 2023>에서의 SK이노베이션 × 국민대학교
SK이노베이션과 국민대학교는 함께 <Green디자인展>에 출품한 젊은 학도들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구성한다. 전시장은 페플라스틱으로 제작한 팔레트를 활용해 탄소 장막으로 형성된 미로를 표현하고, 그 가운데 청년들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해법을 디자인으로 제시한다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전시장 입구에서 만날 수 있는 '행코 슈퍼사인'은 SK이노베이션의 친환경 캐릭터 '행코'를 대형 공기 조형물로 표현한 작품으로 행코 옆에 위치한 돔 형태의 조형물은 탄소 풀러렌 Fullerene 구조와 유사한 2.4m 높이의 프레임 형태로 제작해 탄소화한 지구를 표현한다. 행코를 활용해 제작한 보드게임과 캐릭터 디자인 등 아기자기하고 매력적인 작품들과 여러 동물을 캐릭터화해 제작한 행코의 새로운 친구들 '코코코'는 다양한 분야의 환경문제를 조명하며 보다 진보한 연대 의식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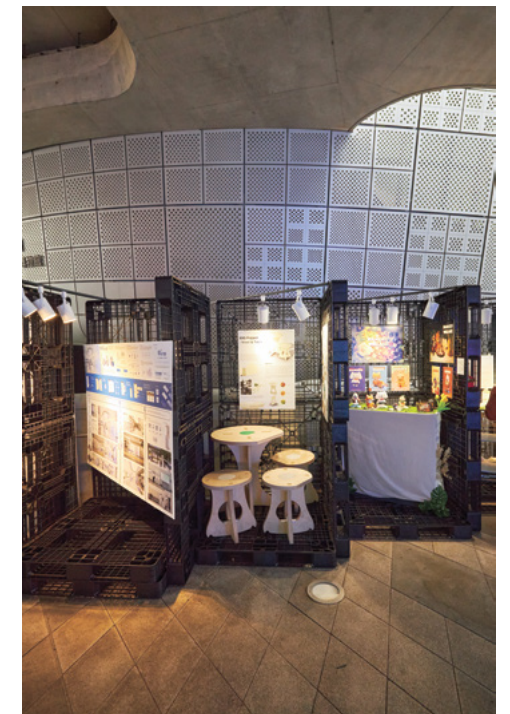
SK이노베이션×국민대학교의 가치 있는 동행

SK이노베이션은 '그린 에너지·소재 기업'을 목표로 ESG 경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국민대학교와 함께 추진한 <Green디자인展>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활동을 친숙하게 전달하기 위한 다양한 디자인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 전시를 통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 페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소재로 구성된 SK이노베이션 파이낸셜 스토리인 '카본 투 그린 Carbon to Green'과 연계해 디지털아트, 도예, 조형물, 캐릭터, 타이포그래피 등으로 다채롭게 표현한 작품이 탄생했다.

ESG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SK이노베이션은 ESG에 대해 E는 사람과 자연의 관계, S는 사람 그 자체, G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고 정의한다. ESG도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다. 이와 동시에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중대한 가치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디자인 2023>에서 '애기 코끼리'의 준말인 '애코'라는 이름을 붙인 키 링을 제작했다. 환경을 의미하는 'eco'와 메아리를 뜻하는 'echo'라는 의미도 담아 시민들이 일상에서 아기 코끼리를 떠올리고

그들의 터전인 지구를 보호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끈다. 이와 함께 '불편한 의자'도 선보이는데, 바다에 폐기된 페어망과 재활용 가능한 합판으로 만든 이 의자에는 환경오염에 대해 늘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SK이노베이션은 경영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ESG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 시장과 이해관계자에게 그 가치를 전달하며 소통하고자 노력한다.

시민과 함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연구의 결과와 실천이 필요하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는 무엇보다 플라스틱의 라이프사이클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전한다.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국가가 이미 프레셔스 플라스틱 Precious Plastic 운동 등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바탕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산학 협력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와 전시를 계기로 모든 이의 마음에 '친환경'이라는 단어가 새겨지기를 바란다.





쓸모를 다한 것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내재한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MCM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의 MCM MCM은 그동안 다양한 예술 분야와 콜라보레이션을 시도하며 패션을 넘어서는 가치를 실현해 왔다. <프리즈 서울> 기간에 MCM HAUS에서 개최한 전시의 규모를 축소해 <서울디자인 2023>으로 옮겨 예술과 브랜드의 만남을 보여준다. 이번 전시를 위해 MCM과 협업한 잉카 일로리 Yinka Ilori는 런던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나이지리아계 영국인 디자이너이자 작가로 아프리카의 감각적인 예술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건축과 공간 프로젝트에 참여해 이름을 알리며 전 세계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작가는 특히 유쾌하면서도 도발적인 디자인으로 관객에게 긍정적인 메시지와 즐거움을 전달한다. '공감과 상상'이 주제인 이번 전시는 잉카 일로리의 재해석을 통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 의자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다.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전하는 잉카 일로리는 글로벌 시대정신을 앞서가는 MCM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예정이다.

MCM의 가치 있는 동행 'There Is Good in All of Us'라는 테마 아래 MCM의 업사이클 프로젝트와 연계한 공간으로 잉카 일로리가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제작한 MCM 의자 컬렉션을 공개한다. 런던에서 수집한 버려진 의자가 MCM의 비세토스 패턴을 입고 재탄생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당 컬렉션에 내장된 만화경은 관람객이 발걸음을 멈추고 작품을 관찰하도록 유도하는데, 작품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다채로운 무늬와 색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각자 지닌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관심이 필요하며 그 아름다움은 표면적인 판단 너머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SG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MCM은 이전부터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쓸모를 다한 것에 새로운 쓸모를 부여하며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또 제품 생산 시에도

'시즌리스 seasonless'를 지향하며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버려지는 것이나 쓸모를 다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에 관심이라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MCM이 정의하는 ESG는 성별, 시즌, 문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실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 모두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친환경 소재 개발 및 사용, 윤리적 소재 사용, 시즌에 국한되지 않는 상품 개발을 통해 버려지지 않는 상품을 만들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똑똑한 가치, 스마트한 럭셔리를 공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활동을 인정받아 포지티브 럭셔리에서 지속가능성에 헌신하는 기업에 수여하는 인증으로, ESG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는 3가지 원칙을 다루는 엄격한 평가 과정을 거치는 '버터플라이 마크'를 획득했다. 윤리적 패션 사업을 전개하는 이외에도 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진행하며 ESG 가치를 실현하고 공유하고자 노력한다.

시민과 함께 버려지는 것이 새로운 생각을 통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재탄생해 무한한 가치를 가진 작품이 되었다. 생각의 한계를 허물면 그 어떤 것도 한계 없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작품을 통해 느끼기를 바라며, 다양한 활동으로 패션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스마트한 럭셔리로 소통하는 MCM의 새로운 면을 생각하는 전시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싶다.



집에 담아내는 삶 이케아코리아



자신의 필요에 맞게 가구를
조립한다는 것은 집에 각자의
취향과 애정이 깃들도록 하는 일이다.
이케아는 자신의 삶을 집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이끈다.

기업 전시 & 팝업

<서울디자인 2023>에서의 이케아코리아 이케아코리아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소비와 삶을 기업 전시에 담았다. 길어지는 경기침체로 많은 소비자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요즘, 가성비 이상의 의미와 가치에 투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망하고 그들의 생각을 이케아코리아 제품과 함께 보여주며, 이케아코리아가 생각하는 가치소비와 이를 실현하는 삶을 홈 퍼니싱으로 전달한다. 기업 전시를 찾은 시민들이 공간에 녹아든 가치관에서 영감을 받아 이케아코리아와 함께하는 가치 있는 소비를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케아코리아의 가치 있는 동행 기업 전시를 통해 막연하게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성에 쉽고 친근하게 접근하려고 했다.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만으로도 지속가능한 삶과 지구를 지키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넘어 내 삶을 정돈하고, 각자의 개성을 담아 새롭게 재창조하고, 조금은 손이 더 가지만 플랫 팩(납작한 상자에 부품을 넣어 파는 조립 가구) 제품을 스스로 조립하면서 제품에 더욱 애착을 갖는 일상의 행동이 자연스럽게 지속가능한 삶과 연결되는 것이다.

ESG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이케아코리아는 '많은 사람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생활이 더 나은 일상을 만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케아코리아는 ESG를 위한 가치를 '사람과 지구에 친화적인 전략(People and Planet Positive)'이라고 말한다. 이 전략을 기반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Healthy & Sustainable Living, 자원순환 지원과 기후변화 대응(Circular & Climate Positive),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Fair & Equal)라는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이케아코리아 전 매장에서 중고 제품을 판매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영감을 제공하며 제품 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자원순환 허브'와 중고 이케아코리아 가구를 매입해 다시 판매하는 '바이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집에서 영위하는 지속가능한 생활에 영감을 주고, 함께 지속가능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다양한 홈 퍼니싱 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속가능 리빙쇼'도 운영 중이다. 이 외에도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가구 배송 차량을 무공해차로 전환하고, 전 매장에서 태양광 패널과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시민과 함께 기업 전시는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브랜드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꾸렸다. 자신의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게 구성을 달리할 수 있고, DIY 과정을 더해 개성을 표현할 수도 있다. 어떻게 사용할지는 소비자의 상상력에 달려 있다. 홈 퍼니싱이란 '집에 나의 삶을 담아낸다'는 생각으로 이케아코리아가 전하는 메시지를 읽어내면 좋겠다. 그리고 자신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상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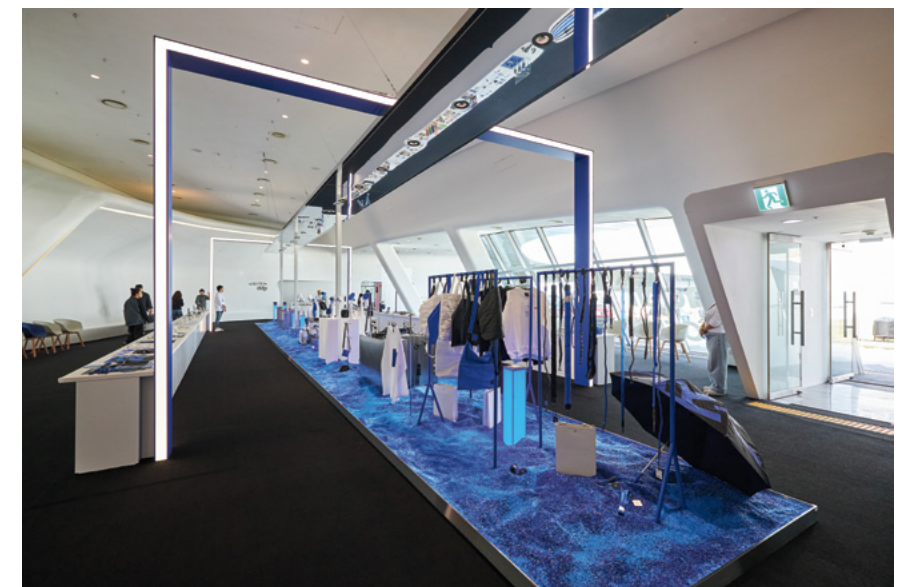
모빌리티를 넘어 라이프스타일로 향하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 현대자동차가 런웨이 위에 가치 있는 동행을 위한 솔루션을 담았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의 현대자동차 '현대 컬렉션 Hyundai Collection'은 '인류를 위한 진보 Progress for Humanity'라는 현대자동차의 브랜드 비전 아래 모두가 일상에서 모빌리티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서울디자인 2023>의 현대자동차 부스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지속가능성의 가치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넘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로 확장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현대 컬렉션의 라이프스타일 제품을 주인공으로 전시를 구성했다. 현대자동차의 시작점인 자동차 '포니'에서 영감을 받은 헤리티지 컬렉션부터 자동차 폐자재를 패셔너블하게 풀어낸 Re:Style 컬렉션까지 현대 컬렉션의 다양한 아이템이 런웨이에 오른 콘셉트로 꾸며졌다.

현대자동차의 가치 있는 동행 현대자동차는 라이프스타일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현대 컬렉션이라는 브랜드는 단순히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제품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소재와 디자인 솔루션을 적용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소재를 활용해 런웨이를 콘셉트로 부스를 구성하고 양옆에는 디자인 솔루션을 찾기 위한 과정을 함께 전시해 지속가능을 위해 추구하는 진정성을 전달하려고 했다.

ESG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서울디자인 2023>에서 소개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현대 컬렉션 외에도 자동차 폐자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패션 캠페인 Re:Style, 지속가능한 혁신적 미래 사회 조성을 위해 UNDP 유엔개발계획과 함께 전개하는 'For Tomorrow'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넘어 다양한 지속가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현대자동차의 여정은 과거부터 계속돼 미래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과 함께 현대자동차는 브랜드의 시작부터 '사람'을 중심에 두었다. 창업주인 정주영 선대 회장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위에 도로를 재건하고 그 도로를 달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 1967년 현대자동차를 설립했다. 이는 모든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하겠다는 비전이자 존재 이유가 되었다.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모빌리티를 만드는 것은 현대자동차의 변함없는 약속이자 지향점으로 소비자에게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인간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가치를 전달하고자 한다.



작은 플라스틱이 모여 이루는 미래 플라스틱 방앗간

플라스틱 방앗간은 손바닥보다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들어 돌려준다. 플라스틱이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0여 년이지만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해지면 플라스틱으로부터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기업 전시 & 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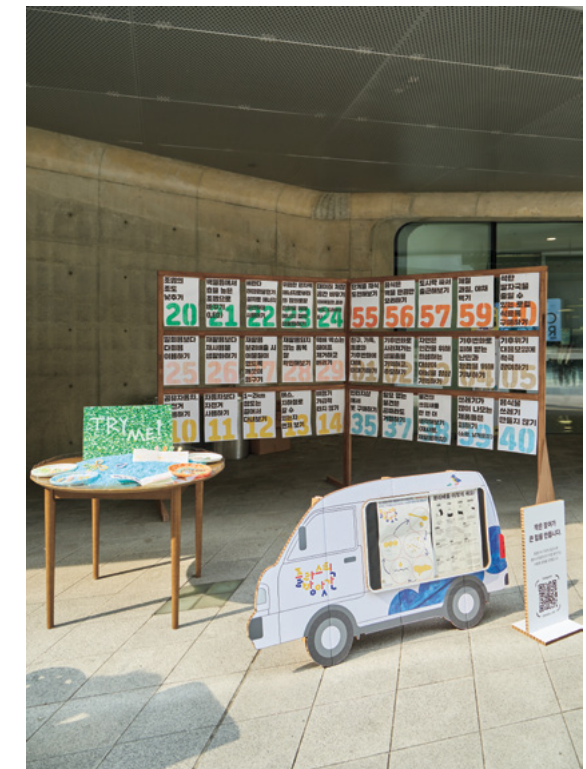
<서울디자인 2023>에서의 플라스틱 방앗간 프레시스 플라스틱은 오픈소스로 공개된 도면을 활용해 플라스틱 가공 계기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폐플라스틱의 업사이클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글로벌 커뮤니티. 프레시스 플라스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내 플라스틱 작업 공간이 확산되도록 돕고 있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참새클럽 캠페인'을 진행한다. 재활용되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 위주로 시민들과 함께 모으고 이를 업사이클 리워드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2023년부터 운영하는 이동형 플라스틱 방앗간은 어디에서나 시민 참여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는 곳이다.

플라스틱 방앗간의 가치 있는 동행 현재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1억5000만 톤에 달하고 매년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900만 톤이며 플라스틱 쓰레기가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은 500년이 넘는다. 분리배출을 엄격히 하더라도 재활용이 어려운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은 또 다른 문제로 이어진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는 플라스틱이 재활용되기까지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보여주고, 더 나아가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재미있게 전달하려고 한다.



ESG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 플라스틱 방앗간을 운영하는 서울환경연합은 비영리단체로 생태, 기후, 자원과의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순히 병뚜껑에만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생태를 조성해 지속가능성을 실현해야 한다. 무분별한 착취와 고통으로 이어지는 생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독려한다.

시민과 함께 플라스틱 방앗간의 의미 있는 활동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하기를 바란다. 참여하는 시민 모두 환경을 위한 모든 활동이 재미있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면 한다.



Corporate Exhibits & Pop-Ups

Promine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ESG companies will arrange promotional pavilions and corporate pop-up exhibitions to communicate their positive social values and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with the public. Additionally, diverse civic engagement events will be organized to inspire more individuals to participate in the cause.

Event Name	Corporate Exhibition & Pop-up
Date	October 24, 2023 — November 2, 2023
Event Location	Oulim Square, The Eight Junction
Event Content	12 collaborating companies
Website	seoul-design.or.kr

Revitalizing Stores Instead of Abandoning Them

Knotted

Beyond being a dessert cafe offering a range of baked goods, cakes, and donuts, Knotted aspires to evolve into a comprehensive food and lifestyle brand, delivering diverse emotional content and experiences. Unveiled during 'Seoul Design 2023', the Knotted Truck promises a distinctive encounter with a unique charm distinct from the brick-and-mortar store. Aligned with the theme of 'Valuable Life,' they selected 'reuse' as the keyword and the primary concept for the Knotted Truck. Recognizing the pop-up store's limited duration during the exhibition, their focus was on operating it in an eco-friendly manner. The result is the food truck itself. The Knotted store, designed with reusability in mind, extends its ethos to the food truck, creating a similar ambiance in a different setting. Moreover, the food truck is adaptable for use as a store in various spaces, transcending its role as a temporary, disposable establishment.

Cultivating Sustainability

Lush Korea

Lush Korea at 'Seoul Design 2023'

Lush Korea, dedicated to promoting its eco-friendly values, showcased 'black pots' that are 100% reusable and recyclable, alongside artworks crafted from discarded windows. This exhibition serves to communicate the brand's commitment to fostering harmony among people, animals, and nature. Under the theme of 'Resource Circulation,' LUSH's dedication to resource sustainability is expressed through engaging and playful design elements. The presence of Retto, a recycled rabbit fashioned from fab-lite materials under the name "Retto's Regeneration Farm," narrates a compelling story of recycling. Lush Korea envisions a world where humans, animals, and the environment coexist harmoniously. Annually, the company reinforces this message through diverse campaign activities. At 'Seoul Design 2023', the campaign takes a lighthearted approach to narrate the story of 'living together.' Active encouragement for citizen participation aims to create an enjoyable and empathetic experience for families, enhancing engagement through various events.

Finding yourself through exchange and coexistence

Mangrove

Diverse individuals with distinct personalities come together to shape a thriving community within which they find their place. Mangrove firmly believes that by fostering unity and togetherness, many of life's challenges can be effectively addressed.

Mangrove at 'Seoul Design 2023'

Mangrove, a pioneering co-living house brand, leads diverse individuals on a journey of self-discovery and growth within a healthy community. It strives to foster a robust 'community' grounded in the essence of communal living, diverse experiences, and joyful exchanges. In 'Seoul Design 2023', the 'Mangrove Playground' concept encapsulates the multifaceted interactions inherent in shared living spaces, drawing inspiration from the mangrove's symbolic representation of community. The space is curated to allow visitors to immerse themselves in the delightful co-living experience depicted by mangroves, portraying various relationships such as individual to individual, individual to group, and individual coexistence through playground equipment. Mangrove' is a motif of a tree that grows in the tropical region of the same name. It is a grateful tree that provides a home for various plants and animals and prevents global warming by its very existence. They wanted to tell the story of people with different personalities coming together in a co-living house and growing harmoniously, just like the mangrove tree that generously embraces all

The Value Found in Rural Areas

Gochang County x Sangha Farm

At Sangha Farm, a symbiotic model created by the collaboration of enterprises,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in Gochang County, one can discover solutions for the future through shared efforts. Sangha Farm maintain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Gochang. To showcase this connection, an exhibition booth was designed to highlight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the region and the enterprise, as well as the healthiness derived from nature. For this purpose, a brand promotion section was established to introduce sustainable rural food promoted by Gochang region and Sangha Farm,

a tasting section where visitors can experience the healthy food provided by nature. These two sections were set up to not only present food but also to directly convey the healthful food embodying the enduring values of rural life throughout the seasons. To achieve this, a storyline was created featuring young farmers embarking on a journey to the city to promote healthy food. Operating under the concept of 'Sangha Farmers' Urban Wanderings,' the booth aims to convey the healthful essence of rural life.

kinds of life. A Bathroom for All

Saturn Bath

Saturn Bath, with a legacy of 34 years in bathtub manufacturing, has evolved to produce modular bathrooms. As a key player in Korea's bathroom culture, they responsibly contribute to its development, presenting modular mobile baths designed for installation by local governments. In response to the dwindling number of public baths due to the pandemic, the showcase highlights how modular mobile baths can support the vulnerable and contribute to the welfare of the elderly in an aging society. The futuristic bathroom is entirely waterproof, featuring a steam sauna and equipped with high-tech facilities boasting an efficient water supply system. The modular mini bathrooms at the Saturn Bath booth are designed with energy conservation in mind. Incorporating instantaneous hot water, they operate on-demand, reducing energy consumption by over 60%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s. The steam sauna reaches a room temperature of 48°C in three minutes, providing an efficient way to enjoy a sauna experience. Additionally, the bathwater undergoes purification through a recycling system, saving over 90% of water compared to conventional methods.

Corporate Exhibits & Pop-Ups

The Cotton Solution

Songwol Towel

In its commitment to reducing carbon emissions, Songwol Towel employs 100% combed yarn, significantly diminishing the carbon footprint compared to regular yarn. At 'Seoul Design 2023', the company's exhibition will showcase large cushions crafted from leftover yarn, creating a space for visitors to explore the unique properties of the towel and the vibrant colors of the yarn. This exhibition, featuring yarn remnants, prompts contemplation about the fabric materials in our everyday products. When many people think of towels, they think of Songwol towels. Towels, the core product of Songwol, are crafted from cotton, which is also completely vegan. The company seeks to convey an environmental message within its ESG initiatives. With over 18 tons of towels produced daily in domestic factories, the accumulation of leftover yarn is considerable. By utilizing these remnants, dyed in various colors, Songwol creates towels with diverse designs such as colorful knits, promoting sustainable practices with the key message of 'Once Again, Vegan.' The aim is to inspire reflection on the origins of textile products and counteract excessive polyester consumption.

Light from a Cup of Coffee

Ayantu

Ayantu introduces coffee from Mulugeta Muntasha, a prestigious Ethiopian coffee farm honored with the first place in the Cup of Excellence, recognizing the country's finest coffee. Offering a rare chance to savor top-tier coffee, Ayantu collaborates directly with Ethiopia, presenting its coffee in beans, capsules, drip bags, and cold brew. When conceptualizing the booth, they focused on representing Ayantu well and making the booth interesting to visitors.

The booth's back wall, crafted from discarded coffee sacks, communicates the ESG values of the brand. Additionally, Ayantu aligns its coffee with the Solar Cow project, illustrating how individuals can reduce carbon emissions in their daily lives.

Value Delivery Through Communication

SK Innovation x Kookmin University

SK Innovation demonstrates a diverse range of activities for ESG management. Through a collaborative exhibition with Kookmin University, they aim to present the inconvenient truth of environmental pollution to a wider audienc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of young students exhibited at the "Happy Green Exhibition," SK Innovation and Kookmin University collectively structure the overall content. The exhibition venue portrays a maze formed by a carbon curtain, utilizing pallets made from recycled plastics. In the midst of this maze, young individuals present new ideas and solutions for environmental problem-solving through design. The "Hanko Super Sign," located at the entrance of the exhibition, is a large air sculpture representing SK Innovation's eco-friendly character, 'Hanko.' Adjacent to Hanko is a dome-shaped sculpture, 2.4 meters in height, designed to resemble a carbonized Earth with a fullerene structure. Using Hanko as inspiration, various charming works, including board games and character designs, are showcased. Additionally, new friends of Hanko, called 'Cococo,' are introduced as characters representing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across different fields, demonstrating an advanced sense of solidarity and awareness.

The Meaning of Smart Luxury

MCM

MCM, dedicated to values transcending fashion, collaborates with various artistic fields. Originally showcased at MCM HAUS during Frieze Seoul, the exhibition was scaled down and moved to 'Seoul Design 2023' to present the intersection of art and brand. Yinka Ilori, who collaborated with MCM on this exhibition, is a Nigerian-British designer and writer based in London who has made a name for himself with a wide range of architectural and spatial projects based on his African sensibility. He is particularly known for his playful yet challenging designs that convey positive messages and joy to his audience. With the theme of 'empathy and coexistence', this exhibition showcases a collection of chairs that have been reinterpreted by Ilori to become works of art. Communicating the value of cultural diversity and inclusion, Yinka Ilori will share MCM's vision for sustainability that is ahead of the global zeitgeist.

Life at Home

IKEA

IKEA is set to unveil a corporate exhibition centered on the values of consumption and living. In an era marked by economic challenges prompting frugality, IKEA delves into the lives of individuals investing in meaning and value beyond mere cost-effectiveness. Alongside IKEA products, the exhibition showcases the thoughts of these individuals, portraying IKEA's concept of value consumption and the lives that embody it through home furnishings. The aspiration is for visitors to draw inspiration from the values embedded in the space and embrace valuable consumption with IKEA.

The corporate exhibition serves as a platform to address sustainability in an accessible and friendly manner. It conveys the message that minor adjustments in behavior and thoughts, implementable at home, can contribute to sustainable living and planet protection. Going beyond the use of eco-friendly materials and recycling, the exhibition emphasizes that everyday actions such as organizing one's life, infusing it with personal flair, and fostering attachment to a product through assembling flat-pack furniture (prefabricated furniture sold in a flat box) are inherently linked to sustainable living.

Sustainability in Everyday Life Hyundai

Hyundai Motor Company

'Hyundai Collection' stands as a lifestyle brand, embodying Hyundai's brand vision of 'Progress for Humanity' by providing everyone with the opportunity to savor mobility experiences in their daily lives.

At the Hyundai booth during 'Seoul Design 2023', the spotlight was on lifestyle items from the Hyundai Collection, underscoring Hyundai's commitment to sustainability that transcends mere mobility services to enrich the lifestyles of its customers. Diverse items from the Hyundai Collection, including the Heritage Collection inspired by Hyundai's inaugural car, the Pony, and the Re:Style Collection, a chic interpretation of automotive scrap materials, were presented in captivating runway concepts.

The Future of Small Plastics

The Plastic Mill

The Plastic Mill, a part of the global Precious Plastics community, employs open-source designs to create plastic processing instruments, facilitating widespread participation in the upcycling of waste plastics. As a contributor to the Precious Plastic project, the Plastic Mill is instrumental in spreading plastic workspaces in Korea. For 'Seoul Design 2023', the 'Sparrow Club Campaign' is organized, enabling citizens to actively engage by collecting small plastics not typically recycled and receiving upcycling rewards in return. The mobile plastic mill, operational since 2023, serves as a flexible hub for civic engagement projects.

'Seoul Design 2023' strives to illustrate the considerable effort involved in recycling plastics, emphasizing the need for collective action to reduce plastic usage. The overarching goal is to convey a compelling message about the fun and imperative aspects of taking action to diminish plastic product consumption.

반 시계루 재난주택 모듈전시

행사명	반 시계루 재난주택 모듈전시
개최 기간	2023년 10월 24일 - 2024년 3월
행사 장소	팔거리
행사 내용	인도주의적 사회 실천과 전 세계 재난 현장의 주거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반 시계루가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형 맞춤형 재난 대피소 샘플을 설계·제작했다. 재난 시 쉽게 동원할 수 있는 데다 재활용도 용이하다. 또 일정 기간 실외 설치 및 유지가 가능하다. 모듈화를 통해 쉽게 건축 및 철거,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막걸리 상자로 기초를 쌓고 구조의 핵심인 기둥과 보, 슬래브, 벽체까지 모두 종이로 만든 반 시계루의 한국형 임시 주택. 전통 옷칠 기법으로 마감한 한지가 방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벽체까지 종이로 완성할 수 있었고, 이는 <서울디자인 2023>에서 처음 시도한 방법이다. 단단한 콘크리트가 모두 무너져버린 재해의 현장에서 반 시계루는 종이에서 답을 찾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모듈형 재난주택으로 사람들을 지킨다.



재난의 한가운데에서 종이로 사람들을 지킨다 반 시계루

건축가라는 직업을 가지면서 특권층만을 위해 작업하지 않고 사회에 이바지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나는 사람들이 단순히 지진 때문이 아니라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면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는 건축가들이 의무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진 피해를 극복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람들은 그동안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데다 삶의 질이 매우 떨어지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 건축가로서 적어도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고, 더 나은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베 대지진 이후 세워진 종이 성당은 대만에서 다시금 교회 겸 커뮤니티 센터가 되었다. 임시 건물이지만 동시에 영구적인 건물이기도 한데, 실제로 인도 구자라트에 지어진 임시 건물은 여전히 진료소로 이용되고 있다. 영구적인 건축물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용자와 그 도시에서 사랑받는 건물만이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버려진 건물은 철거될 것이다. 건축물의 소재가 얼마나 강한지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다. 매우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콘크리트 구조물조차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쉽게 철거될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면 일시적인 구조물일지라도 오랜 기간 남아 있을 수 있다. 종이 교회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처음 고베에 건설된 이후 10년간 사용되었고, 이후 대만으로 이전했다. 건축가로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편히 지낼 수 있으며, 동시에 보는 즐거움도 있는 공간 말이다. 이는 일시적인 구조물이나 재난 구호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건축물도 마찬가지다.



재해 건축의 시작에는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살 권리'가 있다. 건축가로서 재해, 재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에 주목한 이유가 무엇인가? 프라이버시는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중요한 권리라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 장기간 생활하기는 매우 어렵다. 임시 대피소는 프라이버시도 보장되지 않고 편하게 머물 수조차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본에선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다 죽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

<서울디자인 2023>의 테마는 '가치 있는 동행'이다. 이를 지속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건축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건설 산업과 건물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디자인할 때 나는 항상 자연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자연환기와 태양광 같은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건물 내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아름다운 건축이란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건축은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이며, 올바르게 수행될 때 아름다움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건축가로서 작업 방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어릴 때 우리 집을 고치기 위해 목수들이 자주 왔고, 그들의 작업에 항상 감탄했다. 나는 작은 나뭇조각을 주워 와 그것들로 공예품을 만들었다. 이때부터 목수가 되고 싶었지만 열네 살 때 건축가에 대해 알게 된 후 어떤 이유에서인지 나는 장래 건축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입시 학원에서 매주 한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는 저녁 수업을 들었다. 이때 나는 건축물을 스케치하고 종이, 나무, 대나무 줄을 사용해 구조 모델을 만들었다. 종이, 나무, 대나무의 특성을 활용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듈러 시스템을 고려하면서 최소한의 재료로 공간을 만든 것이다. 실무를 시작한 이후에는 건축의 뼈대인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했다. 구조는 건축의 뼈대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약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 강철과 콘크리트는 제한 없이 어떤 형태로든 만들 수 있지만 나무 같은 약한 재료를 사용할 때는 물리적 한계와 특성을 이해한 뒤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나는 여전히 고등학교 시절 만든 종이, 나무, 대나무 구조 모델의 연장선에서 내 건축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인류와 건축물이 '동행'할 방법에 대해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가? 자연은 인류에게 매우 중요하다. 앞서 언급한 대로 디자인할 때 항상 건물 내부의 자연환기를 고려하고 건물에 자연적인 빛과 그림자를 끌어들이는 방법을 찾는다. 이런 자연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건물 사용자에게 훨씬 편안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또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안전한 세상을 위해 건축가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을 '재해 건축'에서 찾았다. 재해와 재난은 끝이 없고, 인류에게 위기가 더 자주 찾아오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이런 세상에서 인류는 희망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자연재해는 전 세계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지 여부를 얘기하는 것은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희망을 찾기 위한 일을 하는 대신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에 집중해 왔다. 물론 나는 이러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만약 그런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건축가로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능한 한 빨리 가서 도울 것이다. 마치 의사가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 당연히 가서 치료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Disaster Temporary Housing Module by Shigeru Ban

Event Name	Shigeru Ban Disaster Housing Module Exhibition
Period	October 24, 2023 – March 2024
Venue	The Eight Junction
Event Details	Shigeru Ban, who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humanitarian social action and solving housing problems in disaster sites around the world, has designed and manufactured a sample of Korean customized disaster shelters to prepare for natural disasters caused by war and climate change. It can be easily mobilized in case of disaster and is easy to recycle. It can also be installed and maintained outdoors for a period of time. It is designed to be easily constructed, demolished, and reconstructed through modularization.

Amidst calamity, paper becomes a lifeline Shigeru Ban

Ban's Korean-style temporary housing is a testament to this principle, constructed entirely from paper – from the foundation crafted from beer crates to the pillars, beams, slabs, and walls forming the structural core. The innovative use of Hanji, a type of paper finished with a traditional lacquer technique, extends to the walls, serving as both material and waterproofing agent. This pioneering approach was first implemented at Seoul Design 2023. Confronted with a disaster site where solid concrete structures had crumbled, Shigeru Ban turned to paper, unveiling a modular disaster house. This ingenious creation not only safeguards individuals but also preserves their dignity, allowing them to live with humanity even in the face of adversity.

What led to your choice to contribute to society as an architect, specifically focusing on those beyond the privileged?

I realized that people die not just because of earthquakes, but because buildings collapse in earthquakes, which means that architects have a sense of duty. It takes a long time to overcome earthquake damage, and in the meantime, people have to live in places that are poorly protected and have a very low quality of life. As an architect, I felt compelled at least to help the people affected by the earthquake to be protected and live in a better house.

The theme of <Seoul Design 2023> is 'Valuable Life'. What do you think is the role of architects in making this a sustainable reality?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buildings emit a huge amount of carbon dioxide. When designing, I always consider how to efficiently utilize natural energy. Natural ventilation and the effective use of natural energy such as sunlight can significantly reduce energy consumption in buildings. It's not important to discover innovative and new materials. It's about finding answers to the problems we need to solve within what we already have.

Are you continuing to ponder how humanity and architecture can 'go hand in hand'?

Nature is crucial to humanity. As I mentioned earlier, I consistently prioritize natural ventilation, integrating natural light and shadow into my designs. Considering these elemental aspects contributes to creating a more comfortable and health-conscious environment for building occupants. Moreover, it plays a pivotal role in environmental preservation.

제로웨이스트 파빌리온

완벽하게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만으로 꾸민 시민을 위한 쉼터. 종이 펄프로 벽을 쌓고 재활용해 만든 MDF로 바닥을 만들었으며 쓰임을 다한 마루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스케치북이 되었다. 전시가 끝난 후에 모든 자재는 다시 새로운 쓰임을 가지게 된다.

행사명 제로웨이스트 파빌리온

개최 기간 2023년 10월 24일~11월 2일

행사 장소 어울림광장

행사 내용 <서울디자인 2023> 공간 큐레이터 유이화 (ITM 유이화 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총감독이 되어 설계하고 한솔제지, 구정마루, 한솔홈데코가 협력해 건축한 대표 파빌리온. 철거 후에도 쓰레기가 전혀 남지 않는 착한 시민 쉼터로 조성되며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편안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공간으로 꾸며진다.



“제로 웨이스트 파빌리온의 모든 자재는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 시대의 디자인은 재료 선정부터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이르는 모든 것에 ESG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완벽한 제로 웨이스트

제로 웨이스트 파빌리온은 100%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만 구성했다. 벽면은 종이로 생산되기 바로 전 단계인 한솔제지의 종이 펄프로 만들었다. 비를 맞거나 때가 타더라도 다시 종이로 만들 수 있다. 의자 역할을 하는 대형 롤은 종이 빨대의 소재로 쓰이는 종이여서 기본적인 생활 방수가 된다. 바닥재는 한솔홈데코의 100% 리사이클 MDF 소재. 철거 후에는 다시 공장으로 옮겨 분쇄해 새로운 MDF로 만든다. 바닥 매트로는 코코넛 껍질을 사용해 다시 완벽히 흠으로 돌아가 자연분해가 가능한 소재를 선택했다. 매년 전시를 마치고 나면 많은 양의 산업폐기물이 발생하는데, '가치 있는 동행'을 대주제로 삼은 <서울디자인 2023>은 전체적으로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시민을 위한 쉼터는 완벽한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했다.

마임 아티스트의 제로 웨이스트 버스킹

제로 웨이스트 에코백 위에 '플레이리스트'라는 이름으로 환경을 위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적어 한쪽 벽면에 걸어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플레이리스트에 적힌 내용을 마임 공연으로 풀어내며 보다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구정마루의 폐마루를 스케치북처럼 활용해 그림을 그려보는 이벤트도 준비했다. 일련의 흥미로운 이벤트를 통해 지구를 위한 작은 행동은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음을 알렸다.

가치 있는 동행을 위한 디자인

ESG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어느 분야에서나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가치가 되었다. 디자인은 분야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생활과 깊은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시대의 디자인은 재료 선정부터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이르는 모든 것에 ESG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평소 가까이에서 볼 수 없는 종이 원료인
재생 펄프와 대형 롤은 종이로 이어가는 미래를
만날 수 있도록 한다.” 한솔제지**

한솔제지는 ESG의 궁극적 목표를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재활용 종이 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을 공급해 자연순환을 통한 환경적 가치를 지킨다. 탈플라스틱을 위해 석유계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목질계 기반의 천연 소재인 나노셀룰로오스로 기존 화학 소재를 대체하는 친환경 신소재 개발에 다양한 산업군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ESG 평가 기관인 에코바디스로부터 상위 1% 수준의 기업에 주어지는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제로 웨이스트 파빌리온에서는 한솔제지의 종이 원료인 펄프와 대형 롤, 폐지를 원료로 재활용한 재생 펄프를 통해 한솔제지만의 ESG 가치를 전한다.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마루 폐자재에 나만의 영감이 더해져
아트로 재탄생하다.” 구정마루**

제로 웨이스트 파빌리온에서는 구정마루의 폐자재를 활용해 아트워크를 체험해 볼 수 있다. ‘타일 그 이상의 마루’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블러스 시리즈의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마루 폐자재를 에코 칠판으로 만들어 각자의 개성을 담은 아트워크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구정마루는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마루 폐자재를 아트 오브제와 가구 등으로 업사이클링 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ESG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한 그루의 나무도 사용하지 않은
세계 유일의 100% 리사이클 MDF는
다시 완벽한 재활용이 가능하다.” 한솔홈데코**

100% 리사이클 MDF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세계적으로 한솔홈데코가 유일하다. 수년에 걸쳐 자원 재순환을 위해 투자와 기술개발을 거듭한 끝에 완성한 100% 리사이클 MDF는 나무를 단 한 그루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재활용 소재만으로 만든다. 제로웨이스트 파빌리온에서는 한솔홈데코의 리사이클 MDF로 벽면과 바닥을 구축했다. 파빌리온 벽면으로 활용한 소재는 가구 도어인 한솔 스토리보드. 크래프트 종이 질감을 가진 가구 도어로 이 역시 리사이클 소재를 활용했다.



Zero Waste Pavilion

This eco-friendly haven for citizens is constructed entirely from reusable and recyclable materials. Paper pulp forms the walls, recycled MDF constitutes the floor, and used flooring transforms into sketchbooks for drawing. After the exhibition, all materials are meticulously repurposed.

Event Name	Zero Waste Pavilion
Date	October 24 – November 2, 2023
Venue	Oulim Square
Event Details	Designed by Yihwa Yoo(CEO of ITM Engineers & Architects), the space curator of Seoul Design 2023, and constructed in collaboration with Koojung Maru, Hansol Paper, and Hansol Home Deco, this pavilion stands as a representation of sustainable design. It serves as a shelter for conscientious citizens, ensuring no waste is left behind even after demolition. Through various events, it transforms into a comfortable and enjoyable space.

“All materials in the Zero Waste Pavilion are reusable and recyclable. Design in this era must prioritize ESG values in everything from material selection to the entire lifecycle.”

Completely Zero Waste

The Zero Waste Pavilion is made entirely of 100% reusable and recyclable materials. The walls are made from Hansol Paper’s paper pulp, which is the stage just before it is produced into paper. The large rolls that serve as chairs are made from paper straws, which are basically waterproof. The flooring is 100% recycled MDF from Hansol Home Deco. After demolition, it is taken back to the factory to be crushed and made into new MDF. Aligned with the theme of ‘Valuable Life’ for <Seoul Design 2023>, the pavilion exemplifies a comprehensive approach to waste reduction.

Zero-waste Busking by Mime Artists

In addition to distributing zero-waste eco-bags, a ‘playlist’ detailing daily environmental actions adorns one wall. Accompanying this, a mime performance illustrates the playlist’s contents to capture more attention. An event encouraging the use of waste floorboards as sketchbooks for drawing, along with a series of other interesting events, further emphasizes the message that everyone can contribute to the well-being of the Earth in their daily lives.

해외 트렌드 전시

2003년 싱가포르 경제개발청EDB의 일부로 설립되었지만 현재는 싱가포르 국무장관 직속으로 운영 중인 디자인 싱가포르 카운슬 DesignSingapore Council. 디자인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을 목표로 하며 디자인산업 발전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 전문가 양성, 산업 협력, 정책 지원, 디자인 연구 및 혁신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서울디자인 2023>은 싱가포르의 디자인을 이끄는 디자인 싱가포르 카운슬 우수 디자이너의 작업을 소개하며 ESG를 주제로 해외 트렌드를 들여다본다.

개최 기간	2023년 10월 24일 - 11월 2일
장소	DDP 뮤지엄 돌레길
전시 내용	DDP 뮤지엄 돌레길을 걸으며 싱가포르로 디자인 여행을 떠난다. 디자인 싱가포르 카운슬과 연계해 ESG 트렌드를 선도하는 우수 디자이너를 소개하는 교류의 자리다.



사물의 테크네 The Techne of Things by Studio SKLIM



런던 AA 건축 학교 (Architectural Association School of Architecture)와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한 케빈 림이 이끄는 스튜디오 SKLIM.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으며 인도에도 지사를 두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스튜디오 SKLIM이 공개한 최신 사업인 케노피 프로젝트 Kenopy Project는 타일을 만들어 파빌리온의 지붕으로 활용하고 노동집약적 생성 과정을 어떻게 단순화할 수 있는지 탐색한 결과물이다. 케빈 림은 2020년부터 자신의 굿 디자인 리서치 Good Design Research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히비스커스속의 케나프라는 식물을 활용해 건축 타일을 만드는 실험을 해왔다. 목재나 강철, 세라믹, 콘크리트에 비해 탄소 배출량이 현저히 낮은 건축자재를 모색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건축의 가능성을 확장했다. 미래에는 태양전지판 같은 기능을 갖춘 타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Nature Remixed by 시스트럼 Sistrum

라메쉬 크리슈난 Ramesh Krishnan, 림수민 Lim Shu Min, 로라 미오토 Laura Miotto로 구성된 시스트럼은 사운드 프로젝트 'Nature Remixed: 우리 파라다이스의 경계는 어디에 있는가'를 선보인다. 이 프로젝트는 목소리와 공간, 텍스트, 사운드시케이프를 이용해 관람객을 싱가포르 식물원의 식물과 연결한다. 싱가포르 식물원 안에 있지 않더라도 시간대별로 식물원은 어떤 소리로 채워지는지 간접적으로 경험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새삼 느낄 수 있다. 식물원이 들려주는 소리에는 자연의 생명력이 가득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소리가 담겨 있다. 온라인을 통해 이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싱가포르 식물원을 탐험하며 듣는다면 더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Overseas Trends Exhibition

Established in 2003 as a part of Singapore's Economic Development Board^{EDB} and currently operating directly under Singapore's Minister of State, the Design Singapore Council plays a pivotal role in fostering economic growth through design. It actively engages in educ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industry collaboration, policy support, and the promotion of design research and innovation to advance the design industry and boost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s part of 'Seoul Design 2023', the Overseas Trends Exhibition will showcase the work of Design Singapore Council's exemplary designers who are at the forefront of Singapore's design landscape. Under the theme of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the exhibition will explore international design trends.

Event Name	Overseas Trends Exhibition
Date	October 24 – November 2, 2023
Location	Museum Design Dulegil
Description	Immerse yourself in a design journey to Singapore as you explore the DDP Museum, featuring collaboration with the Design Singapore Council. The event will spotlight outstanding designers leading ESG trends.

DESIGN
CONFERENCE

디자인 컨퍼런스

디자인 컨퍼런스

168 서울디자인 컨퍼런스

178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SEOUL DESIGN CONFERENCE



서울디자인 컨퍼런스

ESG의 가치 실현을 위한 소통의 장이 펼쳐진다. 재난 현장으로 향하는 종이 건축가 반 시계루를 비롯해 한국의 대표 트렌드 분석가 김난도 교수, 디자인붐 Designboom 공동 설립자 비르짓 로만 등 국내외 유명 연사들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디자인의 역할과 디자인산업에서 실현되고 있는 ESG의 오늘과 내일에 대한 생각을 들려준다.

행사명	서울디자인 컨퍼런스
기간	2023년 10월 26일
행사 장소	DDP 아트홀 1관
주제	가치 있는 동행



특별좌담 지속가능한 도시와 디자인의 역할

모데레이터
최소현
네이버 디자인 & 마케팅 부문장



반 시계루
반 시계루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지속가능성'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혁신적이고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에게 이미 있었던 것 중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 건설업과 건물은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나는 건축을 디자인할 때 항상 자연환기와 태양광 같은 자연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고려한다. 그런 것이 적절하게 작동했을 때 에너지 사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

지속가능한 도시와 산업을 위한 디자이너의 역할

'호모 나랜스'라는 신조어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이야기를 하는 존재다.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위해 우리는 사물, 건축물 같은 것에 이야기를 부여해야 한다. 한옥, 청년 문화, 예술가 작업장이나 공연장 등이 골목길로써 주거 지역과 공존하도록 주민 문화 생활과 복합체로 개발하고, 큰 스케일의 공공 건물이나 도시재생과 신도시 개발의 핵심으로 작은 상권이 기획되어야 이야기가 지속된다.



비르짓 로만
디자인분 공동설립자. 2023 서울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

지속가능한 도시와 산업을 위한 디자이너의 역할

지속가능한 생활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주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우리 집과 지역사회, 생활 방식에서 지속가능성을 찾아 전환하는 것은 각자 다르게 나타나는 변화 과정이다. 지속가능성을 향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한다.



세션 1

지속가능한 일상을 만드는 가치

모더레이터
이돈태
롯데지주 디자인전략센터 센터장
2023 서울디자인어워드 심사위원

주해어 벤 재닛
에어 디자인 스튜디오 대표이사 겸 디자이너

태양열발전과 공기 중 습기를 이용해 만드는 안전한 식수

이슬이 맺히는 자연현상을 재현해 물이 부족한 지역에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식수를 공급하는 제품. 태양광 발전 패널이 장착되어 있어 외부의 전기 공급 없이도 하루 평균 15~20명이 마실 양의 물을 만들 수 있다. 물 부족 현상과 아프리카 지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연간 최대 250kg의 플라스틱 폐기물과 2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프란체스코 베르가니
밀라노 폴리텍 대학교 부교수

오프 캠퍼스 놀로 Off Campus Nolo

오프 캠퍼스 놀로는 밀라노의 활기 넘치는 놀로 지역 시장 건물에 위치한 밀라노 공과대학교의 두 번째 리빙 랩이다. 오프 캠퍼스 놀로는 지역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현장 연구와 공간 실험을 하고 세미나, 공개 강의,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방식으로 지역 주민, 활동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개선이 시급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한다.

분심 프렘타다
방콕 프로젝트 스튜디오 대표

Non-Human Centered, Elephant World Project

수세기에 걸쳐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생물을 착취해 왔다. 인간이 항상 모든 것의 중심일 필요는 없으며, 다른 존재들과의 공존은 연구할 가치가 있다. 건축은 인간을 위해 만들어지는 것뿐 아니라 생명체와 환경의 공존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해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

에까찬 에이마난왓따나
크리에이티브 크루 디자이너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실의 변신

태국 파타야 시각장애인 학교의 낯은 도서관이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다감각 체험 교실이 되었다. 장애 아동이 조기 교육을 통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에 적응해 활동할 수 있도록 놀이, 체험을 통한 인터랙티브 학습 공간을 디자인했다. 특수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고 장애 아동 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프로젝트다.

마리아나 보바디아
톨러 캐피털 디자이너

시코텐카틀 공원

폐기물이 가득했던 버려진 하천을 공원으로 변화시킨 공공디자인 프로젝트. 부족한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착민들의 '타이어 월(tyre-wall)' 건축 방식을 도입해 현장에 쌓여 있는 도시 잔해와 페타이어로 경사면에 축대를 세우고 공원 바닥을 조성했다. 멕시코 시코텐카틀 공원은 이제 하천 양쪽의 주민들이 만나 소통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기는 공간이 되었다.



세션 2 메가트렌드 ESG와 디자인의 미래



김난도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
<트렌드 코리아> 저자

리퀴드 폴리탄 Liquid Polit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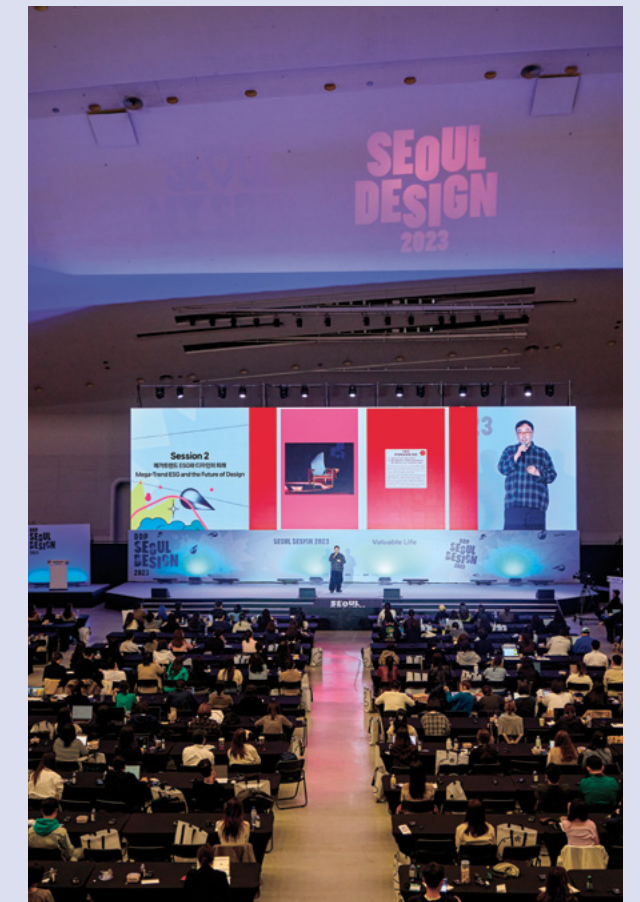
리퀴드Liquid는 액체, 폴리탄Politan은 도시를 뜻한다. 이를 합치면 '액체 도시'가 되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유연 도시'가 된다. 즉 도시와 지역이 액체처럼 유연하고, 서로 연결되며, 다양한 변화를 보이는 가변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합성어인 것이다. 리퀴드 폴리탄 개념을 통해 현대 도시의 변모하는 특징을 포착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한다.



정구호
피클리어인투이션 대표

현명한 동거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선택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 그로 인해 쓰레기가 많이 생길 수 밖에 없고, 이를 재활용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다. 이런 문제의 악순환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물건과의 현명한 동거를 통해 우리가 가진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다.



세션 3

디자인산업 ESG 실현

박원정

러쉬 코리아 에티크 디렉터

모두가 조화로운 세상을 디자인하는 러쉬 아티비즘

동물과 자연, 사람의 조화로운 상생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러쉬는 우리가 속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에 진심이다. 캠페인을 통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옮기는, 이른바 브랜드 행동주의를 펼친다. 경계와 한계가 없는 '아트Art'라는 메신저를 활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디자인Design'함으로써 영향력과 파급력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실행 중이다.



장영

현대자동차 브랜드마케팅본부 브랜드디자인실 상무

Road to Sustainability

창립부터 오늘날까지 현대자동차가 지나온 여정은 늘 사람이 중심이었다. 모빌리티를 통해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창업주의 따뜻한 마음은 이제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자 한다는 비전이 되어 모든 브랜드 활동의 지향점이 되고 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현대차가 고객 경험 전반에 구현한 지속가능한 디자인에 대해 최근 진행된 FIFA 월드컵, 리스타일 Re:Style 등의 사례로 소개한다.



서기석

이케아 코리아 마케팅 총괄

더 나은 삶과 지구를 위한 이케아의 지속가능성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으로 먼저 고객들에게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제공하는 이케아는, 이를 통해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고 고객들이 지속가능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자원순환과 기후변화 대처로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비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공정성과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자 하는 이케아의 사례를 소개한다.



2023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Forum

2023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회복과 포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창의 도시의 역할을 말한다.

행사명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 국제포럼
기간	2023년 10월 26일
행사 장소	DDP 아트홀 1관, DDP 디자인홀
모더레이터	홍경아 (크리에이티브커리어인스티튜트 대표)
기조 연설	

포용력 있고 안전한 도시로 나아가려면
패트리샤 무어, 무어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대표

문화적 포용을 위한 창의 도시의 역할
카를 슈토커, 그라츠 대학교 교수

팬데믹 이후 다시 생각하는 창의도시네트워크
한건수, 한국 UCCN 자문위원장

세션 1. 회복과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도시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던 림, 디자인싱가포르 카운슬 대표

즐거움 활력 도시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세션 2. 포용과 안전을 추구하는 도시

문화로 연대하는 사람들의 힘
티타 라라사티, 인도네시아 UCCN 집행위원

창의 산업 분야 협력이 만들어내는 견고한 연대
김이석, 동의대학교 영화학과 교수

팬데믹을 넘어 안전한 연결을 추구하다
유원준, 영남대학교 트랜스아트과 교수



“우리의 사적 영역을 구성하는 장소와 사물은 누군가의 대담한 시도와 상상, 행동에 따른 결과물이다.” 패트리샤 무어

“활기찬, 다양성이 높은 젊은 시민들이 지배하는 성장하고 밀집된 도시에는 도시 문화의 정신을 연대, 포용성 및 파트너십으로 유지하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리더십이 필요하다.” 티타 라라사티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UCCN는 2004년 이후 문화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하는 도시 네트워크로 문화와창의성, 창의산업에 기반한 도시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왔다.” 한건수

“부산영화평론가협회, 모퉁이 극장 등의 연대와 협력이 있었기에 부산은 영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김이석

“크리에이티브 인더스트리스 스티리아Creative Industries Styria와 유네스코 디자인도시 그라츠Graz의 활동은 20여 년 동안 창의력이 환경과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임을 보여주었다.” 카를 슈토커

“디자이너, 기업 그리고 사회 및 공공부문 간의 협업 및 돌봄이 가능한 것은 인간 중심적인 디자인 접근방식에 있다.” 먼림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영상위원회를 비롯해 민간단체인 부산독립영화협회, 기술은 동시대 예술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최근 가상의 국가 개념을 주창하며 개국을 선언한 '리버랜드 자유공화국'의 사례로부터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광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그려본다.” 유원준



“서울은 지속가능한 디자인 도시이다. 디자인서울 2.0을 중심으로 즐거운 활력도시 서울을 추구하며 공감, 포용, 공헌, 회복, 지속가능 디자인의 5원칙을 중심으로 공간 전략인 즐겁게 걷고, 쉽게 접근하며, 감동으로 머물기 전략을 세웠다.” 최인규

Seoul Design Conference

The Seoul Design Conference unfolds as a platform for communication to realize the values of ESG. Renowned speakers from Korea and abroad, including the paper architect Ban Shigeru heading towards the scene of disasters, Professor Kim Nando, a leading trend analyst in Korea, and Bridget Lohmann, co-founder of Designboom, will share their thoughts on the role of design for sustainable living and the current and future aspects of ESG in the design industry.

Event Name	Seoul Design Conference
Date	October 26, 2023
Venue	DDP Art Hall 1
Theme	Valuable Lif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International Forum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International Forum discusses the role of creative cities in recovery, inclusiv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he forum was held under the theme of "The Role of a Creative City for Recovery, Inclus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atricia Moore, the representative of the Moore Design Associ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founder of Universal Design, gave a keynote speech. She talked about her experiences with the theme, "To move toward an inclusive and safe city." S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empathy, saying, "We can promote equity and equality through design and achieve a better life for everyone. From birth to death, we all need design."

Event Nam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International Forum
Date	October 26, 2023
Venue	DDP Art Hall 1, DDP Design Hall
Theme	The Role of a Creative City for Recovery, Inclus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디자인 마켓

188	DDP디자인론칭페어 마켓
190	글로벌 ESG 트렌드 마켓
194	리퍼브 디자인 마켓
196	소상공인 ESG 트렌드 마켓
200	문호리 ESG 마켓 & 어린이 경제 마켓



**DESIGN
MARKET**



디자인 마켓

디자인 마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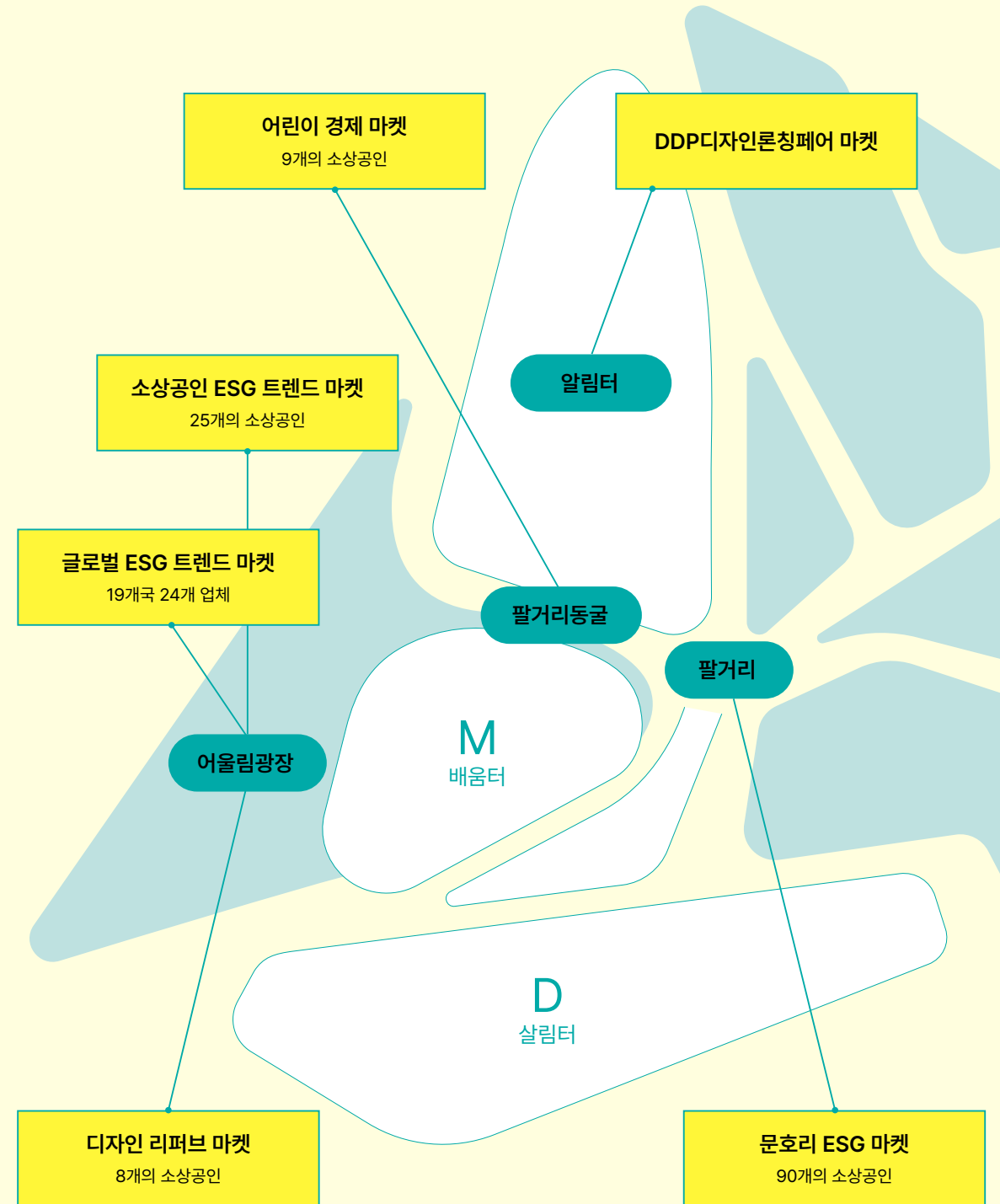
디자인 마켓

행사명	디자인 마켓
기간	2023년 10월 24일 - 11월 2일
행사 장소	어울림광장, 팔거리 동굴, 팔거리



6개 마켓

156개의 셀러



DDP디자인론칭페어 마켓

디자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내 디자인산업 비즈니스 론칭 쇼.
 '2023 DDP디자인론칭페어'에 출품된 생활용품, 조명, 가구 등
 새로운 디자인 제품을 라이브커머스로 판매한다.



론칭 제품을 알리기 위한 DDP디자인론칭페어의 노력은 전시에 그치지 않고 생동감 넘치는 라이브커머스로 이어졌다. 실시간으로 DDP디자인론칭페어에서 선보이는 론칭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가 DDP 아트홀에 들어섰다. 네이버 쇼핑라이브에서 온에어의 불을 켜 라이브커머스는 10월 25일, 27일, 28일까지 3일간 총 4회(회차별 90분)로 진행되었다. 쇼호스트들은 각각의 제품이 지닌 소재의 특징과 용도를 실감나게 설명하며 제품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첫 날인 25일에는 지구와 환경 그리고 사람을 위한 자연스러운 동행을 추구하는 원플디자인의 탄소펜, 로우리트 컬렉티브의 티끌피커, 언롤서피스의 바이오 리트컵 텀블러를 들고 참여했으며 실시간 최고 22만명 시청으로 뜨거운 열기를 그대로 반영했다. 또한 원플디자인의 깎지 않은 연필심이 장착된, 오래 곁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자이 탄소펜에 대한 질문이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10월 27일에도 22만명이 시청하며 뜨거운 관심과 인기를 이어갔다. 깔끔하고 위생적으로 문을 개폐할 수 있는 애니락의 밀다 푸시풀 방문손잡이, 치공의 친환경 구강 위생 선물세트, 베스트 론칭상에 빛나는 모온세일즈의 오비콤 에어 홀 디테일링 무선청소기가 많은 수의 '좋아요' 하트를 받으며 소개 되었다. 라이브커머스의 마지막날인 28일 토요일에는 2회로 나누어 진행됐다. 이 날은 스튜디오 부스를 옮겨 전시관 안으로 들어가 제품 바로 앞에서 더욱 생생하게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케이제이디자인, 소파샵+장승태의 세상 유니크한 의자는 특별 할인된 가격을 페어 기간 동안 깜짝 제안했다. 이어 등장한 주식회사 사이트레스그룹+비아컬렉티브의 재활용 대리석 테이블, 벤치 그리고 램프는 운송비 무료라는 제안으로 박수를 받았다. 그 날의 무드에 따라 컬러 매치를 할 수 있는 아우트로+비아컬렉티브의 커피 테이블&스툴은 수 많은 질문 세례를 받았다. 이어 바통을 이어받은 호스트들이 만나본 상품은 컴퍼니. 제이(주키퍼디자인)+디자인맵의 일러스트랩과 리메이크랩+칠한친구의 리사이클링 원단을 이용, 마스크에서 디자인 모티브를 따와서 만든 하나더백, 어고스튜디오+빈지니의 상상거울 등이 소개되는 동안 45만여명이 시청하며 실시간 댓글을 남겨 열띤 관심을 실감케 했다.



글로벌 ESG 트렌드 마켓

19개국을 대표하는 24개 브랜드가 함께한다. 프랑스·이탈리아·영국·불가리아 등의 유럽을 비롯해 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인도·네팔 등의 아시아, 탄자니아·이집트 등의 아프리카, 페루·콜롬비아 등의 중남미, 그리고 미국 등 다양한 문화가 반영된 디자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빈콜렉터	인도	로브 카디건, 탄소중립 인센스, 황동 그릇
르쿠퍼	인도	황동 재질 키친웨어, 인테리어 소품
력키인디아	인도	인도 치킨, 사모사, 음료
콜롬비아락카페	콜롬비아	와유부족이 만든 핸드메이드 모질라 백
페루대사관	페루	알파카 모자와 인형, 소품
칠루칠루	미얀마	미얀마 밀크티를 비롯한 스트리트 푸드
아마로메스베	멕시코	중남미의 일상과 다양한 문화 요소 등을 일러스트로 담은 문구류
라까프	베트남	베트남 최고 품질의 커피인 라까프 시그니처 블렌드 3종, 싱글 오리진
주펠트	네팔	천연 양모 펠트 공예품
아도러블 메이드	대한민국	유니크한 디자인과 핸드메이드로 완성한 고품질 인테리어 소품
탄자니아대사관	탄자니아	커피의 고향이라는 뜻을 담은 '캅카와' 커피
룬드런던	영국	독특한 디자인과 기능의 텀블러
라탄엔틱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라탄 공예로 꾸민 포토 존
원스유즈	미국	기타 잡사가 섞이지 않은 미국 수피마 면으로 만든 타월
블루스파	미국	프리미엄 향수와 향초
트위그	미국	뉴욕에서 시작한 테이블웨어
불가리안 로즈	불가리아	75년 역사의 향기 보습 전문 글로벌 브랜드
리틀베러	이탈리아	자연을 존중하며 느리지만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만드는 와인
노볼로스	크로아티아	75년 역사의 리노라다 초콜릿 스프레드
말렌카	체코	300년 전통의 체코 전통 꿀 케이크
유기농 로즈페탈콘피처	핀란드	코타야 장미 농장에서 재배한 유기농 장미 꽃잎으로 만든 잼
폼빠니앤코	프랑스	프랑스에서 가장 오래된 왕실의 훗차
에스엠케이	프랑스	지속가능한 비건 디자인의 운동복
맨디사	이집트	고대 이집트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담긴 천연 제품



은수진

은인(EUNIN) 팀장.
글로벌 ESG트렌드 마켓 기획.

글로벌 ESG 트렌드 마켓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ESG 트렌드 마켓은 19개국 각 나라의 대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코너다. 일반적으로 디자인으로 유명한 국가는 이탈리아, 프랑스,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 한정되어 있다. 이번 글로벌 ESG 트렌드 마켓에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접할 기회가 없던 나라들의 숨은 보석 같은 디자인 제품을 선정하고자 노력했다.

마켓의 즐거움

이집트, 불가리아, 네팔, 인도, 페루 등의 나라를 떠올렸을 때 '디자인'이 잘 연상되지 않지만 글로벌 ESG 트렌드 마켓을 통해 이런 선입견이 깨지기를 바란다. 요즘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도는 3개 브랜드가 참가해 인도의 향과 디자인 패턴, 테이블웨어를 소개한다. 남미 국가 페루와 콜롬비아는 알파카를 활용한 소품을 전시할 예정이고, 네팔은 양모 펠트 소품을 선보인다. 또 이집트는 천연 목욕용품, 미국과 영국은 지속가능한 디자인의 접이식 텀블러와 테이블웨어, 캔들 등의 리빙용품을 대거 소개한다. 그뿐 아니라 미얀마 현지식 밀키트, 베트남 커피, 이탈리아 와인, 크로아티아 초콜릿 스프레드, 핀란드 유기농 장미 잼, 체코 케이크크자 다양한 국가의 낯설지만 기분 좋은 맛도 즐길 수 있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도러블 메이드에서 포토 존 두 곳을 준비했다. 가을 분위기를 담은 공간에서 꼭 기억에 남는 추억을 남기면 좋을 것 같다. 또 인도네시아 라탄 공예 기법을 활용한 라탄 조명 공간도 연출한다. 어울림광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인도 대표 F&B로 참가하는 럭키가 준비한 인도의 맛도 꼭 경험해 보길 바란다.

시민과 공유하고 싶은 것

작년보다 훨씬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준비했다. 함께하는 브랜드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만큼 열린 마음으로 즐기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셀러 인터뷰

“발레, 무용, 요가, 필라테스, 리듬체조 등을 위한 옷을 만들고 있어요. 모든 원단은 페타 PETA 인증을 받은 비건 원단이에요. 보통 운동복을 만들 때 폴리에스테르나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를 사용하지만 저는 텐셀이나 모달 등의 천연 소재만을 사용합니다.”



“모든 옷은 직접 디자인해 패턴을 만들고 샘플을 제작해요. 원단을 재단하고 남은 자투리 원단은 버리지 않고 포장으로 활용하거나 헤어밴드, 보자기 같은 것으로 업사이클링해 사용해요. <서울디자인 2023>의 글로벌 ESG 트렌드 마켓을 통해 많은 사람과 얘기할 수 있어 즐거워요. 한국인은 물론 한국에 여행 온 외국인까지,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 역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S.M.K(Sandra Meynier Kang)

빈콜렉터 in India

인도의 멋과 향을 만끽할 수 있는 로브와 인센스 스틱을 소개한다. 나무에 새긴 문양을 각각의 다른 컬러로 도장을 찍듯이 패턴을 만드는 전통 제작 방식으로 인도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색다른 컬러 조합이 아름다운 패브릭을 완성한다. 이런 패브릭으로 제작한 셔츠와 로브 등은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 빈콜렉터의 인센스는 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친환경 제품으로, 20종 이상의 다채로운 향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전통 핸드메이드 방식의 인센스 스틱으로 1948년부터 시작된 인도의 가장 큰 인센스 전문 제조사의 높은 품질을 보여준다.

콜롬비아라카페 in Columbia

와유 모칠라 백을 만날 수 있는 콜롬비아라카페. 와유 모칠라 백은 전부 와유 Wayuu 부족 여성들이 평균 10~30일간 한 땀 한 땀 공들여 완성하는 예술 공예품이다. 가방마다 와유족 여인들의 감성은 물론 와유족의 자연과 문화가 담긴 패턴을 입혀 기계로 만든 제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가치를 전한다. 한국인 아내와 콜롬비아 남편이 콜롬비아 과히라 현지를 수년간 직접 방문해 디자인과 품질을 따져가며 직수입한 제품을 한국에 소개한다.

룬드런던 in UK

친환경 제품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내고자 하는 열정과 사명을 품은 룬드런던은 2016년 영국에서 시작된 브랜드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소재만을 사용하며,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불링핀을 닮은 스키틀 보트 시리즈는 보틀 내부에 최상급 스테인리스스틸 304를 사용해 연마제가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 중금속이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고, 오랜 기간 사용해도 녹이 슬지 않는다. 또 보틀 내부와 걸면 사이를 진공 구조로 설계해 걸면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고 내부 음료 온도에 따라 외부 온도가 변하지 않아 언제든지 편히 잡을 수 있다.

칠루칠루 in Myanmar

미얀마의 맛과 가치를 전하는 칠루칠루. 전통 음식은 물론 스트리트 푸드부터 디저트와 음료까지 다양한 미얀마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미얀마의 비빔쌀국수 산 카옥쉐, 코코넛 커리 국수 오노 카옥쉐 등은 밀키트로도 만날 수 있다. 미얀마 명절날 먹는 '몽롱예빠'라는 팜 슈거를 넣어 달콤하고 식감은 쫄깃한, 코코넛 플레이크를 뿌려 먹는 떡도 매력 있다.

리퍼브 디자인 마켓

아름다운 디자인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마켓.
사소한 하자가 있거나 재고 상품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배스랩 Bath Lab

을지로에 자리한 수제 비누 작업실. 어떤 인공첨가물 없이 100% 천연 재료로 만드는 CP Cold Process 비누로, 천연 글리세린을 다량 함유해 일정 기간 체내에 쌓인 유해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는 보디 버든을 줄일 수 있다.

비아케이 스튜디오 Via K Studio

플라워 모티프 리빙 소품과 주얼리, 커스텀 액세서리를 만든다. 기획, 디자인, 제조를 비롯해 유통의 전 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감성과 가치를 담은 행운과 사랑이 가득한 제품을 제작한다.

빠다앤마가린 Ppadanmargarine

주말 아침 식빵 한 조각을 베어 문 듯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하고자 시작한 감성 주방 소품 브랜드. 귀여운 레터링과 일러스트가 사랑스러운 와인 잔과 디저트 볼, 홈술 소맥잔 등이 식탁 분위기를 한결 근사하게 만들어준다.

컬러힐 Colorheal

컬러힐의 요가 매트 는 복원력과 충격 흡수력이 탁월한 TPE 소재를 사용했으며, 8mm의 도톰한 두께 덕분에 충격이 더 잘 흡수된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손색없도록 러그처럼 디자인했다.

애리스

일상에서 함께하면 좋을 도자기 브랜드.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작은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도자기를 지향하며 토끼, 웰시코기, 펭귄 등 귀여운 동물을 활용한 컵과 플레이트 등이 있다.

휴움 Hueum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한숨 쉬어 갈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선사하고자 시작한 홈 카페 테이블웨어. 디자인에 자연의 색을 담으며 '지속성'과 '고유성'을 테마로 오래도록 지키고 싶은 아름다운 가치를 전한다.

하이바이하이

KIM과 PARK의 친구들이 매일같이 주고 받았던 '안녕'이라는 인사에서 시작한 컨템포러리 캐주얼 브랜드. 행복하고 밝은 하루를 만들어주는 가방과 후드 티셔츠 등을 디자인한다.



소상공인 ESG 트렌드 마켓

MZ세대가 열광하는, 바로 지금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으는
24개 소상공인 브랜드의 디자인 제품을 만날 수 있다.
트렌디한 디자인은 물론 착한 ESG의 가치까지 담고 있는
셀러들의 제품을 선보인다.



Hui Hui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 위트 있는 핸드메이드 패브릭 제품을 만든다. 귀여운 파인애플 파우치 라인과 생선뼈 선인장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뼈뼈백'이 시그니처 제품.

김씨네 세상 속 귀여움을 표현하다. 손뜨개와 손바느질로 키크링과 장난감을 제작하며 사람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즐거움을 주고자 한다.

매기앤보 100% 국내산 소재를 이용해 만드는 반려동물 식기 브랜드. 반려동물의 목디스크를 예방하고 다리 관절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적의 각도로 제작한다.

마이켓 고양이 집사 디자이너가 론칭한 브랜드로 고양이의 시크한 매력을 심플한 디자인으로 담아 에코백, 쿠션, 파우치 등으로 만든다. 다른 소품에 활용할 수 있는 고양이 디자인의 왜건과 브로치도 있다.

봉봉 독일 현지 수제 사장 장인에게 배운 전통 방식으로 맛있는 사탕을 만든다. 방부제와 인공감미료를 넣지 않고 천연 향료와 색소, 비정제 유기농 설탕으로 만들어 건강을 해치지 않을 선물이다.

스튜디오 반하리 아로마를 이용해 비누, 화장품, 입욕제, 인센스 등을 만드는 공방. 친환경 재료로 만드는 수제 비누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의 시작점이 된다.

제로공방 꽃삼월 건강한 뷰티와 환경, 생활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DIY 화장품 클래스와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 중이다. 순환을 위한 자원 수거 같은 다양한 환경보호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

플레이백 폐기용품에 디자인 감성을 더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해 지속가능한 DIY 키트 구독 서비스와 함께 패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업사이클 패브릭 굿즈를 전개한다.

그노 일러스트를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양모 펠트 작업을 한다. 반려동물에게서 위로받는 소중한 순간들을 포스터, 스티커, 문구류 등으로 담아낸다.

나잇스위밍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을 향으로 디자인한다. 자연 유래 성분을 담아 누구나 휴식과 집중의 시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향 제품을 만든다.

릴리쿠 유쾌한 형태와 색깔, 편리함은 기본, '사용자의 즐거움이 제작자의 즐거움'이라는 생각으로 위트 있는 디자인을 연구한다. 전 제품 KC 인증을 받은 무독성 소재로 만든다.

무안디 채움과 비움이 균형 잡힌 삶을 지향하는 무안디는 채움의 쿠션과 비움의 쿠션을 선보인다.

빵굽는 부엌 유기농 밀가루와 천연 발효 버터로 만든 구운 과자를 맛볼 수 있다. 닿은 현저히 줄이고 몸에 좋은 재료만으로 엄마가 직접 만든 간식을 추구한다.

앙코르프로젝트 공연 및 전시 현수막을 업사이클링해 가방을 만든다. 쓸모를 다한 현수막이 일상에 필요한 제품이 되어 지속가능성을 실현한다.

카메에스 '하늘 아래 같은 파란색은 없다'는 타이틀 아래 블루 계열의 가족으로 패션 아이템을 선보인다.

해튼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동 소재를 활용해 MZ 세대는 물론 중장년층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디자인의 식기류를 디자인한다. 또한 소재의 지속가능성과 헤리티지를 디자인 가치에 담아낸다.

김동이 오방색을 기반으로 액세서리를 제작한다. 유리, 매듭, 은을 사용해 각자에게 맞는 사주 오방 색을 추천하고 제작한다.

도토리 캐리커처 귀엽고 트렌디한 그림체를 선보이는 캐리커처 브랜드. 노인들에게서 폐지를 고가에 매입한 뒤 1차 가공한 종이에 그림을 그린다.

마이코미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소중한 특별한 순간을 함께할 수 있도록 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반려동물을 위한 의류와 액세서리 등 패션 아이템을 만든다.

버리공작소 핸드메이드 보석인 독일 세라믹 클레이를 주재료로 예쁜 알맹이를 만든다. 버리공작소의 알맹이들은 일상을 다채로운 색으로 채운다.

셀리와 양 포근하고 따뜻한 섬유인 양털로 동물, 사람, 음식 등 작고 재미있는 인형과 레트로 감성이 묻어나는 소품을 제작한다.

엘 아미고 반려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만든다. 반려인과 사람 모두 행복한 삶을 꿈꾼다.

티프 다양한 취향을 존중하는 카페로 F&B를 넘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제품과 문화예술 행사로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선사한다.

휴이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라이프스타일 소품을 만든다.

“봉봉 수제 사탕은 방부제나 구연산, 인공감미료를 일체 넣지 않고 천연 향료와 몸에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 만들어요. 공장에서 획일적으로 생산되는 사탕과 달리 사탕 하나하나에 다양한 디자인을 넣은 완전한 핸드메이드 제품이지요.”

“작은 사탕 한 알이라도 창의적인 디자인을 더해 생활에 활력과 힐링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어요. 캐릭터와 과일 모양의 락캔디와 베개 모양의 필로 캔디, 천연 바닐라 향과 국산 원유, 커피 추출물 등이 들어간 커피 캔디, 천연색소로 만든 롤리팝 등을 맛보실 수 있어요. 기존에 구매한 병이나 크래프트 종이를 들고 매장에 방문하시면 할인 혜택도 드립니다.” 봉봉(BonBon)



엘 아미고

스페인어로 ‘친구’를 의미하는 엘 아미고. ‘반려동물도 사람이 사용하는 제품만큼 품질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 프리미엄 반려용품 브랜드다. 전용 브러시를 시작으로 해충 방지 기능을 지닌 미스트, 응고형 벤토나이트 고양이 모래, 반려동물 샴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 생산한다.

ESG 트렌드 엘 아미고 브러시 중 에코밍은 최종 소비자가 사용하고 버린 소재를 재활용한 원료인 PCR ABS 소재로 만든다. 이에 더해 공존의 마음을 담아 물방울 디자인으로 설계했다. 또 앞으로 출시 예정인 브러시는 환경친화적 제품으로 개발 중이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사람에게 모두 안전하고 환경에 유익한 제품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플레이백

폐기된 물건에 디자인 감성을 더하고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누군가의 일상에 즐거움과 추억이 되는 요소를 더하고자 한다. 누구나 업사이클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재활용 DIY 키트’ 구독 서비스와 함께 패턴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업사이클 패브릭 굿즈를 선보인다.

ESG 트렌드 플레이백은 쓸모를 다한 물건에 디자인 감성을 더해 원래보다 더 발전된 제품으로 만드는 재활용 방식의 재활용을 실천하는 기업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재활용 제품과 DIY 키트를 제작한다. ‘More than RE:Use’라는 모토 아래 보다 많은 사람이 재활용을 실천할 수 있는 제품을 계속 개발할 것이다.

제로공방 꽃삼월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공방이자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공간. 비누, 입욕제, 스킨&두피 케어를 위한 DIY 화장품 클래스, 리필 스테이션과 자원 수거 등의 제로 웨이스트를 체험할 수 있는 클래스를 열고, 종이팩과 플라스틱 용기를 수거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오늘의 선택으로 미래가 결정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 지 제안한다.

ESG 트렌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원료부터 포장까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며 오늘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매일 건강한 오늘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오늘의 선택이 쌓여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는 원료부터 포장까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며 ‘오늘의 선택’을 이어나가야 한다.

앙코르프로젝트

공연이나 전시 같은 문화예술 홍보를 위해 쓰인 현수막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든다. 디자인 마켓에서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신제품 위주로 판매 부스를 운영한다. 제품 모두 앙코르프로젝트에서 제작한 현수막을 활용해 더 큰 의미가 있다.

ESG 트렌드 앙코르프로젝트는 한 번 사용한 뒤 버려지는 공연 및 전시 현수막을 재활용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쓰임을 다한 물건에 다른 쓰임을 부여하는 재활용의 가치를 사람들에게 소개하며 ESG를 실천한다.

문호리 ESG 마켓 & 어린이 경제 마켓



문호리리버마켓은 내려놓는 법과 서로를 배려하는 법을 전하고 방문하는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다. 판매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서울디자인 2023>과 함께한다.

문호리 ESG 마켓

절묘한

보리나무

1글소리

2글소리

한구죽

룩

씨니의 식탁

봄봄도자공방

봄봄물레체험

더퀵트

리얼참팜

Ayawoodshop

꾸미꼬에

커피앤마링

WOA

페따미꼬

달콤농장

두땀

다시집밥

그린하루

오디You

팀버크라프트

러블리봄

철원자연농장

노쉬디쉬

다농팜

라인플로우

더랩블

마링앤코코

미시정보

토우공방

손거미

다담공방

밥이브라운

오키파푸드

태라크라프트

로맨틱코튼클럽

엄마손살롱

그래몽땅

그랑멜

은은한공방

스프링

레이지파머스레더

남만킵가든

오주

자연에서 빌려온 모든 것

코튼블루

가인

바늘공작소

유진농원

모과나무

돈을별팜

이민재tea

한들

청양농원

바이아띠

양양청풍농원

영광상회

호호목방 & 지안클래식

프롬마더

패브리콧스케치

쿠로네

오센틱브라운

행복한사람들

동문

지화인공방

광양호랭이농원

느티나무퀵트

비누와주

플렉스

더정성담아

필레트 키친 라운더리

소우트럭

소프트럭

처비웨이

캠퍼웨이

듀피에

위키스마일

벤앤제리스

장수식품플러스터사업단

매일상회1관

매일상회2관

장수사과

무진장소금

달스팜

어서오슈

상주옹기

예천목기

매일상회1관A

매일상회2관A

어린이 경제 마켓

핑크봉봉

포롬마더

제유네

유하네마켓

세아네

윤슬페이스페인팅

행복한가게

마당있는집

부영이소굴

레이저파머스레더

자연 속에 살며 자연과 함께 오래도록 숨 쉴 수 있는 물건을 만든다. 그리고 이 물건들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연결 고리가 되며 '사회적 관계 안에서만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작업대에서 완성된 물건은 누군가의 일상에서 그 일부가 되어 가치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소규모 작업장에서 모든 공정을 소화하며 소량의 물건을 만든다. 완성된 제품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충분한 이해를 갖고, 관계를 맺는 누군가에게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라며 제작한다. 이 소중한 관계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지속하고 있다.

ESG 트렌드 디자인 마켓에서는 '닥터 백(왕진 가방)'을 '높새'라는 새로운 호칭을 붙여 재구성한다. 오랜 전통이 담겨 있는 가방을 새롭게 구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선보인다. 물건 하나가 금세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에 레이저파머스레더는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고자 한다. 가족이 지닌 견고함을 바탕으로 누군가를 통해 새로운 시간과 정성이 덧입혀져 보다 아름다운 물건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레이저파머스레더의 물건을 통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안완배

문호리리버마켓 대표

필레트 키친 라운더리

독일, 리투아니아 등지에서 수입한 리넨 소재로 의류, 앞치마, 소품 등을 제작한다. 의상디자인을 전공하고 10년간 의류 회사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문호리리버마켓에서 브랜드를 꾸리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셀러를 만나고 같은 취향을 지닌 손님들과 소통하며 꿈같은 기획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올해 디자인 마켓에서는 리넨을 코팅해 가죽 재킷 대용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 네오프렌을 본딩한 울 아우터 등 다양한 소재의 재미있는 작업을 선보인다. 또 개막식에서 'Night in Desert'를 주제로 첫 번째 패션쇼를 연다. 문호리리버마켓의 셀러와 손님, 모델들이 함께 어우러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쇼를 기획했다.

ESG 트렌드 빨아 쓰지 않아도 되는 신소재 앞치마, 자투리 원단을 활용한 의류, 버려지는 옷을 업사이클링한 옷 등 새로운 형태로 재해석한 재활용 의류와 가죽을 대신할 신소재 제품을 통해 친환경과 동물복지 실현함으로써 가치 있는 동행을 실현하려고 한다.

문호리 ESG 마켓을 소개합니다.

문호리리버마켓은 고객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소상공인과 농부, 예술가를 발굴합니다. 2014년 경기도 양평 문호리에 정착한 지역민 20명이 주민 교류를 목적으로 문호강 변에 플라마켓을 열며 시작되었으며, 이제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플라마켓이 되어 '공감과 소통', '배려와 존중', '정직과 정성'이라는 철학을 공유하며 유지되는 공동체다. 서로를 품고 삶을 흘러보내며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문호리리버마켓의 가치를 <서울디자인 2023>에서 공유하고자 한다.

마켓의 즐거움

아티스트와 농부들의 꿈과 정성, 창의성과 노력이 더해져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눈다. 휴놀이, 물레, 채색,

조형 등의 도자기 체험과 금속공예, 퀼트, 목공예, 가죽 공예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중하게 오랫동안 지속해 온 문호리리버마켓 10년이 <서울디자인 2023>에서 10일 동안 펼쳐집니다.

농치지 말아야 할 것

문호리리버마켓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준비했다. 개막식에서는 'Night in Desert'라는 이름으로 문호리 패션쇼를 즐길 수 있으며, 자연 놀이 창작 작품과 재활용품을 활용한 '꿈꾸는 체험', 그리고 정직하게 자연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창의적인 농부들의 생명을 향한 사랑도 확인할 수 있다.

시민과 공유하고 싶은 것

서로를 품는다는 것, 그리고 작은 배려

셀러 인터뷰

“남편과 함께 백자를 빚고 있어요. 기계의 힘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빚는 물레 성형을 해요. 손도 많이 가고 오랜 시간을 들이는 일이어서 물레 성형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는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요.”

“사람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주문도 수시로 받을 수 없고, 온라인 매장을 통해 한 달에 한두 번 주문 제작 접수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라인플로우의 백자를 완성하기까지 1년 반 정도 유약 만들기만 했어요. 그 결과 깨끗하고 단아한 라인플로우만의 백자가 탄생하게 되었죠. 백자는 음식을 담으면 또 다른 매력이 나오는 것 같아요. 디자인 마켓을 통해 많은 시민들과 백자의 아름다움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인플로우



플렉스

'유리'를 재료로 작품 활동을 하며 체험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 공방. 1200°C의 뜨거운 유리를 파이프가 아닌 입으로 불어 작품을 만드는 블로잉, 토치의 뜨거운 불로 유리 막대를 녹이는 기법인 램프워킹, 유리를 작게 잘라 투명한 유리컵에 붙이는 기법인 모자이크 캔들 홀더, 유리컵에 시트지를 원하는 모양으로 오려 붙이고 이를 고압의 모래를 싸서 컵을 깎는 기법인 샌딩이 있다. 플렉스는 이 모든 과정이 가능하다. <서울디자인 2023>을 통해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유리공예의 아름다움을 많은 관람객들과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ESG 트렌드 업사이클링에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폐유리병을 활용해 다양한 소품을 만들 수 있는 제품도 출시하고 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리 업사이클링을 통해 맑고 투명한 유리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지속가능성의 가치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주

깨달을 오情, 살 주췌 라는 의미가 담긴 오주는 다양한 금속공예 제품을 만든다. 핸드메이드 작업을 통해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자 하며 모든 제품을 사람의 손으로 만들다 보면 그 작업물에는 그 사람이 담긴다는 생각으로 늘 좋은 생각과 행복한 상상, 긍정적인 마음을 담아 만든다. 마켓에서는 은반지를 통해 고객과 소통한다. <서울디자인 2023>에서는 사람들 각자의 꿈이 이뤄질길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 반지'를 선보인다.

ESG 트렌드 소중한 의미를 지닌 액세서리를 리폼하고 고치는 작업을 했다. 값비싼 액세서리는 제품 구입처에 수리를 맡길 수 있지만 가격과 상관없이 소중한 추억이 담긴 액세서리는 마땅히 고칠 곳이 없다는 사실에 착안해 시작한 일이다. 수리를 통해 의미있는 물건을 더 오래 간직할 수 있어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Design Market

DDP Design Launching Fair Market

This event serves as a premier showcase for the domestic design industry, setting the pace for design trends. The innovative design products, spanning household goods, lighting, and furniture, unveiled at the 2023 DDP Design Launching Fair will be available for purchase through live commerce.

Refurbished Design Market

This market provides an opportunity to acquire aesthetically pleasing design products at excellent prices. Products with minor flaws or those available in stock can be purchased at discounted rates.

The Small Business ESG Trend Market

Discover design products from 24 small businesses capturing the attention of Millennials and Gen Z. Highlighting not only trendy designs but also strong ESG values, this market showcases products from sellers dedicated to both style and sustainability.

Global ESG Trend Market

Featuring 24 brands from 19 countries, this market offers a diverse exploration of design reflecting various cultures. Participating countries include those from Europe, such as France, Italy, the United Kingdom, and Bulgaria; Asia, covering Myanmar, Vietnam, Indonesia, India, and Nepal; Africa, with representatives from Tanzania and Egypt; Latin America, including Peru and Colombia; and the United States.

Moonhori ESG Market & Kids Economy Market

The Moonhori River Market was initiated to foster a sense of letting go and mutual care, offering visitors comfort and hope. Beyond sales and profits, its mission extends to supporting Seoul Design 2023 based on these core values.

CEREMONY & EVENTS

부대행사 & 이벤트

부대행사 & 이벤트

208 영디자이너 취업컨설팅

214 <서울디자인 2023> 개막식

216 <서울디자인 2023> 시상식

222 공연 & 시민참여 이벤트

224 서울디자인스팟2023

240 협력 프로그램

영디자이너 취업컨설팅

16개 기업

17명의 멘토

28명의 영 디자이너

2회의 포트폴리오 멘토링

1회의 모의 면접



컨설팅 과정

오리엔테이션 및 1차 멘토링	2023년 7월 8일
2차 멘토링	2023년 8월 12일
모의 면접	2023년 9월 2일

참여 기업

카카오, 주식회사 디자인축, 토스, 삼성전자, 오세븐, 제로나인즈, 인터브랜드, 주식회사 유니체스트, 탤런트인사이트, SWNA, LG전자, 종킴디자인스튜디오, 프로젝트 36, CJ 라이브시티, CC1 등

영디자이너 취업컨설팅

디자인 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자인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취업 성공을 위한 프로젝트다. 취업을 원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현직 디자이너를 멘토로 포트폴리오부터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대해 일대일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 모의 면접을 진행하며 실질적 면접 노하우도 알려준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현직 디자이너 멘토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사명	영디자이너 취업컨설팅
개최 기간	2023년 7월 8일 - 9월 2일
행사 장소	DDP 디자인랩 2층





김나영

중근당 디자인 이사

‘영디자이너 취업컨설팅’은 재능 있는 디자이너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는가? ‘영디자이너 취업컨설팅’은 취업을 준비 중인 디자인 전공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가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해하는 순간에 자신보다 먼저 커리어를 쌓고 있는 선배를 통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플랫폼이다. 또 마라톤에서 선수의 완주를 돕는 페이스메이커처럼 자신이 목표하고 꿈꾸는 미래를 상상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경험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취업준비생이 혼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현직자들을 직접 만나면서 자신이 부족한 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디자이너로서 커리어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잡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좋은 디자인을 완성하는 것과 입사하는 것은 또 다른 애기다. 입사를 준비하는 디자이너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본인의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가꾸고 만들어내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를 소개한다면 어떤 브랜드라고 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나만의 장점으로 다른 이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 취업 준비생은 각자 지닌 장점과 단점이 다르다. 그중 자신만의 역량,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치 있게 보여주는 것, 즉 자신을 브랜딩해 장점을 최대한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자신만의 목표 설정이다. 취업은 결국 이를 이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영디자이너 취업컨설팅’을 통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멘토가 도우며 모의 면접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다.

‘영디자이너 취업컨설팅’은 멘토의 역할이 중요하다. 멘토 선정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하다. 올해 ‘영디자이너 취업컨설팅’ 멘토는 공고를 통해 선발했다.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원하는 기업을 확인한 다음 직접 디자인 에이전시와 기업에 연락해 멘토링을 부탁했다. 더불어 2021년부터 진행한 ‘멘토 풀’ 중에서도 선정했다. 멘토를 선정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실무 경력, 인성, 멘토링 경험이었다.

멘토가 참여함으로써 취업 준비생은 가고 싶은 기업과 디자인 에이전시의 현직 선배를 만날 수 있게 한다. 이를 통해 기업에 어떻게 입사할 수 있는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해야 할지, 어떤 역할을 보완해야 할지 직접 컨설팅을 받아볼 수 있다. 또 가고자 하는 기업의 분위기도 생생하게 알 수 있으며, 멘토들의 입사 경험을 들으며 기업을 간접경험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디자이너는 재능도 중요하지만 그 재능을 발굴하고 세상으로 끌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서울디자인 2023>이 이를 위해 올해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가? ‘가치 있는 동행(Valuable Life)’를 주제로 한 <서울디자인 2023>의 의미처럼 디자인의 가치를 발굴하고 소상공인 매칭부터 기업과 디자이너, ‘영디자이너 취업컨설팅’ 등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가 함께하며 가치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국내의 기업, 기관, 디자이너,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까지 아우르며 이들이 함께 가치 있는 디자인을 논하고 도시의 미래가치를 높여나가는 것은 물론, 서울을 대표하는 디자인 축제로서 기틀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디자이너는 여러 프로젝트를 한 번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한다. 짧은 시간 안에 프로젝트의 문제점, 방향성 등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디자이너를 꿈꾸는 지원자들에게 포트폴리오는 첫인상이 되어주는 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다. 가장 잘한 프로젝트를 앞부분에 배치하고 지인이나 다른 디자이너에게 보여주어 다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 자신이 하고 싶은 것과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야 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뤄갈 수 있다. 목표 의식과 꿈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은 물론 다른 작업물을 보며 자신이라면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다.” 정하진 — 인터브랜드 총괄이사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중요한 역량 중 하나는 소통이다. 기획, 마케팅, 영업, 제조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과 만나 작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디자인한 작업물을 실제 제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는 무엇보다 디자인 의도와 콘셉트가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너무 많은 것으로 채우기보다 자신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와 콘셉트가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그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채우는 것만큼이나 비우는 것이 중요하다. 회사마다 주력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전면에 배치하고 후반에 다른 작업을 배치하면서 작업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것이 좋다. 또 회사 입장에서는 진정성 있고 디자이너로서 고민이 담긴 것을 찾게 된다. 꿈을 가진 영디자이너들이 자신만의 가치와 색깔을 가지고 현업에 진출해 역량을 펼쳐 보이기를 바란다.” 권규환 — SWNA 리드 디자이너

올해 ‘영디자이너 취업컨설팅’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와 올해 새롭게 준비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올해는 2022년 대비 멘토링 횟수보다는 학생이 원하는 기업의 멘토와 직접 연결해 확실한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그뿐 아니라 컨설팅을 진행하며 포트폴리오를 비롯해 취업 준비의 완성도를 높인 학생들은 모의 면접을 통해 취업 준비를 더욱 꼼꼼히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모의 면접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멘토링과 기업 HR 담당, 기업 디자인 팀장, 헤드헌터 참여로 디자인 분야 취업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제공했다. 일련의 과정은 입사를 위한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있다.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자신이 디자인 작업을 하려는 분야나 상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기업에서는 디자인안을 설명할 때 제품 특성을 파악하고 어떤 색감과 어떤 콘셉트로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강조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설명해야 본인의 디자인이 선택되고 제품화가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다른 팀, 다양한 사람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다. 디자인 업무는 혼자 작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마케팅, 영업 관련 방향성을 논의하고 고객의 니즈와 요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개발할 때 완성도가 높아지고, 타깃층에 맞는 디자인을 선보일 수 있다. 자신과 다른 생각을 ‘틀리다’라고 규정하는 대신 폭넓게 이해하고 함께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경쟁사 트렌드를 파악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 디자인 업계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무엇이 다른 디자인이 쏟아진다. 그 때문에 현재 어떤 환경에서 제품이 팔리고 어떤 형식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어떻게 고객의 마음을 끌고 있는지 세세히 파악하면서 생태계 분석을 해야 한다.

“이 시대에는 디자이너의 역할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생각한다. AI 기술이 발전하고 누구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보다는 경험이다.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고, 결단 아름다운 결과물에 치중하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고 기획력이 탄탄한 디자이너가 많이 등장하길 바란다. 당장 취업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꿈꾸는 10년 후 자신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따라 취업의 방향성도 결정해야 한다. 내 경우 개인 스튜디오 여는 것을 장기 목표로 설정해 취업을 준비했다. 그리고 결과물보다는 발전 과정을 스토리처럼 흥미로운 방식으로 보여주어야 했다. 회사로서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스펀지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간다. 다른 색을 빨리 흡수하는 능력은 상업 예술가에게 꼭 필요한 덕목이다. 다양한 것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디자이너로서도 성공할 수 있다.”

김종완 — 종킴디자인스튜디오 대표

This initiative caters to young designers who have recently graduated or are on the verge of completing their studies at a design university, gearing up for entry into the professional design arena. Participants are offered the chance to engage in one-on-one consultations concerning portfolios, resumes, and cover letters with experienced designers currently employed in the desired companies, serving as mentors. Additionally, practical insights into interviews are provided through mock sessions, offering valuable knowledge on the skills sought by companies, as revealed in interviews with the current designer mentors.

Nayoung Kim
Director of Design at Chongkundang

How do you perceive 'Young Designer Employment Consulting' as a platform for nurturing talented designers? 'Young Designer Employment Consulting' serves as a guiding platform for design graduates and soon-to-be graduates navigating the complexities of entering the workforce. It offers clarity to those seeking employment, connecting them with seasoned professionals who share insights from their own career journeys.

Talent is paramount for a designer, and equally crucial is the recognition and unleashing of that talent into the professional sphere. In what capacity do you believe 'Seoul Design 2023' contributed to this aspect this year? Regarding Seoul Design 2023, I believe it has laid a foundation for the Seoul Design Festival to emerge as a representative design festival in the city. By bringing together domestic companies, organizations, designers, and aspiring students, the festival fosters discussions on valuable designs and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future value of the city.

What are the standout accomplishments of this year's Young Designer Employment Consulting, and what novel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for this year? This year, our focus has shifted. Instead of increasing the number of mentors compared to 2022, we directly facilitated connections between students and mentors from their desired companies, ensuring a robust opportunity for each participant. Moreover, students who enhanced their portfolios and job readiness during the consulting process were well-prepared for mock interviews. Notably, the mock interviews featured mentoring on resumes and cover letters, with the active involvement of corporate HR representatives, design team leaders, and headhunters—providing comprehensive support for employment in the design field.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덕업일취월장’이 되어야 한다. 디자인이 생계 수단일 뿐 아니라 디자인을 사랑하고, 디자인에 대한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덕업일치를 이뤄 ‘일취월장’하자는 의미다. 디자인은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한다. 좋은 디자이너 역시 주변을 계속 관찰하며 새로운 디자인은 무엇이고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연구해야 한다. 이런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필수 과정인 포트폴리오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잘 프로모션해야 한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표현하고 이를 드러낼 수 있는 그래픽 요소가 들어가면 더할 나위 없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잘 배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무엇이든 잘해 낼 수 있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강점이 무엇인지 잘 드러내는 자원자에게 더 눈길이 간다. 어떤 디자이너로 성장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디딤돌이 되어줄 회사를 만나 덕업일취월장을 이뤄나가기 바란다.” **정상욱 — 제로나인즈 대표**

“디자인은 일종의 문제 해결 능력이며,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는 ‘만능 해결사’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력과 통찰력, 유연한 사고, 긍정적 마인드, 적극적 자세 그리고 자신의 성과물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필요하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는 과거 결과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도록 자신이 주인공인 드라마 한 편을 제작하듯이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프로젝트에 대한 문제 인식을 시작으로 해결을 위한 시도, 명확한 결과물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배운 점까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디자인의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으며, 누구나 쉽게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하지만 그만큼 전문성이 중요해졌다. 취업에는 성공과 실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취업에 성공한 사람과 준비 중인 사람이 있을 뿐이다. 모두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길 바란다.” **홍정원 — 텔런트 인사이트 대표**

“디자이너에게 소통은 매우 중요한 역량이다. 학생일 때는 자신이 혼자 기획해도 충분하지만 협업할 때 대신 기획해주는 사람이 별도로 있을 수 있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고 협업을 반복하며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는 지원 기업에 대한 조사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지원자가 갖추고 있다는 것을 포트폴리오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요즘 중요하게 보는 것은 편집과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감각이다. 디자인의 기본이 탄탄해야 한다.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데도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포트폴리오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어놓은 다음 객관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발전할 수 있다.” **배수규 — 오세븐 대표**

“실무에 투입되는 순간 모두가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다. 그동안 익힌 것을 잘 발휘할 기회를 만나기 위한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원을 뽑으려는 회사의 목적을 잘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하려는 회사가 지금까지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알아보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한다. 유니체스트는 제품 디자이너를 채용할 때 제품디자인에 대한 포트폴리오만 확인하지 않는다. 제품 디자인을 구성한 비례와 균형, 컬러 배합 등 시각디자인 영역도 살펴본다. 시각디자인에 대한 기본 감각이 잘 갖춰진 디자이너를 원하기 때문이다. 많은 영 디자이너가 포트폴리오를 차곡차곡 쌓고 디자이너로서 시야도 넓혀가며 계속 도전해 나가기를 바란다.” **조성환 — 주식회사 유니체스트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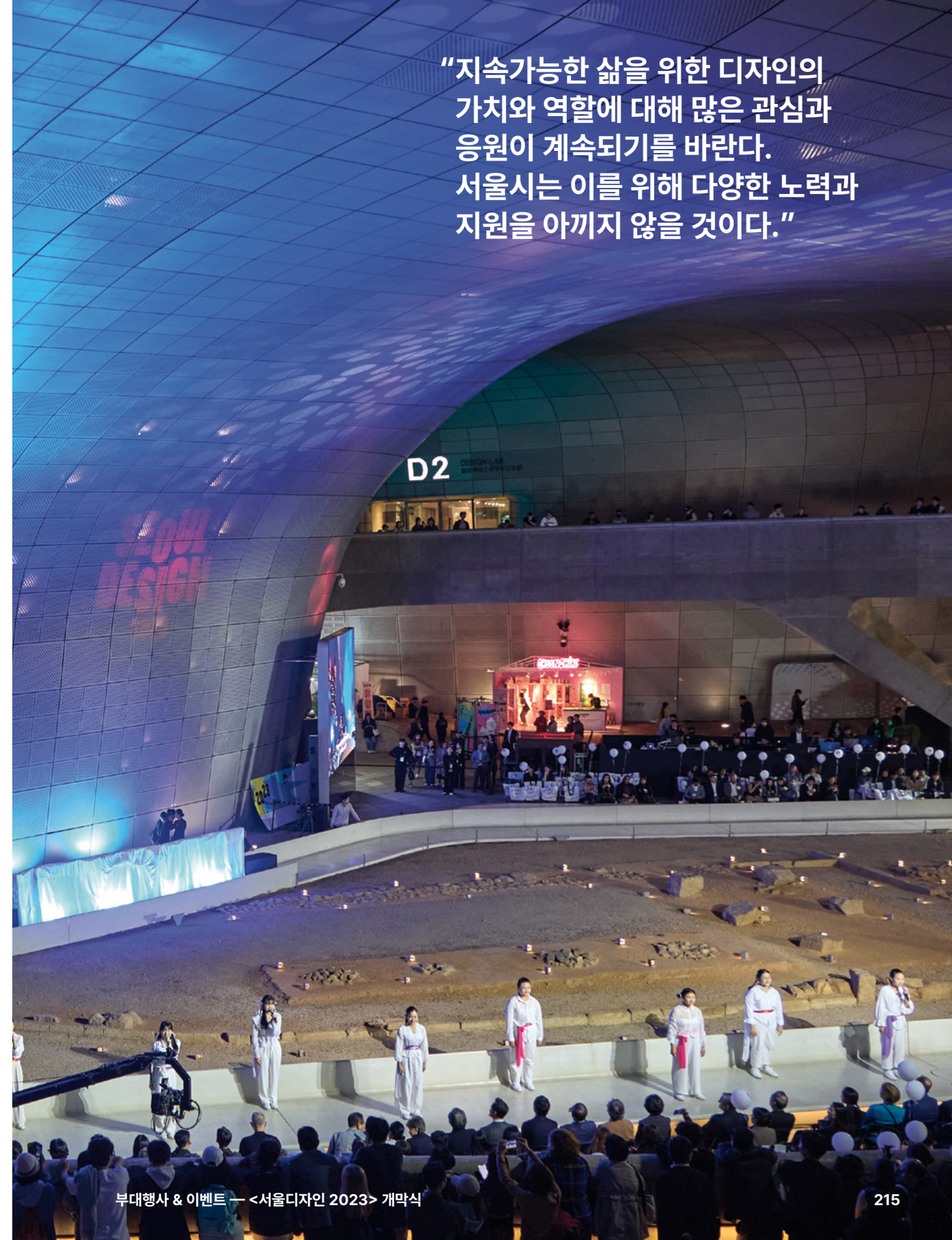
“디자이너는 상업성을 갖춰야 한다. 주니어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다 보면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만 작업하려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실무는 ‘돈’이 오가는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고려하며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해야 하는 셈이다. 나는 대단한 곳에서 디자인을 시작하려고 하기보다 일단 실무에서 많은 경험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런 아웃풋이 쌓이고 쌓여 좋은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이직을 하며 발전해 나갔다. 처음부터 엄청난 결과물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려고 하기보다는 경험을 쌓으며 포트폴리오를 채워가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디자이너에게 또 하나 중요한 역량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디자인을 통해 사용자에게 어떤 메시지나 의도를 전달할 것인지, 대화가 되는 디자이너라면 주저하지 않고 채용하고 싶다.” **이요한(존코바) — 프로젝트 36 대표**

<서울디자인 2023> 개막식

서울시가 주최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이 주관하는 <서울디자인 2023> 개막식이 10월 25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에서 열렸다. DDP를 중심으로 서울 곳곳에서 열리는 디자인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해 세계적 건축가 반 시계루,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등이 함께했다. 서울디자인재단 이경돈 대표이사는 “‘가치 있는 동행’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서울디자인 2023>의 문을 열게 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다. 빛나는 아이디어를 지닌 소상공인과 많은 기업, 그리고 청년들이 함께하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환영사를 전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ESG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응원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디자인을 매개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로 축사를 전했다. 이어서 “많은 분이 축제를 즐기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도시의 가치와 역할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말로 <서울디자인 2023>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했다.

개막식 마지막 순서의 주인공은 이 시대의 미래인 어린이들이었다. 참석자와 어린이들이 손을 마주 잡고 부른 ‘아름다운 세상’은 디자인을 통해 ‘가치 있는 동행’의 답을 찾고자 하는 <서울디자인 2023>의 메시지를 감동적으로 전달했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디자인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많은 관심과 응원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서울디자인 2023> 시상식

10월 25일 DDP 아트홀 1관에서는 <서울디자인 2023>의 시상식이 열렸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가치 있는 동행'이 일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한 디자이너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환영사로 어워드의 문을 열었다. "서울에도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디자이너가 서울을 찾고 각국 대사가 참석한 것을 보니 '서울디자인 어워드'가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 한달음에 달려와 준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무대에 오르기 전 어워드 수상작을 살펴봤다. 디자이너의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우리를 즐겁게 하고 순간순간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디자이너의 훌륭한 아이디어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응원의 말도 전했다.

시상은 '서울디자인어워드', 'DDP디자인론허핑페어', '기업+영디자이너 브랜드 전시'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되었다. 'DDP디자인론허핑페어' 부문에서는 총 7팀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소상공인의 제조기술과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182개 제품 중 상위 우수제품 3개와 시민투표로 선정된 인기제품 1개에 수여하는 '베스트디자인'상에는 바닥면의 반사를 통해 확장되는 공간의 느낌을 새롭게 해석한 사이드테이블 'Extension'(띵커+스튜디오 룩앳), 빛의 방향과 배광을 조절해 특별한 무드를 연출할 수 있는 '바이브 라디램프'(무디스+윤경현), 연결과 조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 액세서리 트레이 'Circular Connection'(세현테크+컨투어스튜디오), 버려지는 알루미늄 덩어리를 활용한 리빙소품 'XCIX'(이시산+김병섭)이 선정됐다.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 우수 디자인 스튜디오에 수여하는 '베스트론허핑'상에는 차임 벨의 형상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휴대용 조명 '더 벨', 캠핑을 위한 오브제 무선청소기 '오비큐에어 캠퍼' 등을 출시한 브랜드 '모온'이 수상했다. 마지막으로, 과거 'DDP디자인론허핑페어'에서 개발된 제품 중 실제로 출시되어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제품에 수여하는 '베스트활동'상에는 좁은 공간에서 쓰임새가 더욱 빛나는 컷 타워 '하임'(나미가구+호우디자인)과 자연 영감 패턴의 물세탁 가능 소재의 '티가든 러그'(라이디스+비포 머티브)가 선정됐다.



디자인 대학과 국내외 기업이 협업해 MZ세대의 시각으로 기업의 ESG방향의 제품과 브랜드를 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선보인 '기업+영디자이너 브랜드 전시' 부분에서는 'Amoredo^{아무래도}'팀 (아모레퍼시픽+서울시립대학교 산업디자인전공)이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조망하는 '서울디자인어워드'에서는 4개 프로젝트가 수상했다. 올해 공모 주제는 '사람과 사회, 환경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일상을 위한 디자인'. 최고상인 대상에는 튀니지의 '암포라 Amphora'가 선정되었다. 태양열과 공기 중 습기를 이용해 안전한 식수를 만드는 항아리 모양의 암포라는 특별한 장치 없이 자연을 이용해 식수를 만들 수 있어 물 부족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식수를 공급할 유용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2등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는 3팀이 선정되었다.

창의성/혁신 Creativity/Innovation 부문에는 태국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실의 변신', 참여/협력 Participation/Cooperation 부문에는 태국의 '양실라 굴 양식 파빌리온', 영감/영향 Inspiration/Impact 부문에는 한국의 '제리캔 백'이 선정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실의 변신'은 학교의 낡은 도서관을 시각장애 아동의 특수 조기 교육을 돕는 다감각 체험 교실로 리모델링한 프로젝트로, 시각장애 아동들은 교실 벽면에 설치된 학습 핀을 만지며 감각을 익히고 바닥의 장치를 통해 점자를 체험으로 배운다. '양실라 굴 양식 파빌리온'은 굴 양식장 구조를 재설계해 생태 관광이라는 새로운 경제구조를 창출한 프로젝트다. 한편, '제리캔 백'은 아프리카 어린이가 제리캔(물통)을 안전하게 옮길 수 있도록 돕는 운반용 가방으로 가방 뒷면에 반사판이 부착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인다.

지속가능한 삶을 고민하고 탐구하며 실현하는 디자이너들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뜨거운 열망은 보다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 자리에 함께한 모두가 디자이너의 노고를 치하하며 시상식이 마무리되었다.

Opening Ceremony for Seoul Design 2023

The opening ceremony for Seoul Design 2023, hos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organized by the Seoul Design Foundation, took place on October 25 at Dongdaemun Design Plaza (DDP). Seoul Mayor Oh Se-hoon, renowned architect Shigeru Ban, In Kyu CHOI, Director-General of Design Policy Bureau, and Seoul Design Foundation CEO Rhee Kyung-don came together to commemorate the design festivals occurring across Seoul. Mr. Rhee expressed his joy and gratitude for inaugurating Seoul Design 2023 with the theme 'Valuable Life.' He expressed his hope that the event would evolve into a global festival uniting small businesses with innovative ideas, numerous companies, and the younger generation.

Meanwhile, Mayor Oh Se-hoon emphasized, "For a sustainable life, 'ESG' is not an option but a necessity. I hope there will be significant interest and support for the value and role of design in promoting sustainable living. Seoul City is committed to exerting every effort and providing support for this cause. I look forward to walking this journey together through design," he conveyed in his congratulatory remarks. He reiterated his hope that many individuals would partake in the festival, enabling them to appreciate the significance and role of cities in fostering sustainable living.

Concluding the opening ceremony, the spotlight shifted to children, representing the future of this era. The rendition of the song "A Beautiful World," performed by both attendees and children hand in hand, deeply resonated with the audience. This musical moment encapsulated the essence of Seoul Design 2023, aiming to discover the essence of 'Valuable Life' through the medium of design.

Award Ceremony for Seoul Design 2023

On October 25, the award ceremony for Seoul Design 2023 took place at DDP Art Hall 1.

The awards were presented in three categories: 'Seoul Design Award,' 'DDP Design Launching Fair,' and 'Corporate + Young Designer Brand Exhibition.' Within the 'DDP Design Launching Fair' category, a total of seven teams received honors.

The 'Best Design' award, acknowledging the top three products from a pool of 182 creations resulting from the collaboration between small business manufacturing technology and designers' ideas, along with one popular product chosen through citizens' votes, includes 'Extension' (Thinker + Studio Look At), a side table reinterpreting the sensation of an expanding space through floor reflections; 'Vibe Radilamp' (Mudix + Kyunghyun Yoon), capable of creating a unique mood by adjusting light direction and distribution; 'Circular Connection' (Saehyun Tech + Contour Studio), an accessory tray conveying the essence of connection and harmony, and 'XCIX' (Sisan Lee + Byungseop Kim), a living object utilizing discarded aluminum chunks.

The 'Best Launching' award, honoring exceptional design studios for introducing new products, was conferred upon MO-ON, which showcased 'the Bell,' a portable light drawing inspiration from the form of a chime bell, and 'Obicum Air Camper,' a cordless vacuum cleaner designed for camping. Concluding the accolades was the 'Best Activity' award, recognizing products launched following the previous DDP Design Launching Fair that have demonstrated success in the market. This award was granted to 'Heim' (Nami Furniture + H.O.U. Design), a cat tower suitable for small spaces, and 'Tea Garden Rug' (Likethix + Be formative), featuring a water-washable material adorned with a nature-inspired pattern.

Within the 'Corporate + Young Designer Brand Exhibition' section, the 'Amoredo' team (Amorepacific + University of Seoul Industrial Design Majors) was selected as the top-performing team, highlighting collaborative efforts between design universities and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in developing ESG-oriented products and brands from the perspective of Millennials and Generation Z.

Four projects were recognized at the 'Seoul Design Awards,' which centers on the creation of inventive and sustainable solutions for everyday challenges. This year's competition aimed to foster a harmonious relationship between people, society, and the environment. The prestigious Grand Prize was awarded to 'Amphora, a jar-shaped device from Tunisia. Amphora garnered acclaim for harnessing solar power and airborne moisture to generate safe drinking water, showcasing its ability to provide a sustainable water source in water-scarce regions without the need for specialized equipment.

The second-place recognition, Best of the Best, was bestowed upon three exceptional projects. In the Creativity/Innovation category, Thailand's 'Transforming a Classroom for the Visually Impaired' stood out. This project revamped an old library into a multi-sensory experience classroom, supporting specialized early education for blind children. The Participation/Cooperation category featured Thailand's 'Ancilla Oyster Farming Pavilion,' which reimagined the structure of an oyster farm, creating a new economic model centered on ecotourism. Additionally, in the Inspiration/Impact category, South Korea's 'Jerrycan bag' was acknowledged. This carrying bag aids African children in safely transporting Jerrycan bag (water containers) and includes a reflector on the back to mitigate the risk of traffic accidents.

The transformative initiatives showcased a passionate commitment among designers to envision, explore, and actualize sustainable living, instilling optimism for a brighter future. The ceremony concluded with attendees commending the designers for their dedicated efforts.

공연 & 시민참여 이벤트

<서울디자인 2023>이 열리는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보다 큰 즐거움을 선사하기 위해 다양한 버스킹 공연과 이벤트를 개최했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마술을 비롯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버스킹 공연이 펼쳐지고, 푸짐한 선물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 이벤트까지 DDP 곳곳이 디자인 축제의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공연자 소개

곽태원 마술사/ 백찬란 마술사
다채로운 관객 참여형 마술을 선보인다.

버스킹 공연자
수우 / 김민진 / 박주선 / 이서현 / 이수지 / 예서인 / 장재원 / 정은빈 / 함원석 / 소누스 뮤직 / 문호리 공연

현장 이벤트

스탬프 이벤트
DDP디자인론틈칭페어, 문호리 ESG 마켓, 반 시계루 재난주택 모듈 전시, 제로 웨이스트 파빌리온, 기업+영디자이너 브랜드 전시 입구에 각각 다른 스탬프 스폿을 마련해 5개의 스폿을 모두 찾아 스탬프를 모으면 업사이클링 키 링과 생분해 성분으로 만든 볼펜, 리유저블 백 등의 굿즈나 솜사탕 교환권을 받을 수 있다.

방문 인증 이벤트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다채로운 볼거리가 풍성했던 <서울디자인 2023>에 대한 관심은 SNS에서도 뜨거웠다. 방문 인증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서울디자인 2023' 이 포함된 게시 글을 업로드한 후 이벤트 부스에 화면을 제시하는 시민에게는 리유저블 백을 증정한다.

종이 가방 이벤트
'가치 있는 동행'을 주제로 한 <서울디자인 2023>에서는 ESG의 가치를 반영한 이벤트를 만날 수 있다. 쇼핑백 5개를 모아 운영 부스에 가져가면 리유저블 백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쇼핑백이 아니라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일상 곳곳에 자리하며 시민 모두가 ESG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서울디자인스팟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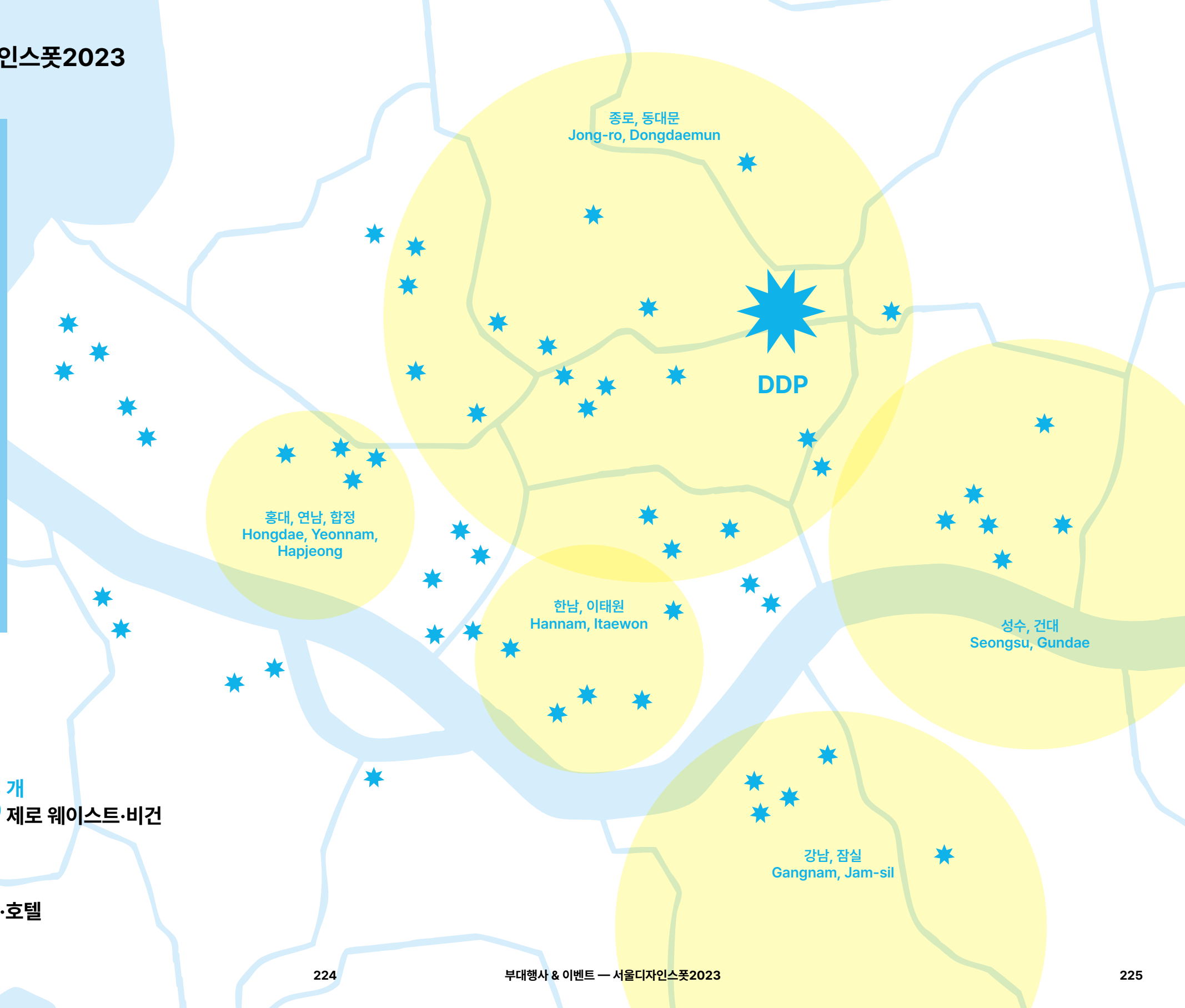
서울디자인스팟2023

'디자인 트렌드세터'로서 영향력을 지닌 서울의 '힙 & 핫 플레이스'를 발굴해 '서울디자인스팟2023'으로 시민들에게 소개한다. 서울 전역의 전시, 카페, 시설, 스튜디오, 숙박, 식당 등을 매해 <서울디자인> 기간 협력하며 홍보와 이벤트를 통해 국내외 방문객이 상호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 서울 전역이 '디자인 축제의 장'이자 '디자인 비즈니스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이끈다.

서울의 '힙 & 핫 플레이스'는 디자인 트렌드의 원천이며 도시 마케팅의 핵심 콘텐츠이고, 서울의 미래 유산이다. '서울디자인스팟2023' 지도와 포스터 제작 배포를 통해 국내외 여행객이 더욱 쉽게 서울의 '힙 & 핫 플레이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디자인스팟2023'은 <서울디자인 2023>의 일환으로 보다 폭넓은 시민 참여를 이끌고 사업의 공간적 확장을 이룬다. '서울디자인스팟2023'에 선정된 현장에는 통합 홍보 리플릿과 포스터, 플래그가 배포·부착되며 디자인 축제를 함께한다.

웹사이트 seouldesignspot.or.kr



50개 디자인숍

46개 제로 웨이스트·비건

50개 식당·카페

8개 숙박·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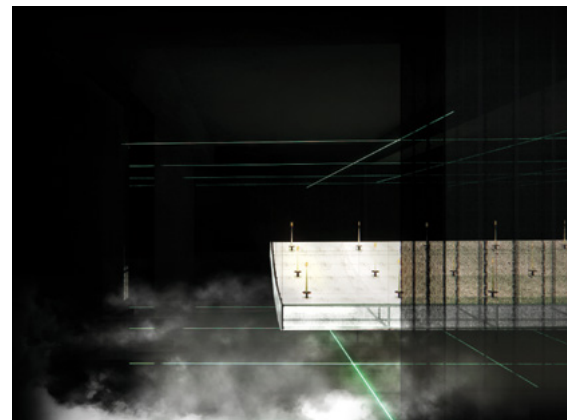
그린칩스



인스타그램 @greenchips_seoul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도 감자칩을 먹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 개발한 마케팅 브랜드. 올해 처음 지속가능성을 고민한 다양한 디자인 제품과 서비스를 한데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린칩스 페스티벌 2023'이 연남동과 연희동, DDP에서 열렸다. 이 행사에는 폐섬유, 재생 가죽, 자연 추출물, 자연분해성·재활용성 소재 등을 사용한 제품을 보유한 우수 디자인 기업 17곳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일상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였다. 물에 녹는 생리대를 개발한 '어라운드바디'와 내열성과 내구성이 강한 신소재 에코젠으로 다회 용기를 만드는 '푸들'을 비롯해 폐교복을 활용해 가방을 만드는 '리버드', 톱밥으로 머그잔을 만드는 '랩엠제로' 등 지구를 위한 기업들이 지구를 위한 다채로운 아이템을 소개한다.

종킴디자인스튜디오



주소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42가길 46
웹사이트 www.jongkimdesign.com

공간 전략 디자이너 종킴(김종완)을 중심으로 국내 유명 브랜드의 공간을 디자인해 온 디자인 스튜디오. 최근 종킴은 저서 <공간 산책>을 펴내며 디자이너이자 대표로서 7년간 200여 곳이 넘는 공간을 완성한 기록을 남겼다. 공간이 주는 선한 영향력을 믿으며 브랜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브랜딩부터 사무실과 상업 공간, 전시장 등 목적에 맞는 디자인으로 채운 공간까지 디자이너로서 종킴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선택지



주소 서울시 강동구 천호옛12길 47
인스타그램 @suntackz

'니가 그러다고 지구가 달라지는 선택지'. 제로 웨이스트 숍 '선택지'에서는 플라스틱 병뚜껑으로 만든 비누 거치대, 고체 비누, 바다에서 주운 유리 조각으로 만든 미니 브로치 등 지구를 위한 다양한 선택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중 비누 거치대는 페트병 뚜껑처럼 플라스틱 재활용 과정에서 제외된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 만들었다. 12개의 병뚜껑으로 21g의 비누 받침을 만들 수 있다. 선택지는 <서울디자인 2023> 기간에 플라스틱 공방 '플플'의 작업 도구 및 기계, 작업 결과물을 전시한다.

타이니포레스트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0길 18-4 1층
인스타그램 @tinyforest_official

식물을 가까이 하는 일은 기후변화를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다. '숲이 되고 싶은 작은 정원'이라는 의미를 담은 타이니포레스트에서는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다양한 반려식물을 판매하며, 원하는 식물로 테라리움도 제작해 준다. 빈 화분이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컵을 활용해 식물을 심는 '제로 가드닝'도 만날 수 있다. <서울디자인 2023> 기간 매장을 방문하면 귀여운 노란색 화분에 심어놓은 피시본 선인장과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박물관·미술관·문화공간

개봉책방

15년 차 심리치료사가 운영하는 심리 전문 독립 서점으로 매달 마음과 심지를 주제로 한 책을 소개하며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

서울시 구로구 경서로 1나길 5-1 101호 litt.ly/gaebong_books

구겐겔러리

국내 유명 일러스트 작가들의 전시가 매월 새롭게 진행되며 일러스트 굿즈 숍과 갤러리 카페, 미술 공방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1 101동 306호 www.goocan.co.kr

아케이드서울

현대 도시인을 위한 패션, 브랜드, 디자인, 전시, 팝업 행사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큐레이팅해 선보이는 감도 높은 공간.

서울시 영등포 도림로 128길 23 @arcade.seoul

노말에이

디자인스튜디오 131WATT가 운영하는 소규모 서점으로 직접 엄선한 다양한 국내외 서적과 문구류를 밀도 있게 소개한다.

서울시 중구 마른내로 12 4층 normala.kr

라이크디즈

문턱 없는 아트 갤러리를 지향하며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공간에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16 유원빌딩 1602호 www.likethiz.com

종이나라박물관

1999년 개관해 우수한 한국의 종이와 종이접기, 종이 문화예술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한 연구와 교육 및 전시를 진행한다.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66 종이나라빌딩 2층 @jongienara_paper_art_museum

아트조선스페이스

다양한 매체의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조선미디어그룹의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외부에서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0 1층 www.artchosunspace.com

더레퍼런스 x SeMA

예술과 전시가 있는 서점을 모토로 전시와 연계한 아트 북 큐레이션을 통해 책을 매개로 예술을 경험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61 서울시립미술관 3층 www.the-ref.kr

4233마음센터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체험형 심리 전시관으로 두 사람이 함께 진행한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43 B1층 4233.kr

인생도서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라이프 톨킷, 굿즈, 책 등을 구입할 수 있고 자기 탐구, 미래 설계 등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8길 61 1층 lifelibrary.com

아띠나갤러리

신진 작가들의 작품을 주기적으로 전시하며 장르와 스타일을 가리지 않는 예술의 가능성과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25 성자빌딩 4층 @galerie.athena

창작살롱 시간공간

분야를 가리지 않고 창작자가 자유롭게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공연장이자 이벤트 홀, 전시장이다.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25 성자빌딩 지하

@timefactory.tv

미드나잇 소사이어티

대화를 통해 영감을 얻고 예술과 창작의 세계로 떠날 수 있는 소셜 살롱 성격의 라운지 바.

서울시 관악구 관천로 25 B2층 @_midnight_s_

캐비닛클럽라운지 역사점

아티스트의 전시와 함께 ‘카페 진정성’ 메뉴를 즐길 수 있는 로비 라운지. 다채로운 분야의 예술 전시 및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72 1층 www.cabinetclub.co.kr

레코드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공간에서 청담점만의 익스클루시브 제품을 비롯해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75길 11 @recode_

무아레 서점

‘장안생활’이라는 공유 주택 내에 있는 독립 서점. 주민 커뮤니티형 서점으로 집, 도시, 건축 등 생활 공간을 테마로 한 책과 모임을 만들어간다.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89길 9 2층 @moire_books

어쩌다산책

단정하고 편안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서점으로 계절마다 하나의 주제를 정해 읽을 것과 마실 것을 소개한다.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101 B1층 @ujd.promenade

서촌 그 책방

이곳 책방지기가 직접 읽고 좋았던 한국 인문학 책을 소개하며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는 독서 모임과 글쓰기 교실을 운영한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5가길 30-1 @seochonbooks

공간:일리

100년 된 옛 가옥에서 실험적인 전시와 퍼포먼스, 진(Zine) 워크숍, 아티스트 토크, 큐레이션 북 토크 등을 전시와 연계해 진행한다.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9길 19(안채) linktr.ee/spacelli

아르코미술관

연구, 창작, 전시, 교류 활동을 선순환하는 플랫폼 기능의 미술관으로 특히 시각예술의 가치를 발굴하고 공유한다.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www.arko.or.kr/artcenter

더레퍼런스 서울

‘예술과 전시가 있는 서점’을 모토로 예술과 작가의 책을 기획하는 대안 공간이자 커뮤니티 공간. 전시와 연계한 아트 북 큐레이션을 선보인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24길 44 www.the-ref.kr

풀무질

1985년부터 자리를 지켜온 인문·사회·과학 서점. 시대의 변화에 맞춰 주인은 바뀌어왔지만 사상의 불을 지핀다는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19 B1층 poolmoojil.com

비하림 서점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독립 서점. 문학·인문 서적과 소규모 출판물을 소개하며 글쓰기 수업과 북 토크, 낭독회 등의 모임도 진행한다.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153 1층 smartstore.naver.com/ bihwarim_bookshop

중간지점 하나

주로 시각예술 범주 안에 있는 다양한 작업과 공간, 장르의 경계선에 있는 예술 행위들이 이뤄지는 곳.

서울시 중구 을지로14길 15 장양빌딩 703호 @jungganjijeom_1

중간지점 둘

주로 시각예술 범주 안에 있는 다양한 작업과 공간, 장르의 경계선에 있는 예술 행위들이 이뤄지는 ‘중간지점’의 두 번째 공간.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5길 5 지하 @jungganjijeom_1l

인왕산 초소책방_더숲

인왕산 종턱에 자리 잡은 책방으로 경찰 초소를 리모델링했다. 등산객과 주민들의 심터이자 커피와 빵도 맛볼 수 있는 카페도 겸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172 chosobooks.com

보안책방

동시대 작가들의 아트 북과 전시 도록, 독립 출판물, 기존 작품을 확장하는 아트 리벌드 작품 등을 선별해 소개한다. 굿즈, 신간 소재 및 작품집도 둘러볼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효자로 33 신관 2층 @boanbooks

책방연희

다른 서점과 차별화된 책 선정과 문화 프로그램을 추구하는 도시인 문학 서점으로 책과 도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35길 3 B1층 www.yeonhui.com

고요서사

문학 중심의 도서를 소개하는 작은 서점. 독서 모임, 읽고 쓰기에 관한 워크숍과 책 관련 이벤트도 기획하며 음료나 굿즈는 판매하지 않는다.

서울시 용산구 신흥로15길 18-4 1층 @goyo_bookshop

그래픽

간간한 취향으로 엄선한 만화책과 그래픽 노블, 아트 북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서점으로 입장료를 내고 시간 제한 없이 책을 보며 음료와 커피를 즐길 수 있다.

서울시 용산구 회나무로39길 33 @graphic.fan

포스트 포에틱스

크고 작은 출판사의 미술, 건축, 디자인, 사진, 패션, 문화 등을 다루는 서적을 소개하며 동명의 서점을 온라인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54길 19 postpoetics.kr

스프링플레어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다양한 방법을 담은 책을 소개한다. 전시 공간 ‘챗터투’와 카페 ‘벌스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7길 53 1층 @springflare.kr

번역가의 서재

현역 번역가가 엄선한 좋은 번역서로 꾸러진 서점. 다양한 장르의 번역서를 구비하고 있으며 국내에 덜 알려진 각국의 좋은 작가들과 작품을 알리는 마음을 담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17길 67 1층 101호 @t1bseoul

하우스젠니

명동에 위치한 친환경 업사이클링 문화공간으로 이젠니 에코 디자이너의 젤니클로젯 쇼룸, 업사이클링 클래스, 카페로 구성돼 있다.

서울시 중구 소공로 6길 13-7 www.zennycloset.com

간송옛집

한옥 탐방은 물론 음악회와 전시회, 야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문화재를 수호하고 후학을 양성하고자 했던 간송의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서울시 도봉구 시루봉로 149-18 www.kansonghouse.kr

금호미술관

한국 미술의 전체적인 전개 양상에 주목한 기획 전시를 선보여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전한다.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18 www.kumhomuseum.com

fyi

일하는 도시인을 위한 크레이티브 라운지로 카페, 브랜드 쇼룸, 팝업 스토어, 토크 콘서트 등의 콘텐츠를 선보이는 문화공간이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80 1층 @fyi_lounge

살롱 데 상

시간 여행을 경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8개의 다른 테마로 꾸며진 방에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네이버 예약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서울시 마포구 회우정로10길 32 2층 @salon_des_cent

스튜디오 159

고해상도 대형 LED 스크린과 최상의 조명 및 음향 설비를 갖춰 포럼, 토크쇼, 인터뷰 촬영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엑스 4층 @_studio159

서울역사박물관

조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며 25만여 점의 유물과 2022년부터 시작된 상설 전시를 통해 서울만의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museum.seoul.go.kr

한국디자인진흥원

건강한 디자인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자인을 통해 행복한 삶을 제안하는 공공기관으로 2023년 11월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자인산업 박람회인 <디자인코리아 2023>을 개최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kidp.or.kr

돈의문박물관마을

서울의 100년 역사와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올해 말까지 서울에 대한 개인의 기억을 수집한 <기억전당포: 1990 서울 나들이 展>을 진행한다.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14-3 dmvillage.info

storyA 북촌 조향사의 집

아모레퍼시픽에서 매년 새로운 콘셉트로 팝업 전시를 선보인다. 정원이 아름다운 양옥에서 11월 30일까지 조향사에 대한 판타지를 느낄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43 @storya_official

DDP

세계적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는 각종 전시, 패션쇼, 포럼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열리는 서울의 복합문화공간이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ddp.or.kr

서울생활용품라자

생활용품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자원순환을 실천하기 위한 워크숍과 퍼포먼스, 디자인 제품 전시 등이 꾸준히 진행된다.

서울시 성동구 성동구 자동차시장길49 www.seoulup.or.kr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디자인 창업과 관련한 특화 공간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의 시작과 성장을 지원하는 서울 청년 디자인 창업 허브.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2길 19 코스테이션 서울디자인창업센터 3층 운영센터 www.sdf-incu.or.kr

식당·카페

해로커피

휘카페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단일서울 원두를 직접 만들고 판매하는 커피 브랜드로

취향에 맞는 원두를 고르고 해당 원두로 마시고

싶은 음료를 선택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66-33 1층 danilseoul.kr

복식커피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복식커피 동네 카페의 따뜻함과 여유로움을 간직한 곳으로

맛있는 커피와 수제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
서울시 성동구 성덕정3길 7-1 @boksic_coffee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풀리깬밥 성수점 익숙한 식사 메뉴인 김밥의 속재료를 원하는

취향대로 주문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김밥

브랜드.
서울시 성동구 성수일로10길 26 하우스디

세종타워 상가동 112호 @fullygimbap_official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잼잼 노출 콘크리트 인테리어와 흑임자 라테, 크림블,

제철 식재료로 만드는 메뉴로 입소문이 난 브런치

카페.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9길 24 B1층

@jamjam.cafe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티프 합정점 커피와 함께 티프에서 재해석한 한국 전통

디저트인 설기, 찹쌀떡, 구운 꿀 약과, 인절미 등을

즐길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11길 64 1층

@official_tiff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라데팡스

도시 라데팡스의 랜드마크 그랑드아르슈를

모티프로 한 카페로 달콤한 슈페너 음료와

아쌌 밀크티, 디저트류가 인기 메뉴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45

리더스퀘어빌딩 A동 109호

@cafe_ladefense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후름 로스터스 스페셜티 카페로 원두부터 캡슐, 드립백 등을

판매하고, 커핑을 할 수 있는 크고 긴 테이블이

마련돼 있다.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6로 45

리더스퀘어 B동 1층 118호

@hooroop_roasters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맨홀커피웨스턴 26년 경력의 목수와 제자가 폐자재를 활용해

만든 웨스턴 느낌의 카페로 서부영화 세트장 같은

빈티지한 인테리어가 이색적이다.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7길 24

@manhole_western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연남방앗간 다이닝 DDP점 방앗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캐주얼 다이닝

브랜드로 쌀과 기름으로 만든 기름떡볶이와

들기름국수가 대표 메뉴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 281 DDP 디자인랩 2F

@yeonnambangagan.dining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연남방앗간 서울역점 로컬 브랜드를 소개하는 편집 상점이자 카페로

방앗간 모티프의 한국식 식음료 메뉴를 선보인다.

서울시 중구 통일로 1

@yeonnambangagan.dining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세화미술관

동시대 문화예술 향유를 실천하고자 다양한

소장품을 공공장소에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작가 교류전, 신진 작가 등 기획전을

선보인다.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68 흥국생명빌딩 2층

www.sehwamuseum.org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청계천 박물관 청계천 복원사업과 함께 건립되었으며

6백여 년에 걸친 청계천 역사의 여정을 전시한다.

서울시 성동구 청계천로 530

museum.seoul.go.kr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망원동 수장고 소통 작가들의 작품을 보관하고 단체 전시도

기획하며 작품 판매는 물론 예술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간다.

서울시 마포구 방월내로 54 1층

@so.tong_localstorage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한지문화산업센터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공간으로 전통

한지를 체험할 수 있는 ‘한지 모빌 키트’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31-9

www.kcdf.or.kr/hanji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지우헌 한옥 형태의 전시 공간으로 동시대 미술 흐름에

따른 전시와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있다.

11월 25일까지 분청사기 대가 허상욱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라길 13

@jiwooheon_dh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문화역서울284

옛 서울역사의 원형을 복원해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선보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일상 속 문화

재창조 공간’의 역할을 지향한다.

서울시 중구 통일로1

www.seoul284.org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앵그로브 신실

원하는 시간에 따라 유연하게 머물 수 있는

코리빙 하우스. 20여 개의 공용공간과 공용 키친

및 북한산이 내려다보이는 루프톱 테라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22

mangrove.city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앵그로브 동대문 여행하듯 머물 수 있는 코리빙 하우스로 동대문의

경치를 조망할 수 있는 최상층의 라운지,

쓰리낫쓰리 카페의 음료와 스낵을 즐길 수 있는

라운지가 있다.

서울시 중구 퇴계로 334

mangrove.city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노스텔지어 웰컴센터

도심 속에서 한옥이 건네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최고급 한옥 호텔 브랜드.

가장 한국다운 거주 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8길 1, 1층

www.nostalgiaseoul.com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하노크북촌

1930년대에 지어진 한옥 안에 디자이너의

의자와 조명 등 모던한 인테리어를 더했다.

한옥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현대적인 편리함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운치 있는 숙소.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길 17-5

@hanoque_bukchon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락고재 북촌빈칸 더 리빙룸

락고재의 한옥 호텔 안에 있는 코리안 티 하우스.

한국 전통차를 마실 수 있으며 아름다운

고가구와 도자기 컬렉션으로 꾸며진 한옥의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1가길 10, B2층

@rakkojaeofficial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라까사호텔 서울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호텔로 머무는 동안

자연과 디자인, 예술과 문화가 깃든 공간에서

여유로움과 일과 생활의 균형, 에너지와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길 83

www.hotellacasa.kr

풀리깬밥 성수점

잼잼

티프 합정점

히포 브런치하우스

주아 루엘르

네임드에스프레소

로스팅한 신선한 커피를 맛볼 수 있다.

라까사호텔 광명

집처럼 아늑한 객실과 다양한 콘텐트, 광명의

지역 문화를 느낄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호텔.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12번길 22

라까사타워 7층

워킹온선사인 밀가루, 백설탕, 동물성원료, 방부제, 첨가물을 넣지 않는 스무디 볼과 비건 그레놀라로 입소문이 난 곳.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0가길 17 @walking_onsunshine_

플랜티카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무설탕 비건 케이크를 선보이는 곳. 대체당, 국산 쌀가루, 현미유 등을 사용해 건강과 맛을 모두 잡는다.

-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54길 7 1층 @plantica.korea

우부래드 환경과 사람, 동물을 생각하며 달걀, 우유, 버터 등의 동물성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건강한 빵을 만드는 비건 베이커리.

-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37길 3 @ooh_breado

지구손길 제로샵 친환경 물품, 공병을 사용하는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숍.

- 서울시 구로구 천왕로 21 천왕이펜하우스 701동 1층 cwsongil.modoo.at

플라프리 3명의 디자이너가 버려진 에코백으로 업사이클링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한다. 폐현수막으로 플로깅 백을 만드는 등 환경 캠페인 활동도 펼치고 있다.

-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 157-4 1층 blog.naver.com/plaafree

비건카페 달냥 두유 아이스크림처럼 순식물성 재료를 사용하는 비건 카페지만 샌드위치, 파스타 등의 식사 메뉴도 주문할 수 있다.

- 서울시 종로구 혜화로 45 2층 @dalyang_vegancafe

제로웨이스트샵 안녕상점 기후 위기 대응을 실천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제로 웨이스트 숍 운영을 비롯해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비누 작업장 운영,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43길 18 2층 hellocoop2021.modoo.at

지구살림터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제로 웨이스트 숍. 자원순환 센터를 비롯해 친환경, 재활용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한다.

-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북로16길 41 1층 jigusallimter.modoo.at

순환지구 우리 동네 무포장 가게로 식물과 세제 리필 스테이션, 친환경·채식 식료품, 자원순환 등 쓰레기를 줄이는 방식을 고민하는 제로 웨이스트 숍.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25길 8 1층 linktr.ee/soonhwan_jigu

타이니 포레스트 작은 식물들이 모여 정원과 숲을 이루길 바라는 식물 가게로 가드닝 클래스도 진행한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30길 18-4 1층 @tinyforest_official

지구샵 제로웨이스트홈 ‘제로 웨이스터의 집’이라는 콘셉트의 공간에서 친환경 제품과 리필 스테이션, 자원순환 센터를 운영한다.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55 1층 www.jigushop.co.kr

지구샵 그로서리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료와 식사 메뉴를 판매하며 비건을 위한 식재료와 제로 웨이스트 제품, 식재료 리필 스테이션이 마련돼 있다.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 93 1층 www.jigushop.co.kr

일상공간 길음 제로 웨이스트 숍으로 작은 플라스틱과 우유팩, 멸균 팩 수거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모임 공간으로 대관할 수 있다.

- 서울시 성북구 삼양로 27 1층 @iilsang_gongam0

널스밤 고품질의 천연 비누를 만드는 공방이자 리빙 편집숍. 립밤, 샴푸 바 등을 구입하거나 만들어볼 수 있다.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33 마포한화오벨리스크 지하상가 132호 www.nursebalm.com

소하 테라리엄 작가 소파의 개인 이끼 정원이 있는 스튜디오 겸 공방. 테라리엄 수업, 이끼 정원 조경 시공을 하고 식물을 판매한다.

- 서울시 종로구 백석동1가길 45 3층 @soha_plant

앞으로의 빵집 맛있는 비건을 지향하는 비건 베이커리 카페로 9無9有的 음식 재료로 사람과 지구의 건강을 모두 생각한다.

-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32가길 29-1 @apbbang

브론토 식물성 재료로 대체해 비건 쿠키, 크럼블을 만든다. 우리 땅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해 첨가물은 최소화하고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디저트를 판매한다.

- 서울시 양천구 신목로6길 41 1층 smartstore.naver.com/bronto_vegan

포포브레드 사람, 동물, 지구, 내일 네 가치를 생각하는 따뜻한 비건 베이커리. 식물성 재료만 사용하며 우유, 버터, 달걀, GMO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재생수지로 포장한다.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13 1층 smartstore.naver.com/forfourbread

노노샵 비건과 제로 웨이스트 문화를 향유하고자 다회용 생활용품과 책, 공산품을 판매하며 식료품과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한다.

- 서울시 용산구 보광로 90 202호 @nonoshopseoul

얼스오브제 인체에 무해한 신소재인 제스모나이트로 오브제를 만드는 공방 겸 제로 웨이스트 숍. 천연 수세미, 고체 치약, 고체 비누 등의 상품도 구입할 수 있다.

-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18길 11 2층 @earth_objet

딜레이파크 재활용이 어려운 와인병을 이용해 업사이클링 소품을 제작하고 지구와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제안한다.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91 2층 사생활 @delaypark_glass

여니다음 꿈을 짓는 이야기를 그리고 쓰는 일러스트레이터 여니다음의 그림이 담긴 문구류를 선보인다.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91 2층 사생활 @yeony.world

페이퍼코스믹 ‘Always Better Together.’ 일과 일상, 라이프 스타일을 탐구하며 워크웨어와 패브릭 아이템을 만든다.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91 2층 사생활 @paper_cosmic_

픽클로버 자연을 향유하는 지속가능한 라이프를 위한 피크닉 & 플랜테리어 제품을 디자인 개발 및 제작 한다.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91 2층 사생활 m.piclover.kr

늘보따리 & 공방 늘 친환경 수제 비누, 천연 수세미, 제로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공정무역 등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한다.

-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4길 24 103호 @neul.bo.ddari

포도 연남점 다양한 와인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날 수 있으며 스낵과 하몽도 준비되어 있다.

-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42 1층 @podo_yeonnam

젤라테리아 에마 인공색소, 향료, 감미료 등 화학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순수 자연 젤라토를 만든다.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4길 44 1층 @gelateria.eta

POT 의류 디지털 프린팅 POT는 개인의 창작물과 색을 의류에 접목한다.

- 서울시 동교로38길 33-9 202호 www.pointoftime.co.kr

디어다운 설탕과 플라스틱 대신 자일로스 설탕을 사용해 푸딩을 만들고 포장 시 친환경 용기를 사용한다.

- 서울시 마포구 연희로1길 28 101호 @dear_daon_

그린하트클럽 ‘함께 키우는 연남동 식물 유치원’을 표방하며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식물과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도 소개한다.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6길 9 102호 @green.heart.club

지구제과 비건 & 글루텐프리 제과점으로 식물성 재료와 쌀, 현미 가루를 사용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비건 디저트를 만든다.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9길 30-3 @jigu_bakery

단스토어 빈티지 오프라인 숍으로 리사이클, 세컨 핸드, 빈티지 제품 등을 판매한다.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57 3층 @danstore_duja

해피헤비드링크 브런치와 와인, 커피까지 즐길 수 있는 카페 겸 바.

-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306 1층 @happy.heavy.drinker

블랑코 무드 깨끗함, 순수함을 비누에 담는다는 모토로 만들었으며 비누는 물론 비누 만들기 클래스도 운영한다.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5길 31 1층 @blanco_mood

슬런치 팩토리 연남점 누구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 비건 레스토랑으로 논비건도, 비건도 즐길 수 있는 채식 기반 이탈리아 요리를 만든다.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161-6 지층 @slunch_factory

펠른 에스프레소 바 비건 옵션의 커피, 각 재료의 풍미를 충분히 살린 디저트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다.

-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22길 18 @perlen_official

씨드키퍼 씨앗을 매개로 식물 경험을 디자인하는 브랜드이자 스튜디오.

- 서울시 마포구 연남로3길 58 1층 @seed_keeper

디자인 숍

누하우스 홀 고척

리빙 룸부터 키친, 서재, 정원 등 집을 모티프로 한 공간에서 누하우스의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43길 49
아이파크몰 고척점 A동 1층
www.nouhaus.co.kr

창작스튜디오 놀자

현대적인 공예를 체험하고 공예 교구를 구입할 수 있으며 공예 작가와 함께 하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29길 27
www.nolja.shop

상델드루사

정교한 프렌치 스타일을 추구하는 플라워 스튜디오로 클래스를 운영하며 공간 장식 디자인, 웨딩과 플라워 연출 디렉팅을 제공한다.

서울시 중구 필동로 65 2층
blog.naver.com/syhoney

그랜맥캐비넷

‘할머니 장롱에서 나온 영롱한 물건’을 콘셉트로 한 잡화점. 빈티지 소품과 브랜드 상품, 자체 제작 상품을 두루 소개한다.

서울시 중구 퇴계로27길 42 3층
@grandmacabinet

마인밍스

만든 이의 마음과 브랜드 철학이 담긴 문구와 리빙 소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숍.

서울시 중구 수표로 32-1 2층
www.mindthings.co.kr

금지옥엽 을지로

포스터, OST 등 영화와 관련된 콘텐츠 스토어로 지역의 커뮤니티 시네마 단체들과 함께 소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한다.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60
세운청계상가 가-312
@cherish_storage

조각모음

일러스트 작가들의 굿즈와 캐릭터 제품, 스티커, 엽서 등을 판매하는 아기자기한 편집 숍.

서울시 중구 을지로 114-6 흥원빌딩 202호
@jogakmoeum_vol.1

누하우스 아틀리에

매 시즌 아티스트 및 브랜드와의 새로운 협업을 통해 누하우스의 제품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공간.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7 YM타워 1층
www.nouhaus.co.kr

피노크

‘Look Fine, Work Fine’을 슬로건으로 내건 갤러리이자 편집 숍으로 세계 각국에서 활용하는 아티스트와 디자이너들의 개성 있는 작업을 선보인다.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9길 5 2층
www.finork.kr

라폼제이 재봉틀공장

재봉틀 전문가가 재봉틀 원데이 클래스와 재봉틀 초보자를 위한 입문반과정, 재봉틀 리넨 옷 만들기 과정을 운영한다.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28길 40 1층
blog.naver.com/defend77

러브피스마음

서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디자인 스튜디오인 ‘마음 스튜디오’의 소품이자 숍으로 사랑과 평화를 바라는 이들의 디자인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길 13 1층
www.lovepeacemaum.com

뱅크 홀리데이

파리 아트 프린트 갤러리 스튜디오 서전트 페이퍼, 실버 액세서리 브랜드 오르네 등 해외 아티스트와 디자이너의 작품과 아트 오브제를 소개한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32길 10 102호
smartstore.naver.com/bankholiday

누하우스 라운지

프리미엄 리빙 브랜드 이스턴 에디션으로 스타일링한 공간에서 브랜드 누하우스가 큐레이션한 제품과 서비스를 누리는 휴식을 경험할 수 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42 2층
www.nouhaus.co.kr

레코드 이태원 시리즈코너점

레코드의 업사이클링 제품을 경험하고 구입할 수 있으며 여성복, 남성복 컬렉션과 다양한 액세서리 제품도 만나볼 수 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44
@recode_

꽃술

주택을 개조한 공간에서 한국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전통주 탁테일과 우리 술을 맛볼 수 있는 바를 예약제로 운영한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77길 33
www.kkotssul.com

생활수집

브랜드에 구애받지 않고 이름처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관찰하고, 수집하고, 소개하는 편집숍.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316 2층
collect-collect.com

레코드 박스 아틀리에

레코드가 제안하는 지속가능 패션 서비스로 입지 않는 옷을 수선하고 리폼한다. 개별 상담을 통한 고난도의 맞춤 리폼도 진행한다.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B1층(에피그램 매장 내)
@recode_sustainable

서울메이커스

일반적인 주얼리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색감과 구성, 디자인을 실험적이고 유연하게 선보이는 주얼리 플래그십 스토어.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62길 27-3 101호
www.circlemakers.kr

프랑꼬아트랩

주얼리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기업 강의를 진행하며 커스텀 주얼리, 크래프트 디자인 문화를 연구하고 발전시킨다.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110길 38 1층
www.francoshop.co.kr

누하우스 롯데월دت타워

집을 모티프로 한 소품의 리빙룸부터 키친, 서재, 그리고 정원까지 다양한 공간에서 제품과 라이프스타일을 함께 체험할 수 있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월دت타워 B1층
@nouhaus_signature_store

큐클리프

우산, 현수막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자원을 업사이클링해 가방, 잡화, 의류 같은 패션 제품을 만들고 판매한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57길 2
www.cueclyp.com

정유정 도예작업실

정유정 도예가가 운영하는 세라믹 스튜디오. 원데이 도자기 클래스와 정규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며 세라믹 키트와 제품도 판매한다.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5길 40 1층
www.coejum.com

하랑공방

생활속에서 예술하기라는 모토를 지닌 도자 공방으로 제품을 판매하며 정규 및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한다.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597
@harang_ceramic

스퀘어엔트라이앵글

골드와 실버 소재로 작업하는 핸드메이드 주얼리 브랜드의 작업실 겸 쇼룸. 부부 디자이너가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모두 책임진다.

서울시 동대문구 망우로21길 24 203호
www.square-triangle.co.kr

소소요 세라믹

25년 경력의 조성현 물레대장이 이끄는 도자기 스튜디오로 특히 달항아리 제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7-5 1층
smartstore.naver.com/sosoyo1

북촌감성

직접 제작한 공예품과 제로 웨이스트 제품을 선보이는 수공예 편집 공방. 손뜨개, 삼푸 바, 워빙 등의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한다.

서울시 종로구 계동길 60 B1층
bukchonfeel.modoo.at

덴스

덴스 디자인 스튜디오가 운영하는 브랜드로 매 시즌 새로운 테마의 의류와 가방, 문구, 액세서리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85 1층
www.thence.co.kr

알피

개성 있는 수공예 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한정 수량 판매로 소장 욕구를 자극한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6 2층
www.rpmarket.co.kr

필운동사진관

8평 남짓한 사진관은 낮에는 카페,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수제 맥주집으로 변신한다. 외부에 앉아서 서촌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15 1층
www.pudstudio.co.kr

준멜리공방

순은 주얼리 브랜드로 커풀 아이템뿐 아니라 개성을 느낄 수 있는 핸드메이드 주얼리를 제작하고 클래스를 진행한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85-1
junmely.imweb.me

매종드상델

향기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캔들 향수 공방. 선물용으로도 좋은 캔들, 방향제, 커스텀 향수를 제작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와 전문가반을 운영한다.

서울시 종랑구 면목로22길 36 2층
litt.ly/chandelle

유카 플라워&가든

생화는 물론이고 프리저브드 플라워, 조화, 레고, 패브릭 소재의 꽃 등 꽃과 관련한 소품을 활용해 꽃다발로 제작한다.

서울시 종랑구 공릉로2길 28 1층
@yukaflower_official

포셋

다양한 디자인의 엽서를 구경하고 구입할 수 있다. 구입한 엽서에 편지를 쓸 수 있는 책상을 예약할 수 있고, 기록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정액제로 운영한다.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18 3층 305호
@poset.official

키오스크키오스크

일상에 영감을 불어넣어줄 작가와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며 로컬 디자이너, 작가와 협업한 ‘KK 에디션’ 상품 제작과 기획전, 워크숍도 운영한다.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2길 18-14 2층
@kioskkioskshop

안봉괄렉터

두 자매의 확고한 취향이 담긴 제품을 둘러볼 수 있으며 비정기적으로 팝업, 전시, 플리 마켓, 토크,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0길 22 3층
unboncollector.com

흑심

단종되거나 희귀한 연필 등 오래된 연필과 이야기를 담은 공간. 시필용 연필로 써보고 내 손에 꼭 맞는 연필을 찾을 수 있다.

서울 마포구 연희로 47 3층 301호 3층
blackheart.kr

미래의 미래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의 독특한 오리지널 굿즈와 다양한 소품,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편집 숍.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29다길 14 3층
mirai-no-mirai.com

프렌치 머스터드

수입 문구와 그림책, 일러스트 엽서, 인형 같은 소품을 판매하는 라이프스타일 편집 숍. 자체 제작 아트 브랜드도 함께 운영한다.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29길 48 1층
@french.mustard.official

사일로상점

그동안 모아온 애장품의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앤틱 숍. 주인장에게 도슨트를 요청하면 물건마다 간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히우정로10길 32 1층
@silo_collection

오다가주웠다

캔들, 디퓨저, 방향제 등의 향기 있는 리빙 소품을 판매한다.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픈 시간을 공지하니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서울시 강서구 공학대로8길 31 2층
@callia_handcraft

로그 아로마 라이브러리

나만의 생각과 감정이 담긴 향을 만들어볼 수 있고, 다른 향도 체험할 수 있는 향수 공방. 조향을 배울 수 있는 수업도 진행한다.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7길 37 1층
logaromalib.co.kr

프린트데스크

공간에 고유한 미감을 더해줄 빈티지 조명과 쓰임새가 다양한 오브제들을 만날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51 2층
smartstore.naver.com/frontdesk

손재주공장

마크라메 전문 교육기관으로 기초 과정부터 전문가 과정, 자격증 취득 준비 과정까지 모두 배울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45 메세나폴리스 112호
@sonjefactory

아워오르빗

키 링, 문구, 데스크용품 등의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직접 진행하는 핸드메이드 가죽 공방.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27
서울여성공예센터 302호
@ourorbit.kr

콩콩이 그림가게

표정이 살아 있는 고양이, 강아지 그림들로 머그, 쿠션, 가방 같은 생활용품을 만든다. 작은 갤러리이자 따뜻한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숍.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길49 안녕인사동 3층 25호
@kongkongy.seoul

Seoul Design Spot 2023

글월

편지 쓰는 생활을 위한 공간. 보드라운 살구색 공간에 들어가서 선반을 하나씩 열어보며 편지와 관련된 제품을 둘러볼 수 있다.

서울시 서대문구 증가로 10 403호
www.geulwoll.kr

종킴 디자인 스튜디오

국내 유명 브랜드의 공간 프로젝트를 맡아온 공간 전략 디자이너 종킴의 디자인 스튜디오. 그의 작업실과 스튜디오 내부를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대로42가길 46
www.jongkimdesign.com

러쉬 강남역점

맞춤형 퍼퓸 서비스와 제품을 제공하는 퍼퓸 라이브러리와 나만의 고유한 라벨을 만들 수 있는 퍼스널리제이션 스테이션을 갖춘 러쉬의 매장.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33
weare.lush.co.kr

러쉬 명동점

러쉬의 국내 첫 매장으로 최근 리뉴얼 오픈을 했다. 명동점에 특화된 디지털 데모 존을 통해 러쉬의 제품을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다.

서울시 중구 명동8길 6
weare.lush.co.kr

러쉬 홍대점

기존 러쉬 매장과 다른 콘셉트를 도입한 매장으로 친환경 소재의 인테리어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홍대 지역의 트렌디한 분위기를 반영했다.

서울시 마포구 잔다리로6길 39
weare.lush.co.kr

‘Seoul Design Spot 2023’ unveils the dynamic locales across Seoul that wield significant influence as ‘design trendsetters,’ presenting them to the public. Annually, a collaborative effort among exhibitions, cafes, facilities, studios, lodging, restaurants, and more throughout Seoul transforms the city into a vibrant ‘design festival’ and a hub for ‘design business.’ This convergence aims to entice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sitors through compelling promotions and events. The heartbeat of Seoul’s design trends emanates from these ‘hip & hot spots,’ serving as the cornerstone of the city’s marketing and a testament to its future legacy. The ‘Seoul Design Spot 2023’ map and posters, strategically disseminated, facilitate an enhanced experience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velers seeking to explore Seoul’s dynamic and trendsetting destinations.

Within the framework of <Seoul Design 2023>, ‘Seoul Design Spot 2023’ plays a pivotal role in fostering broader citizen involvement and spatial expansion of the project. Integrated promotional materials, including leaflets, posters, and flags, are thoughtfully distributed, and displayed at the selected sites, creating an engaging ambiance that accompanies the city-wide design festival.

Website seouldesdesignspot.or.kr

협력 프로그램

알폰스 무하 이모션 인 서울

Alphonse Mucha eMotion in SEOUL

아르누보 스타일의 대가 알폰스 무하의 작품을 디지털화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하는 글로벌 브랜드 아이무하 프로젝트 IMUCHA PROJECT의 일환으로 기획했다. 프라하 오리지널 몰입형 멀티미디어 전시로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었다. 특히 사면으로 이뤄진 압도적 크기의 스크린을 메운 알폰스 무하의 작품은 오케스트라 음악까지 더해져 장엄한 아름다움을 선사했다. 전시는 '무하의 작업실 - 프롤로그/에필로그', '파리 산책', '아르누보 정원', '성 비투스 성당', '슬라브 대서사시', '무하와 뉴욕' 총 6개의 챕터로 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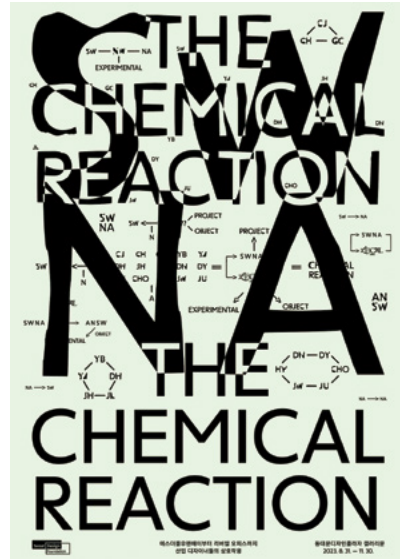
일정	2023년 7월 22일 - 10월 30일
장소	DDP 뮤지엄 전시 1관
관람료	어른 2만 원, 청소년 1만5000원, 어린이 1만3000원



The Chemical Reaction 에스더블유앤에이부터 리버럴 오피스까지 산업디자이너들의 상호작용

SWNA Suk Woo and Associate는 2011년 디자이너 이석우가 설립한 산업디자인 오피스로 다양한 분야에서 실험적 디자인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창작물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SWNA와 리버럴 오피스 Liberal Office의 디자인 작업 과정, 그리고 SW와 소속 디자이너 간 관계와 소통 과정을 드러내며 한국 산업디자인 오피스의 현실을 살피고 미래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새로운 세대의 디자인 집단을 꿈꾼다.

일정	2023년 8월 31일 - 11월 30일
장소	DDP 갤러리 문
관람료	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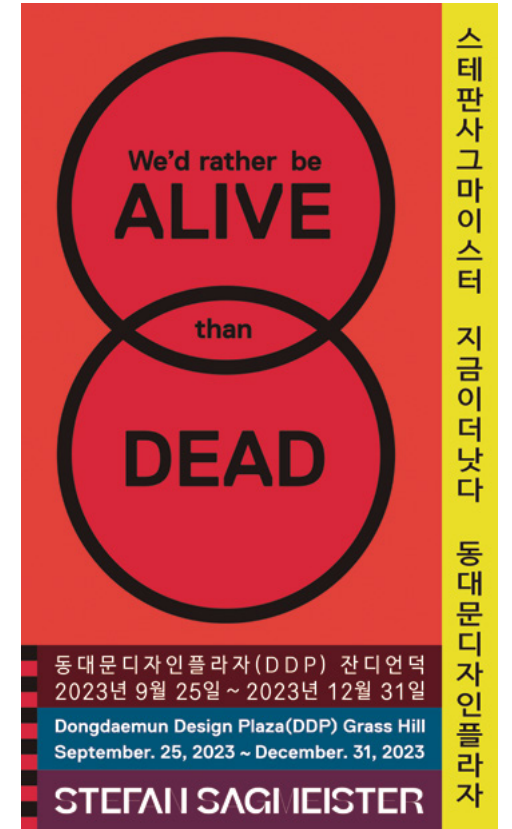
2023 DDP 디자인 융합 전시

We'd rather be alive than dead:

삶은 그 어떤 경우에도 죽음보다 아름답다

세계적인 그래픽디자이너 슈테판 사그마이스터 Stefan Sagmeister의 'Now is Better' 시리즈 중 하나로 DDP에 설치하기 위해 특별히 기획한 작품. 120개의 에어 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 120년간 한국의 평균수명이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수명 연장이라는 긍정적 변화를 에어 댄서를 활용해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높이 1m부터 8m에 달하는 에어 댄서는 긍정적 변화를 향해 인류가 발전해 왔음을 의미한다.

일정	2023년 9월 25일 - 12월 31일
장소	DDP 잔디언덕
관람료	무료





Design Dream Land: Fall in K-POP 디자인 드림 랜드

한류 열풍을 선도하는 K-팝을 중심으로 디자인, 패션, 일러스트 작품 등 다양한 시각적 요소를 접목했다. K-팝이 세계를 매료하기까지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재의 K-팝을 디자인 요소와 함께 흥미롭게 보여준다. 일러스트레이터 신모래를 비롯해 팝아티스트 홍원표, 패션 브랜드 선우SUN WOO 등이 참여해 K-팝의 과거와 현재, 나아가 미래를 다각도로 보여준다.

일정	2023년 9월 22일 - 2024년 4월 30일
장소	DDP 디자인랩 3층
관람료	무료



럭스: 시적 해상도 LUX: Poetic Resolution

2021년 런던에서 개최한 <럭스: 현대미술의 새로운 물결>의 두 번째 전시. 동시대 현대미술가이자 세계적인 아티스트 카르슈텐 니콜라이Carsten Nicolai, 피필로티 리스트Pipilotti Rist, 드리프트Drift 등 12팀의 아티스트 그룹이 참여한 대규모 미디어 작품 16점을 만날 수 있다. 미디어아트 그 이상을 지향하며 해상도와 주파수의 간극과 경계를 통해 예술로 승화된 '테크놀로지로 만들어진 시'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일정	2023년 9월 5일 - 12월 31일
장소	DDP 뮤지엄 전시2관
관람료	일반 2만 원, 청년 1만5000원, 청소년 1만5000원

플라스틱 정글 탐험대: SUP 습격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 기업인 국제평화상사가 활동하는 업사이클링 예술 단체 피스오브피스와 협력한 전시. 전시는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와 무분별한 자원 개발로 인한 지구 환경 파괴와 인류에게 닥친 위기 등의 사회문제를 보여준다. 멀쩡하지만 더 이상 찾지 않아 버려지는 수많은 장난감으로 만든 작품은 인간의 소비 방식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준다. 전시에는 피스오브피스의 김한솔, 서동해, 이연우, 천근성 작가가 참여했다.

일정	2023년 8월 9일 - 12월 31일
장소	서울새활용플라자 1층 새활용하우스 공연장
관람료	무료



서울디자인창업센터 데모데이

서울디자인창업센터에서 청년 창업을 독려할 목적으로 시행한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통해 육성한 10개 창업 팀이 자사의 비즈니스모델을 발표했다. 최우수 한 팀과 우수 두 팀을 선별해 시상했으며, 일반적인 데모데이와 달리 행사에 참여한 일반 시민이 점수를 매겼다. 심사에 참여한 시민에게는 추천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제공했다.

일정	2023년 10월 24일
장소	DDP 디자인랩 3층 디자인홀
관람료	무료



만든 사람들

지속적인 알찬 열매가 열릴 수 있게 함께 참여 주신 플레이어분들께 감사드리며, 서울다운 디자인축제가 되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 **최구환 본부장**

10일간의 행사기간 동안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열기를 뜨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디자인축제로 내년엔 더욱 멋지게 준비하겠습니다. - **안재선 실장**

<서울디자인위크>로는 10년 차 되었지만, 규모와 전문성을 확대한 <서울디자인>으로 새롭게 선보이고 2년 차 되어서 비로소 디자인비즈니스 전문 행사이자 서울 대표 디자인 축제로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서울디자인>이 한발 더 나아가 DDP를 중심으로 서울뿐 아니라 아시아 대표 디자인 전문 축제로 열매를 맺을 것임에 확신을 주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 **정효순 팀장**

DDP 안팎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해 대외적으로 꽃 피운 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결실에 성취감이 있었고, 또 <서울디자인 2023>의 일원으로 일할 수 있어 즐거웠습니다. - **최주미 책임**

디자인 트렌드의 중심 <서울디자인 2023>, 참여자들의 열정과 노력의 결실을 통해 새로운 디자인적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 **안지현 책임**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홍보할 맛 나는 행사였습니다. 참가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잘 전해졌길 바랍니다. 매년 10월, 가을 나들이는 단풍놀이, 그리고 <서울디자인>! - **이효원 선임**

트렌드를 보여주는 <서울디자인>과 신제품을 소개하는 'DDP디자인론칭페어'. 우리의 열정을 보러와 주신 많은 분들께 고맙습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제발! - **천윤영 선임**

한 해동안 열심히 준비한 것들이 실제가 되고, 그것을 즐기는 관람객과 기뻐하는 참여자들을 보면서 큰 만족감과 보람을 느낀 <서울디자인 2023>이었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 **윤혜진 선임**

디자이너의 무한한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서울디자인 2023>을 함께 만들어나갔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 **박유림 주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디자이너,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서울디자인 2023>에 함께해 뜻깊었습니다. 디자인을 위한 축제의 장, <서울디자인> 파이팅! 내년에 또 놀러 오세요! - **조현지 주임**



SEOUL DESIGN 2023

1판 1쇄 발행 2023년 12월 22일

가격 23,000원
ISBN 979-11-88219-73-5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복제 및 무단 변경을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업적인 용도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재)서울디자인재단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은이

(재)서울디자인재단

펴낸이

이경돈

디자인진흥본부 산업지원실 디자인산업팀

최구환, 안재선, 정효순, 최주미, 안지현, 이효원, 천윤영, 윤혜진, 박유림, 조현치

큐레이터

유이화, 전미경, 정구호

DDP디자인론칭페어 큐레이터(컬래버레이션)

신태호, 안강은, 정미, 조은환, 하지훈

DDP디자인론칭페어 큐레이터(론칭)

김종완, 박근하, 송봉규, 오세은, 이달우

진행

(주)디노마드, (주)모티프커뮤니케이션, (주)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 (주)유니모토

후원·협력

구정마루, 노트드(GFFG), 농심기획, 디오리진, 디자인하우스, 랩엠제로,
러쉬코리아, 로얄앤컴퍼니, 리퓨어헬스케어, 맹그로브 MGRV, 문호리리버마켓,
BMW 코리아 미래재단, 송월타월, 고창군×상하농원, 새턴버스, 아모레퍼시픽,
아얀투, SK이노베이션, 이케아코리아, 종근당건강, 테이팩스, 한국리노베링,
한솔제지, 한솔홈데코,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 한국공예디자인진흥원 KCDF,
헬로우미스터리, 현대자동차, 플라스틱방앗간

미디어 파트너

동아일보, 월간 디자인, Dezeen, Designboom

기획·편집

박민

사진

이제민

디자인

취그라프 — 최종원, 고경아

교열

최현미, 박혜경

펴낸곳

(재)서울디자인재단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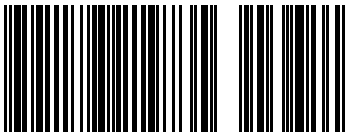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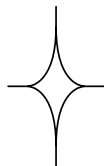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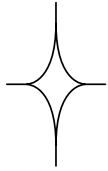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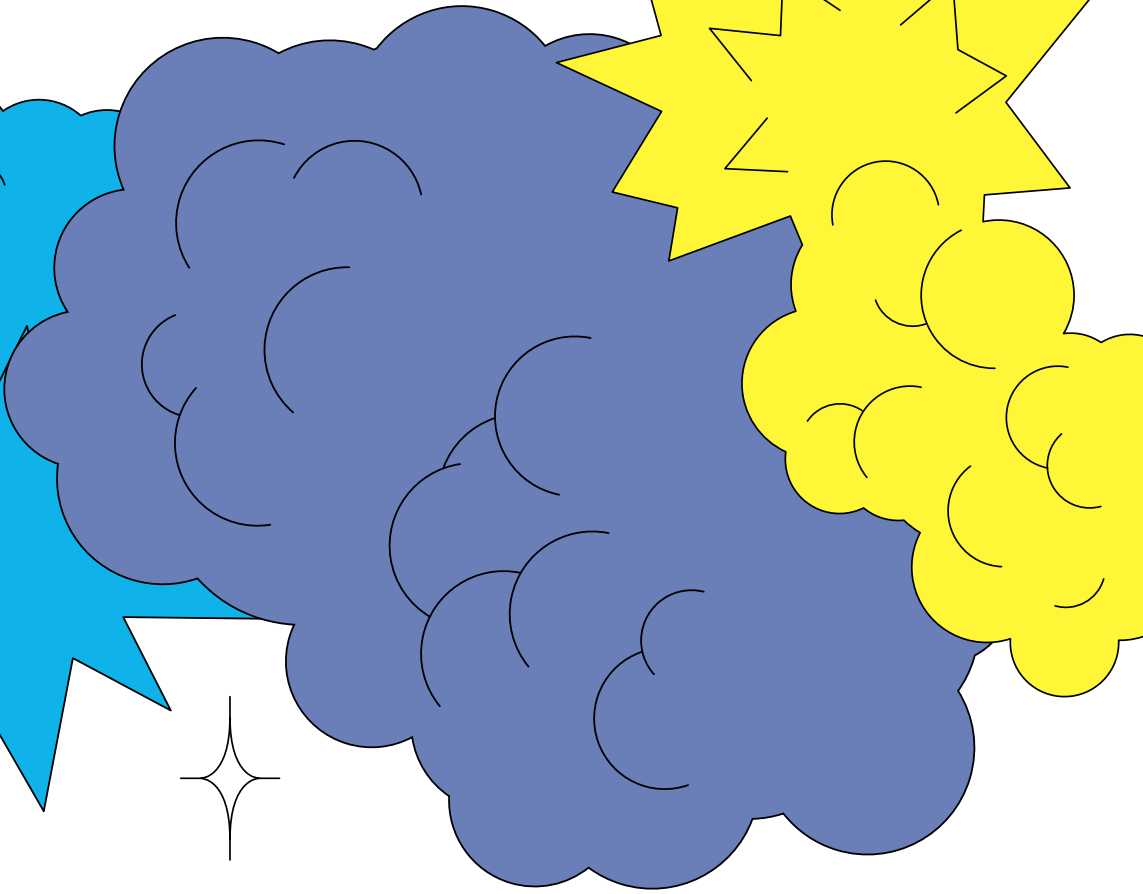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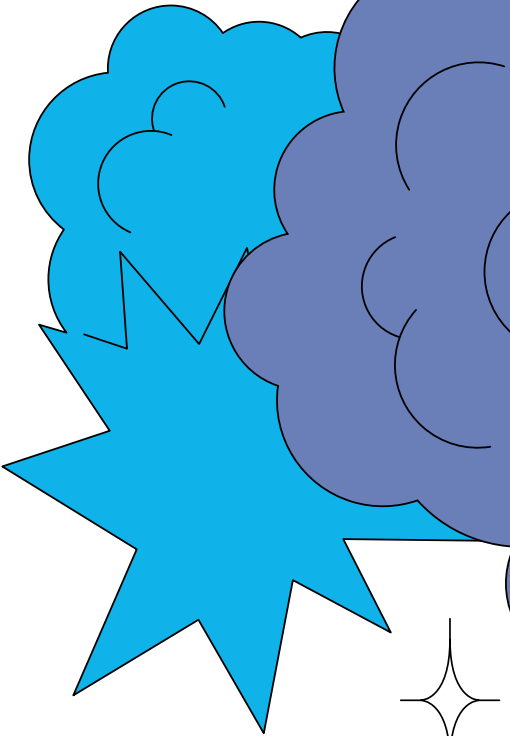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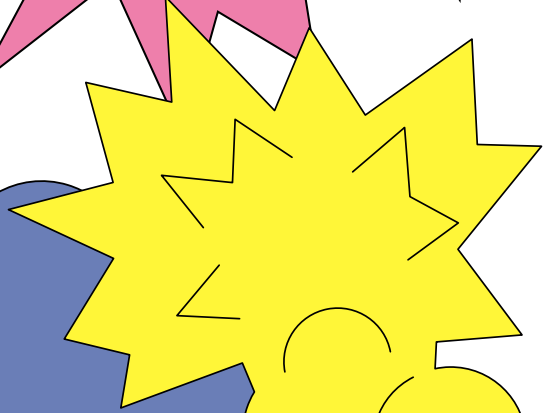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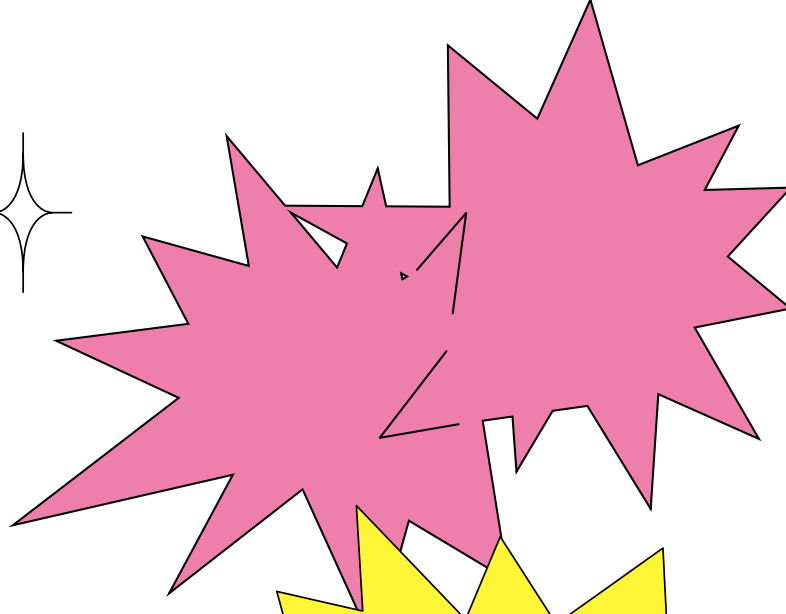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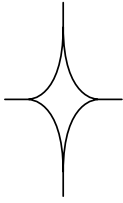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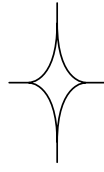
서울디자인2023 | seoul-design.or.kr

DDP디자인론칭페어 | ddpdesignfair.or.kr

서울디자인스팟2023 | seoul.designspot.or.kr

SEOUL
M! SOUL

서울디자인 2023: 아카이브
Seoul Design 2023: Archive



ISBN 979-11-88219-73-5 03650 23,000원

서울특별시

Seoul Design
Foundation

서울디자인재단